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진호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교육과정과 외국 문학 수록 양상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최지혜

교육과정과 외국 문학 수록 양상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강진호 지도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최지혜

인 준 서

최지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선행연구 고찰	3
3.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7
II. 국어과 교육과 외국 문학 교육	11
1. 국어과 교육과 외국문학 교육	11
2. 국어 교과서에서 외국 문학의 비중	16
III. 교육과정과 외국 문학 수록 양상과 특성	20
1. 교수요목기	22
2. 제1차 교육과정	29
3. 제2차 교육과정	41
4. 제3차 교육과정	55
5. 제4차 교육과정	69
6. 제5차 교육과정	87
7. 제6차 교육과정	105
8. 제7차 교육과정	116
IV. 교과서 수록 외국 문학의 종합적 검토	123
1. 통계자료의 분석	123
2. 교과서수록 외국 문학의 의미 분석	125
1) 장르와 수록 방식의 측면	125
2) 작가와 작품 및 시대의 변화	128
3) 주제의 특성	132
V. 결론	136
참고문헌	137
ABSTRACT	

표 목차

<표 1>교과서 수록 외국 문학 작품	17
<표 2>교수요목기에 수록된 외국 문학	24
<표 3>제1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외국 문학	30
<표 4>제2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외국 문학	43
<표 5>제3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외국 문학	57
<표 6>제4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외국 문학	71
<표 7>제5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외국 문학	90
<표 8>제6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외국 문학	107
<표 9>제7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외국 문학	118
<표 10>외국 문학 제재 국어 교과서 수록 빈도	123
<표 11>교육과정기에 따른 외국 문학의 장르별 분포	125
<표 12>국어 교과서 수록 외국 문학 대표 텍스트	128
<표 13>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의 작품으로 구분	13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표는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외국 문학 작품의 수록 양상을 검토하는 데 있다. 국어과 교육과 외국 문학 교육을 살펴 보고,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외국 문학 수록 작품 목록을 검토하고 학습 활동과 함께 분석하여, 종합적 검토를 고찰하였다.

우선 국어과 교육과 외국 문학 교육에서는 국어 교육에서 외국 문학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문학 교육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외국 문학 작품을 접하게 되며, 문학 작품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배워나가는데 외국 문학 작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학교 정교 교육과정에서 접하고 있는 외국 문학은 국어과 단원의 하나로서 세상을 이해하는 문의 역할을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다양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고, 세계관과 가치관, 감수성 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변천과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목록을 검토하는데 있어 그 대상을 교수요목기, 제1차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 제3차 교육과정, 제4차 교육과정, 제5차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 7차 교육과정은 중학교 단계가 완성되지 않았고 부분 시행을 하고 있기에 다루지 않았으며, 여기서는 각 교육과정기의 특징과 함께 수록된 외국 문학 작품과 학습 문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수록 외국 문학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기 별로 새로운 작품이 한 두 개씩 수록이 되기는 하지만 그 수록된 작품이 거의 반복되는 형식임을 알았고, 또한 최근의 작품들은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교과서 수록 외국 문학을 장르와 수록 방식의 측면, 작가와 작품 및 시대의 변화, 주제의 특성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다. 먼저 갈래와 수록 방식의 검토를 통해 장르별로 비교해 보면 소설이 26.5%, 시는 18.4%, 수필은 36.7%, 희곡은 6.1%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 문학을 장르별로 살펴 보았는데, 소설과 수필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전체 장르에 대한 학습자의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게 하기 위해 시, 소설, 수필, 희곡 장르 사이에 골고루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작가와 작품 및 시대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까지 대부분 몇 작품 위주로 한정된 제재가 계속해서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유명한 작가의 좋은 작품이 교과서에 수록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학습자들의 외국 문학 교육에 있어서 다각적인 사고를 위해서 다양한 작가의 다양한 작품이 수록되었음 더 좋을 듯하다. 또한 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의 성비 불균형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주제의 특성에서는 애국심 고취와 민족의 수난, 성장 그리고 사랑으로 항목화를 시켰다. 애국심 고취와 민족의 수난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마지막 수업」과 「어두운 시절」(=폴란드 소녀의 울음, 폴란드의 소녀), 「안네의 일기」이며, 성장을 주제로 한 작품은 「큰 바위 얼굴」, 「이해의 선물」, 「나비」 등으로 성장 소설의 형식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은 「아버지의 뒷모습」과 「별」이다. 이 작품들을 통해서 청순한 남녀간의 사랑과 부모와 자식간의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보여준다.

교과서에 수록되는 외국 문학 작품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외국 문학의 작품 선정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할 점은 여태까지 교과서 수록 외국 문학 작품은 서구 지향주의적이었다. 이에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제3세계의 문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국 문학을 한국 문학과의 관련 양상을 밝혀서 외국 문학과 한국 문학의 상호보완적 교류를 통해 전반적인 문학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 문학 작품과 학습활동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었으며 차이점이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교과서는 교사에게 가르칠 내용을, 학생에게 배울 내용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자료이다. 이는 교과서 안에 학습할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 말해서 국어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가 될 것이다.¹⁾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교육과정과의 관계 속에서 구현이 된다. 기본적으로 국어 교과서는 교육과정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는 기본 축은 교육과정과 글 제재이다. 교과서 내용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년별 내용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글 제재가 중심을 이룬다.

구인환은 “교과서를 통하여 배운 작품은 다른 작품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준거를 이룬다”²⁾라고 하였다.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외국 문학 교육의 비중은 국어과 교육에서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는데, 따라서 교과서에 실린 외국 문학 작품들이 학생들의 삶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1) 최미숙 외(2008),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57면

2) 구인환 외(2007), 『문학교육론』, 삼지원, 207면

교육과정의 구현 자료는 교과서이다. 그래서 모든 학교의 교사들은 교과서를 주된 교수 자료로 삼아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는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교과서를 주된 학습 자료로서 배운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교육이 강조하고 있는 민주 시민 의식과 가치관, 각 교과와 지도 내용인 지식과 기능, 그리고 창의성이나 비판성과 같은 고등 수준의 사고력 교육이 모두 교과서를 통해 지도되고 학습된다.

이처럼 한 사회가 외국 문학을 수용하는 방식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문학에 관한 교육을 중학교 과정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우리나라 사회의 문화 이념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본다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외국문학 교육이 배제되고 있는 현상은 우리의 문화와 이념이 교육 과정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학교에서 외국 문학 교육은 왜 필요한 것인가? 세계 각국의 문학은 나름대로 민족적·언어적·풍토적 특성을 지니면서도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외국 문학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한다. 따라서 외국 문학을 수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학을 이해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학과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이해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도와준다. 또한 그것은 새로운 자극이라는 형태로 다가오기에 민족 문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준다.

이는 외국 문학에 대한 이해와 함께 우리 문학의 전통에 대한 이해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의 것, 우리의 문학에만 갇혀 있다면 비교대상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 문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라는 표어처럼 우리 문학의 특수성에만 중점을 두는 연구를 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므

로 우리 문학의 특징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국 문학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며, 또한 이는 우리의 것이 올바르게 이해됨으로써 외국 문학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표어처럼 외국 문학의 보편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역으로 우리 민족 문학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민족 문학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문학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문학으로서의 보편성을 겸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 줄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외국 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교과서에 실어야 하는가이다. 그것은 당시 추구하던 교육과정의 목적을 나타내거나 달성할 수 있는 작품이 선택되어 교과서에 수록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요인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므로 어떤 교육과정기에 어떤 작품이 선정되었는가는 그 시대의 교육 정책을 잘 보여주며,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또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교사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교육과정기별로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 문학 작품의 양상을 고찰해봄으로써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에 대한 평가와 반성,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중학교에 수록된 외국 문학 작품을 검토하고, 앞으로 조금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과서가 편찬될 수 있도록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외국문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유인순, 조숙경, 송연주, 김향아, 이린모 등이 있다. 이들의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와 문학교과서를 통해서 연구를 논하였다.

먼저 유인순³⁾은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와 18종 문학 소개 외국소설작품들의 현황을 밝히고, 이들에 대한 6차와 7차 교육과정과의 관련사항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최다수록 작품과 최다수록 작가와의 관련성 가운데 4편의 작품-모과상의<목걸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루쉰의<아Q정전>,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을 선정하여 이들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학적 특성이 6차와 7차 문학교육과정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다.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와 18종 문학 소개 외국소설 작품들의 현황을 밝히는 작업이 일차적으로 수행되었는데, 논문에서는 “18종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 소설작품은 총 40편이고, 관련 작가는 30명에 달한다.”라고 간략하게 수치만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조금 더 보완하는 작업을 하여,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와 18종 문학교과서 각각에 어떠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서 제시를 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조숙경⁴⁾은 세계문학이 제7차 문학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적인 문학교육의 개념을 살펴보고, 문학교육의 이론과 동향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을 살펴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세계문학의 개념과 세계문학을 보는 관점을 정리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문학교육을 고찰하였다.

그다음 실제 작품들을 문학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

3) 유인순(2000), 「고교 <문학>교재와 외국소설교육」, 『문학교육학』 제5호 한국문학교육학회

4) 조숙경(2003), 「제7차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세계문학교육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기 위해 4종 이상의 교과서에 실린 프로스트의 ‘가지 많은 길’의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하지만 제7차 문학교과서는 18종이 아닌 11종의 문학교과서를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과 프로스트의 ‘가지 많은 길’의 학습활동 분석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디딤돌, 상문, 천재, 한국교육의 4종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표로 정리해서 제시하였는데,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실린 프로스트의 ‘가지 많은 길’은 제7차처럼 표로 제시하지 않고, 선영사와 대학교과서의 학습 활동만을 제시한 아쉬움이 남는다.

송연주⁵⁾는 제7차 교육과정의 18종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외국소설 장르가 어떠한 당위성에 부합하는 작품들로 선정되어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18종 문학 교과서에 선정된 작품이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목표와 작품 선정 기준에 적절한지의 여부를 점검하였다.

외국소설 작품 선정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국어과 교육과정과 문학교과서 집필지침과 작품 선정 기준의 다양화, 교과와 연계한 외국소설 도서목록의 제시 등 세 개의 방안을 논의 하였는데, 작품 선정 기준의 다양화에서 서구 문학의 치중 양상과 제3세계 문학의 배제성을 논하였는데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수치상이나 작품 등을 제시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향아⁶⁾는 제7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세계 문학에 대한 내용 체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먼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세계 문학에 대해 어떤 관점을 지향하는지를 살펴 보면 제7차 교육과정의 세계 문학에 대한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을 때 ① 세계 문학의 양상과 흐름을 개괄적으로 이해한다. ②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이 서로 교섭하는 양상을 이해하는 이

5) 송연주(2004),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수록 외국소설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6) 김향아(2004), 「‘문학’교과서에서 ‘세계문학’에 대한 내용 체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의 세계 문학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수업 상황을 설문조사로 알아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양상과 수록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수업 현장에서의 세계 문학 교육 실태를 설문조사 하는 것과 제7차 교육과정의 세계문학 내용 체계 분석과는 그다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취지는 좋았으나 이를 연결하는 연관성이 매끄럽지 못한 듯하다.

이린모⁷⁾는 외국문학을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 읽어 볼 수 있도록 내용 요소들을 구분해 보았는데, 상호텍스트성을 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특히 개별 작품을 분석하였을 때 발견되는 작품의 유사점을 바탕으로 논의를 하였다. 연구 대상이 되는 작품들은 루쉰의 <아Q정전>, 카프카의 <변신>,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모파상의 <목걸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다. <아Q정전>은 왜곡된 시대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점에서 채만식의 <치숙>과, <변신>은 모티프와 주제를 관련하여 최인호의 <타인의 방>과, <노인과 바다>는 인물의 직업과 공간배경과 관련하여 천승세의 희곡 <만선>과, <목걸이>는 형식과 표현기법과 관련하여 염상섭의 <운수 좋은 날>과, <데미안>은 장르와 주제 면에서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과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외국문학 작품과 한국문학 작품과의 관련성을 논의한 점은 좋았는데 문학 교과서 속에서 이 작품들을 선정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위의 연구들은 외국문학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외국 문학, 세계 문학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은 대부분 외국 소설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하였고, 또한 용어의 문제에 있어서도 외국 문학 보다는 세계 문학이라 칭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에서

7) 이린모(2010), 「상호텍스트성 개념을 활용한 외국문학 읽기-〈문학〉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다시 자세히 다루겠다.

더욱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연구한 논문은 없었고 모두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과정기별로 보더라도 6차나 7차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먼저 국어과 교육과 외국 문학 교육과 지금까지 교육 과정기별로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외국 문학 작품의 비중을 알아본 후,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의 변천과정과 과정기별로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 문학 작품과 학습활동을 분석하고 과정기별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각 시기별 교육과정의 방향과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 문학 작품을 분석해보고, 각 교육과정기별로 차이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위의 연구된 논문들에서는 ‘외국 문학’이라는 용어보다는 ‘세계 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위의 논문들이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세계 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세계 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세계 문학’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⁸⁾

(다) 세계 문학의 양상과 흐름

8) 교육인적자원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315면

- ① 세계 문학의 향상과 흐름을 개괄적으로 이해한다.
 - 언어별, 국가별로 세계 문학의 양상 이해하기
 - 세계 문학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기
 - 언어별, 국가별로 대표적 작품 감상하기
 - 각 민족 문학의 보편성과 고유성 이해하기
- ②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이 서로 교섭하는 양상을 이해한다.
 - 세계 문학의 관점 이해하기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관계 이해하기
 - 한국 문학에 미친 외국 문학의 영향 이해하기
 - 외국 문학의 주체적 수용과 재구성 양상 이해하기

이는 위의 선행 연구들이 모두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연구되었기 때문에 제7차 개정이 아닌 제7차 교육과정을 살펴 보았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 문학에 대한 내용은 물론 제7차 개정 교육과정도 제7차 교육과정과 변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세계 문학’이라는 용어도, ‘외국 문학’이나 ‘세계 문학’에 관하여 교육과정에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계 문학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외국 거장들의 위대한 작품들이고, 이런 이해는 외국 문학의 대표작들을 주로 ‘세계문학전집’의 형태로 읽어온 우리의 독서체험에서 기인한 것이다.

본고에서 ‘세계 문학’이 아닌 ‘외국 문학’으로 용어를 설정한 이유는 본디 세계 문학이라는 용어는 외국 문학과 우리 문학이 함께 포함되어 이 두 문학을 포괄하는 형태를 ‘세계 문학’이라고 한다. 외국 문학은 우리 문학 즉, 한국 문학이 배제된 외국 문학만을 다루는 것을 ‘외국 문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모두 포함시켜 다루는 형태가 아니므로 ‘외국 문학’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 듯 하다. 또한 서점에 가면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으로 분류를 하거나 아님 국내 도서와 외국 도서

로 분류를 한다. 한국 문학과 그에 대응하여 세계 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 도서에 대응하여 세계 도서라는 말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세계문학전집’으로 통하는 ‘세계 문학’이 아닌 명작들과 그리고 위대한 명작들은 아니지만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 작품들만을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외국 문학’이라고 용어를 설정하였다.

앞에서 기존 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기존 연구들은 모두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과정기별로 보더라도 6차나 7차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세계 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문학’이라는 명칭 아래 이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적 가치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학 교과서>의 내용 체계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외국 문학을 중학교 국어 교과서 안에서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은 외국 문학의 독자성이나 특수성 보다는 그것이 학습하는 중학생들에게 자아형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서구의 문학에서 연유한 정전주의로서의 외국 문학의 개념이다. 작품을 장르별·시대순으로 배치하고 정렬하는 외국 문학의 개념, 즉 서구의 위대한 문학작품을 한자리에 전집 형태로 모아놓고 비교하는 세계명작은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것이다. 이는 서구 따라잡기의 일본식의 외국 문학이 식민지 조선으로 수입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광수가 일본에 수입된 서양의 literature 개념을 가져와 문학이라는 용어로 사용했듯이 이 시기의 일본을 통한 무분별한 외국 문학의 수입은 일본을 통한 개방과 수입이었기에 그 과정에서 특정 작가나 작품에 대한 편중 및 해석과 평가에서의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는 미군정기에도 이어졌다. 미군정기의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 문학

작품이 지금까지 수록된다는 점은 외국 문학의 정전주의 문제와 이에 반하여 정전에 가려진 작품들의 재평가작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에 논문들에서는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 문학을 중점으로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상은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이며 이를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는 외국 문학 작품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국어과 교육과 외국 문학 교육을 먼저 살펴보고,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의 변천과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외국 문학 수록 양상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는 외국 문학 작품들의 종합적 검토를 통계자료의 분석과 교과서 수록 외국 문학의 분석을 장르와 수록 방식의 측면과 작가와 작품 및 시대의 변화 측면, 제재 측면으로 나누어 알아 보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 해당 교육과정에 맞추어 쓰여졌던 용어와 로마자표기법을 현대식으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 문학이라 기준을 잡은 것은 글 제재가 외국 사람에 의해서 작성되어졌고, 이를 번역자가 우리의 말로 번역한 작품을 외국 문학이라 정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외국 사람의 전기는 외국 문학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즉, 제1차 교육과정 『중학국어 2-2』의 <IV. 전기>에 수록된 베토벤에 대하여 오화섭이 쓴 작품인 「운명을 극복하는 정신」, 제2차 교육과정 『중학국어3-2』에 수록된 문교부에서 출판한 「앨버트 아인슈타인」과 제2차 교육과정 『중학국어3-2』, 제3차 교육과정 『중학국어3-1』, 제4차 교육과정 『중학국어 1-2』에 수록된 김형석이 쓴 「마하트마 간디」, 제4차 교육과정 『중학국어

2-1』에 수록된 「나이팅게일」 등은 외국 사람에 관하여 씌어졌지만, 번역이나 번안이 아닌 한국인 작가에 의해서 서술되어졌기 때문에 외국 문학의 범주에 넣기에는 부적절하여 논하지 않았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글의 본문에 실리지 않고 <보충·심화>에 수록된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 장 자크 상페의 「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 피터 빅셀의 「책상은 책상이다」는 글의 본문에 실리지도 않았고, 또한 글 제재도 요약본이나 줄거리 또는 필요한 부분만 수록되었기에 외국 문학이긴 하나 교과서 안의 대단원에 수록된 범주가 아니기에 부적절하여 논하지 않았다.

II. 국어과 교육과 외국 문학 교육

1. 국어과 교육과 외국문학

전통적으로 국어교육에서는 학습자의 국어 능력 신장을 강조하여 왔다. 이 능력은 기존 지식의 단순 수용이나 표출 능력이 아니라, 언어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사고와 언어를 연결지어야 하는 지적 기능으로서의 고등 정신 능력이다. 이 능력은 단순히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기초 기능이 아닌, 의미를 언어화(표현)하고 언어에서 의미를 추출하여 재구성(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맥락의 학습의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에 효과적으로 신장되는 능력이다.⁹⁾

우리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시점부터 많은 문학 작품을 어릴 적부터 직

9)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15면

· 간접적으로 접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문자를 익히기 시작한 시점부터 읽게 되는 문학 작품은 우리의 문학 작품보다는 외국 문학 작품을 더 쉽고 그리고 많이 접하게 된다. 이렇듯 학생들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의 중요한 가치관과 정신적 양식이 되고 있는 것은 흔히 세계 명작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외국 문학 작품의 모음집이다. 한국의 동화나 위인전보다는 세계 명작 동화나 세계적 위인들에 대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렇듯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외국 문학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외국 문학 작품에 노출되게 되고 이를 자연스럽게 학습 또는 체험하면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에서 즉, 국어과 교육에서 외국 문학 교육이 왜 중요한 것일까.

일반적으로 문학교육의 취지는 학생들이 작품세계를 이해하고 감상함으로써 사고와 교양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 이처럼 문학은 학생들에게 사물을 인지하는 감수성을 키워 줄 뿐만 아니라 생활세계 혹은 현재의 중요한 문제들과 접하게 해주며 아울러 현실의 대안적 모델을 찾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교육범주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범위를 좁혀서 학교에서의 외국 문학의 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외국 문학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학 교육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외국 문학 작품을 접하며, 문학 작품을 읽는 데 필요한 각종 지식 및 방법을 배운다. 문학 교육을 통해 문학이란 무엇인지, 문학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문학 작품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배워나가는데 외국 문학 작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 문학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다양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문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의 보편적인 정서 이외에 외국 작품을 읽음으로써 느낄 수 있는 그 나라 혹은 그 지역 특유의 생활양식, 관습, 정서, 가치관 등을 접함으로써 간접경험의 범위를 넓혀 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접하고 있는 외국 문학은 국어과 단원의 하나로써 세상을 이해하는 문 의 역할을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세계관과 가치관, 감수성 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미국의 소설가 너새니얼 호손이 쓴 작품인 「큰 바위 얼굴」을 미국 사람들이 특정 시기에 즐겨 읽은 작품 혹은 정반대로 시공간을 뛰어넘어 보편적 의미를 지닌 작품 등으로 이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큰 바위 얼굴」이 당시에 부딪치고 반응했던 현실이 우리의 삶의 조건과 관련을 가질 때 학생들이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적, 정신적, 가치관적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 반대편에서 100년도 전에 씌어진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보편성을 획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삶 속에서 느끼는 많은 문제와 고통, 행복 등을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외국 문학을 교육범주로 간주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면 그 효율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학생들이 외국 문학을 접함으로써 얻는 학습효과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외국 문학 작품을 선정할 때에도 교육가치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이 늘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권오현¹⁰⁾은 외국 문학의 가치를 정보적 가치, 문화적 가치, 비교문학적 가치, 인간보편적 가치, 문학내적 가치로 분류하였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보적 가치: 이웃국가에 대한 인지적 이해

문학 작품이 다루는 세계 혹은 문학 작품과 관련된 지식을 인지하는 가능

10) 권오현(1998), 「외국문학 수용에 있어서 '상호문화적 이해'의 문제」, 『한국독어독문문학연구』 한국독어독문교육학회, 318면

성을 말한다. 여기에서 인지의 대상은 지역학적 지식이라는 사실정보(역사, 지리, 정치, 사회 등)와 작품과 관련된 문학정보(저자, 줄거리, 문학사적 위치 등)를 모두 포함한다. 물론 문학은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까닭에 내용의 정보적 가치를 희석시키는 면이 없지 않지만, 문학텍스트는 대개 흥미가 있기 때문에 독서할 때 인지적 정보가 다른 텍스트의 경우보다 머리 속에 더욱 깊이 각인될 수 있음도 사실이다. 특히 외국 문학 작품은 우리와는 다른 환경에서 생산되는 데다가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힘든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비교적 큰 정보 가치를 지닐 수 있다.

② 문화적 가치: 그 나라의 문화특유성 이해

문학은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수많은 문화적 코드들을 담고 있기에 외국 문학을 읽으면 그 나라의 문화를 함께 접하게 된다. 개인이 다양한 역할 속에서 어떤 경우에 기대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어떤 경우에 그 행동이 기대로부터 이탈하는지를 스스로 혹은 타인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토대가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개념을 외국 문학의 독서에 적용해 보면 외국 작가의 글을 읽음은 곧 작품 속에 스며있는 문화 흔적과의 만남을 의미한다. 외국 문학은 그 나라의 문화가 내면화하고 있는 세계상, 가치의식, 규범, 관습, 생활방식 등을 응집력있게 담아 내는 그릇이라 하겠다. 문학은 현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토대로 형상화되기 마련이므로 그 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삶의 모습이 묻어나게 된다.

③ 비교문학적 가치: 세계 문학의 수용을 통한 한국 문학의 이해

외국 문학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문학을 바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이러한 가르침이 있어서 우리 문학은 비로소 세계 문학과 의 통합으로 나아가는 문지방을 넘는다. 이는 우선 학생들이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함께 만나 두 문학의 영향관계,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인식함으로써 가능해진다. 한국 문학은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전에서는 중국 문학의 영향을, 서양 문물이 들어온 이후에는 서양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우리 문학이다. 그리하여 여러 문화진영의 영향관계 속에서 성장한 우리 문학의 참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외국 문학을 함께 가르칠 필요성이 제기된다.

④ 인간보편적 가치: 보편적 인간 삶에 대한 이해

인류는 비록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삶의 형식에 있어서 뚜렷한 상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의 경험영역을 구축해 왔다. 문학의 보편적 호소력은 이러한 근원적 경험의 유사성에서 나온다, 보편적 존재체험이 인류를 연결하고 있기에 비록 외국 문학이라 하더라도 우리 문학과 유사한 삶의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문학내적 가치: 문학성 자체의 가치

외국 문학은 문학 내적인 가치만을 통해서도 교육범주에 들어 올 수 있다. 문학은 삶의 형상들을 다루는 독자적인 원리와 기법을 오랫동안 개발하여 왔다. 그 결과 동일한 대상을 표현할 때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형식들을 동원할 수 있는데 이러한 틀거리는 오늘도 끝없이 실험되고 재생산된다. 그리하여 사조, 장르같은 전형성을 추구하는 경향과 이러한 전형적 특성을 해체하고 창의적인 변화를 갈구하는 경향이 문학에는 병존하여 나타난다. 우리가 문학성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많은 부분은 전형적 특성과 창조적 실험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낳는 풍요로움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외국 문학 작품 가운데에는 전형성과 창조성 혹은 둘 사이의 생산적 변형에 대한 좋은 예들이 많다.

본디 외국 문학이라 하면 그 나라 언어로 씌어진 문학을 말하는데 이 문학을 우리나라로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국 문학인 것이다. 서점가의 베스트셀러의 목록의 절반 이상을 차

지하고 있는 것이 외국 문학 서적인데, 이 외국 문학 작품이 원서로 씌어진 책이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외국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이 우리말로 번역된 외국 문학을 읽는다. 그래서 이 번역된 외국 문학은 우리 언어 생활에서 중요한 일부이며 우리 국어 생활을 풍요롭게 해 주는 우리의 언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번역된 외국 문학을 우리 국어 생활에서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번역된 외국 문학은 외국 문학인 동시에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우리 말의 일부인 것이다. 우리는 이 번역된 외국 문학을 통해서 다양한 세계와 인물과 주제들을 알게 되고 문화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국어과 교육에서 외국 문학 교육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를 조금 더 보충하자면 송무¹¹⁾는 우리는 국어 교과서에서 현대어로 번역된 우리의 고전문학을 많이 읽고 배운다. 이때 이 번역된 글을 우리 국어가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몇 편의 외국인의 글은 번역된 외국 문학이 우리 국어 생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번역된 형태의 외국 문학은 국어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고, 우리 민족 언어문화의 일부를 이룰 수 있으며, 국어를 “잘 알고” 국어를 “잘 살게”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국어 교과서에서 외국 문학의 비중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외국 문학 교육은 학생들의 유년시절부터 시작된다. 유년시절에 읽었던 세계명작 동화보다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정서적으로

11) 송무(1990), 「중등학교 외국문학 교육에 관하여」, 『중등교육연구 제2집』, 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103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청소년 시절에 읽었던 문학 작품이다. 하지만 청소년 시절에는 독서의 대부분이 교과서로 시작이 된다. 현실이 이렇듯 학생들의 외국 문학 작품의 수용도 주로 교과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듯 교과서는 교사에게 가르칠 내용을, 학생에게 배울 내용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자료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구현 자료는 교과서이다. 그래서 모든 학교의 교사들은 교과서를 주된 교수 자료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는 교사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교과서를 주된 학습 자료로서 배운다는 것이다.

노명완은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가시적인 자료이며 교수 학습을 위한 전개라면 교과서는 두 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는 교육과정의 내용의 구체적인 자료화이다. 교과서는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수준에서 진술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학생의 수준에 맞게 선정, 조직하고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여야 한다. 교과서가 담당하여야 할 두 번째 기능은 선정, 조직된 교육 내용의 전개이다. 같은 내용, 같은 자료를 교과서에 싣는다 하더라도 교과서는 이 내용 또는 자료들을 교사에게는 가르치기 쉽게 학생에게는 배우기 쉽게 구성하여 전개하여야한다. 이와 같이 교사에게는 교수 과정을, 그리고 학생에게는 학습 과정을 동시에 안내하는 것이 교과서가 해야 할 두 번째 기능¹²⁾이라고 하였다.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 문학 작품들은 어느 정도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수록되었을 것이다.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 문학 작품을 살펴보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국어 교과서에서 외국 문학 작품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표 1> 교과서수록 외국 문학 작품 목록

12) 노명완(1996), 「교과서 제도와 개발 과정의 문제-국어과를 중심으로」, 『함께여는국어교육』, 여름호

교육과정	교과서 명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 문학 작품 의 수	작품 명
교수요목기	중학국어1-1	2	마지막 수업 어두운 시절
	중학국어1-2	0	
	중학국어2-1	0	
	중학국어2-2	1	에이브라함 링컨
	중학국어3-1	4	역시 네 편 -씨 뿌리는 시절 저녁 -내 귀는 -가을 노래 -석류
중학국어3-2	0		
제1차 교육과정	중학국어1-1	1	마지막 공부
	중학국어1-2	1	곤충의 본능
	중학국어2-1	0	
	중학국어2-2	1	삼과 곡괭이
	중학국어3-1	1	링컨의 연설
	중학국어3-2	1	큰 바위 얼굴
제2차 교육과정	중학국어1-1	1	어두운 시절
	중학국어1-2	0	
	중학국어2-1	1	독일의 부흥
	중학국어2-2	1	삼과 곡괭이
	중학국어3-1	2	게티즈버어그 연설 큰 바위 얼굴
	중학국어3-2	4	안네의 일기 현대시의 모습 -귀뚜라미가 울고 -이니스프리의 호도 체리의 어머니
제3차 교육과정	중학국어1-1	1	폴란드 소녀의 울음
	중학국어1-2	0	
	중학국어2-1	0	
	중학국어2-2	5	지혜의 샘 -구제에 대한 교훈 -선한 삶 -친구

			-습관 -시작과 반
	중학국어3-1	0	
	중학국어3-2	6	다른 나라의 시 -이니스프리의 호도 -귀뚜라미가 울고 -칠월 아버지의 뒷모습 모자 철학 큰 바위 얼굴
제4차 교육과정	중학국어1-1	2	이해의 선물 폴란드 소녀의 울음
	중학국어1-2	0	
	중학국어2-1	1	그리운 에밀리에
	중학국어2-2	1	큰 바위 얼굴
	중학국어3-1	1	빌헬름 텔
	중학국어3-2	2	나의 발견 -대화의 창 아버지의 뒷모습
제5차 교육과정	국어1-1	2	이해의 선물 아버지의 뒷모습
	국어1-2	2	나비 폴란드의 소녀
	국어2-1	1	빌헬름 텔
	국어2-2	1	큰 바위 얼굴
	국어3-1	0	
	국어3-2	2	별 마지막 한 잎
제6차 교육과정	국어1-1	0	
	국어1-2	1	폴란드의 소녀
	국어2-1	1	빌헬름 텔
	국어2-2	1	큰 바위 얼굴
	국어3-1	0	
	국어3-2	1	별
제7차 교육과정	국어1-1	1	이해의 선물
	국어1-2	0	
	국어2-1	0	
	국어2-2	1	현명한 아내, 만카
	국어3-1	0	

	국어3-2	0	
--	-------	---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과정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각 학년별로는 대부분 외국 문학 작품이 한 개 이상의 작품이 수록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큰 바위 얼굴」은 외국 문학의 「소나기」작품이라 할 정도로 교과서수록 외국 문학의 정전처럼 되어 버렸다. 교수요목기와 제7차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제1차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 한 번도 제외되지 않고 수록되었다. 그리고 에브 퀴리의 「어두운 시절」도 제목만 「폴란드 소녀의 울음」을 거쳐 「폴란드 소녀」로 제1차, 제7차를 제외한 교수요목기부터 제6차까지는 수록이 되었다. 외국 문학의 유일한 희곡은 「빌헬름 텔」으로 제4차부터 제6차까지 그대로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교육과정과 외국 문학 수록 양상과 특성

우리나라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그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내용과 형식면에서 정교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완성도를 높여왔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넓게 생각하느냐, 또는 좁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 교육과정의 중점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우선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기점을 언제부터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시대 구분을 어떤 기준에 따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시대 구분은 연구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학자

마다 달리 규정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광복 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령의 변천에 따라 구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교수요목기부터 개정 7차 교육과정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약 6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정치, 경제, 사회와 연관성을 깊게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과정을 이해하려면 그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흐름, 즉 맥락을 이해하여야 한다.

해방 이후 약 60여 년간 급속한 사회변화를 겪어 온 한국사회에 있어서 교육이념은 한 시대를 주도하던 지배세력의 이해관계, 각 시대의 정치적 여건과 정치적 주도 세력에 의해 결정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정치 주도 세력의 통치를 위해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변화는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정당성 확보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국가가 사회, 경제적 집단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군부, 기술 관료 등에 의해 장악된 국가권력이 강한 만큼 지배집단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통제 및 정당성 유지의 기능은 해방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다.¹³⁾

즉, 한국의 해방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최초의 한국 정부는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한 정부가 아니라 해방군인 미군에 의해 수립된 미군정이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정규 교육과정과 숨겨진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고, 정규 교육과정은 대부분 교과서로 이루어진다. 교과서의 내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 어떤 작품이 교과서에 실린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시 추구하던 교육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작품이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시장, 자원, 권력이라는 정치적·경제적 제약 속에서 출판된다. 저마다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의 갈등이 상존

13) 김신일(2002),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152면.

하는 사회에서 교과서의 내용은 누군가의 뜻에 맞게 편성되게 된다. 그래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변할 때마다 조금씩 갈등하는 집단의 생각과 이념을 반영해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각 교육과정의 흐름에 따른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문학 작품 분석과 더불어 학습활동 분석과 각 시기별 차이점을 살펴 보겠다.

1. 교수요목기(1946-1954)

8.15 광복과 함께 우리나라는 일제의 강점 하에서 벗어났으나 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국정을 미군이 통치하게 되었다. 해방 직후 1946년 미군정청 학무국에서 학교 교육의 지침을 위한 ‘교수요목’을 고시하였다. ‘교수요목’은 우리 교육 사상 최초로 성문화된 교육과정으로 전통적인 교과주의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경험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¹⁴⁾

일반적으로, 광복 후부터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공포되기 전까지를 교수요목의 시기라고 한다.¹⁵⁾ ‘교수요목’은 1946년 11월에 미군정 당국이 마련한 과정이다. 이 교수요목은 정부 수립 이후에 의미를 잃었으나, 정부 수립 후 별도의 교육 과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제1차 교육과정이 마련되는 1955년 이전의 시기가 모두 교수요목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과서의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력하였다. 둘째, 교과서는 분과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인 홍익인간의 정신에

14) 최현섭 외(2005), 『국어교육학 개론』, 삼지원, 75면.

15)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 38면.

입각하여 애국 애족의 교육을 강조했으며, 일본 강점기의 잔재를 정신면에서나 생활면에서 시급히 제거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하였다.

중등학교 교과 편제에서 특이한 점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 점이다. 필수 과목으로는 국어, 사회 생활, 일반 과학, 실과, 음악, 수학, 체육·보건 등이 있고, 선택 과목은 수학, 외국어, 음악, 미술, 수공, 실업으로 구분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교수요목은 이를 제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므로 각 교과 별로 가르칠 주제를 열거한 데 불과하였고, 특히 그 정도가 학생들의 지적 능력에 비하여 너무 높다는 평이 있었다.¹⁶⁾ 또한 교수요목은 진술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교과 교육과정의 초기 형태로 이후 우리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 구분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는 또한 교육의 격변과정이기도 하다. 교육법과 교육이념이 만들어졌고 미국식 교육의 도입에 의해 교육의 내용과 형식도 새롭게 바뀌었다.

이 시기의 교육정책이념은 ‘홍익인간’¹⁷⁾과 ‘일민주의’사상이다. 한국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을 근간으로 하여 정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정책이념이 제시되고 그 내용은 1949년 제헌의회에서 공포된 교육법 제1조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은 일민주의 사상으로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일민주의 사상은 이승만정권의 정책으로 사용되어졌다.

이승만 정권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했기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일민주의’였다. 좌익을 몰아내고 미국의 후원을 바탕으로 남한만의 독자 정부

16) 교육과학기술부(2008). 앞의 책. 40면

17)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홍익인간’은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근원은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에 관한 기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인교육의 방향이 우리나라 교육 문헌에 분명하게 표현된 것은 1895년 고종의 교육입국 조서이다.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은 광복 직후 결성된 조선 교육심의회에서 제안하여 교육법에 명기하게 된 것으로, 홍익인간의 정신이 민주주의의 이념과 상통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를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더구나 새 정부가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사건과 여순사건 등 이념적 갈등이 빈발하고 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무분별한 도입에 따른 이념적 부작용 문제로 진통하고 있던 상황에서, 비판자를 제압하고 체제의 안정을 도모할 강력한 이념이 절실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도입된 게 바로 일민주의였다. 18)

일민주의 사상이 겉으로는 민주민족교육을 표방하면서도 이면으로는 반공교육을 내세워 정당성이 취약한 정권이 국민들의 통치에 대한 이념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수요목기는 미군정에 의한 3년 동안의 기간에 한국 교육의 방향과 기반이 결정되어 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사회경제구조의 예측적 성격의 강화와 함께 한국의 학교교육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 보급의 통로로 수단화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구성 체계가 구축이 되지 않는 시기라서 영역 구분만 되어 있다. 영역 구분만 말하기, 듣기, 읽기, 짓기, 쓰기(글씨쓰기)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다.

1945년 11월 20일 발간된 『한글첫걸음』을 교재로 국어교육이 시작되었다. 이후 『초등국어교본』, 『중등국어교본』, 『초등국어』, 『중등국어』 등의 교과서가 발간되면서 국어교육의 발전이 급진전하였다. 본고에서는 1954년에 출판된 『중학국어』를 교수요목기 교과서로서 정리하였다.¹⁹⁾

<표 2> 교수요목기에 수록된 외국 문학들을 표와 함께 보자면,

교과서 명	단원 명	작품 명	문학 장르	작가
-------	------	------	-------	----

18) 강진호(2007).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반공 이데올로기와 ‘국어’ 교과서』. 글누림. 159면

19) 『중등국어』 1,2,3은 중학교용이며 『중등국어』 4,5,6은 고등학교용이다. 1951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었고 또한 1953년에 『중등국어』가 『중학국어』로 바뀌게 되었다.

중 학 국 어 1-1	1. 일상어의 반 성	마지막 수업	소설	알폰스 · 도오 테
		어두운 시절	수필	에브 · 퀴리
중 학 국 어 2-2	VII. 전기를 읽 자	에이브라함 링컨	수필	빈센트 · 뻬네
중 학 국 어 3-1	II. 시를 읽자	역시 네 편 -씨 뿌리는 시절 저녁 -내 귀는 -가을 노래 -석류	시	빅돌 · 유우고 즈앙 · 곡도 보울 · 비를레 느 보울 · 발레리

중학교에 입학하여 제일 먼저 배우는 단원인 1단원에서는 학생들이 앞으로 국어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목표를 세워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올바른 국어 학습 태도인가를 알리는 동시에, 모든 학습의 바탕이 되는 우리말, 우리 글인 국어 생활에 대해 반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어과 우리의 민족 정신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1) 『중학국어 1-1』에 나오는 「마지막 수업」은 알폰스 도오테의 소설 중 “월효 이야기”(1871-1873)에서 뽑은 것인데, 이 “월효 이야기”에 실린 이야기는 패전국의 슬픔을, 아름답고 부드럽게 그린 작품이다. 「마지막 수업」은 프러시아 군에게 점령을 당한 알사스 지방의 한 소년 프란츠가 이때까지는 놀기만 좋아하고 공부를 게을리 해오다가 프랑스 말로 하는 마지막 수업 시간을 당하여, 국어의 소중함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새삼스럽게 느낀 감격을 적은 짧은 소설이다.

교수요목기 교과서에 이 소설이 수록된 것은 일제 시대에는 불법 도서로 나왔을 만큼 애국심이 넘치는 실감나게 그린 소설로서 인기가 많았고, 미군정시기에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애족의

교육을 강조하였기에 일제의 잔재를 정신면에서나 생활면에서 시급히 제거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다.

2) 『중학국어1-1』에 수록된 「어두운 시절」의 내용은 폴란드가 러시아의 통치 밑에 있을 때 시코르스카 양의 사숙에서 선생과 학생이 몰래 폴란드 말로 역사 공부를 하며 독립 정신을 기르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나타난 시학관 때문에 선생과 학생들은 재빨리 책들을 숨기고 재봉을 하는 체했다. 시학관의 지시로 공부와 여러 방면에서 잘 하는 마리아가 지명되어 정확한 러시아말로 여러 가지 물음에 대답을 하여 시학관을 만족시켜 위기를 모면한다. 그러나, 시학관이 나가자 나라를 빼앗긴 겨레의 설움과 굴욕감에 이 어린 폴란드 소녀는 복받쳐 오르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처럼 이 소설은 외국 사람의 일생을 다룬 전기의 일부인데, 일제 지배하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서, 국어와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폴란드 교사와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교수요목기 시기에 교과서에 이 소설을 수록한 것은 이제 막 일제치하에서 벗어나서 반쪽이지만 우리만의 국어를 가졌다는 자부심과 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값진 일인가를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준다.

3) 『중학국어2-2』에 수록된 「에이브라함 링컨」은 링컨의 일대기를 써 놓은 전기문이지만, 보통의 전기문과는 차이가 있다. 도입부를 “이 일리노이 주 출신인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로 시작을 하지만 링컨의 오막살이 출생을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오늘 미국 돈의 가장 적은 단위인 동전에 그의 얼굴과 ‘자유’라는 글자가 박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연이어서 그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소년이었고, 자라서 가계를 차렸지만 빚만 지고 망했지만 여러 해를 거쳐 다 빚을 갚았으며, 일리노이 주 대의원으로 선출, 변호사로서의 정직한 삶, 훌륭한 웅변가로서의 링컨을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신뢰하는 바는 , 하느님이 우리들 가슴에 심어 주신 자유를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우리가 옹호하는 바, 자유를 전 세계, 전 인류의 유산으로 여기고 이를 깨뜨리면 여러분은 전제주의의 씨를 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실제로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등 그의 여러 개의 연설들이 모여져 글에 실려 있다.

링컨의 노예해방에 대해 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을 이루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적 발전의 터전을 이루어 놓은 링컨의 전기를 통해 미군정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처음 습득하게 된다. 여기서의 민주주의란 미국의 흑인노예들처럼 피박받고 살아온 이들을 위해서 링컨과 같이 훌륭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 졌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하다. 이 부분은 책의 대단원 ‘Ⅶ. 전기를 읽자’ 도입부에서 “여러 사람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의 문화가 이루어 진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러한 분들의 업적에 머리를 숙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같은 단원에 「안창호」, 「가장 한국을 사랑한 원한경 박사」와 함께 링컨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보아 전기를 모아 놓은 것이긴 하지만, 교과서에 다룰 만한 다른 전기문도 많았을텐데, 민족의 정신을 위해 싸우신 안창호 선생과 우리나라 교육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신 원한경 박사의 이야기와 미국의 링컨의 일대기에는 왠지 모를 거리감이 있다.

앞의 두 개의 전기문은 언어교육이 강조되었던 해방 직후 미군정기에 국어교과서는 일제시대 때 빼앗겼던 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민족정신을 회복

해야 한다는 언어공동체로서의 민족의식이 앞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링컨의 전기를 수록한 것은 이들이 우리에게 미국식 민주주의와 교육을 여과과정 없이 그대로 이식시키는 국적 없는 교육의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4) 『중학국어3-1』에 수록된 「역시 네 편」은 대단원에서 “외국 문학을 이해하는 길잡이로서 역시 네 편을 골랐다”라고 그 수록의미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역시 네 편은 다양한 나라의 시들이 아닌 프랑스 시인들로 이루어진 프랑스 시에 국한된다.

본고에서는 외국말 번역을 그대로 써놓았는데 이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로마자 표기의 변천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시인 빅돌·유우고의 「씨 뿌리는 시절 저녁」는 빅토르 위고의 「황혼」인데 제목을 달리하여서 수록되어졌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시인 장콕토가 지은 교과서에 실린 가장 짧은 시인 「내 귀는」과 베를렌이 지은 「가을 노래」, 발레리가 지은 「석류」가 차례대로 실려 있다. 하지만 이 시들의 번역자가 교과서에 함께 기재가 되지 않아 누가 번역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이 시인들 사이에는 프랑스 시인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살아온 시기, 도시 등 공통점을 찾기 힘들었다.

「역시 네 편」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번안시와 번역시의 차이이다. 네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지만 번안시와 번역시가 섞여서 수록되어 있다. 번역시란 원 창작자의 시를 그대로 우리말로 바꾸어 쓴 것을 말하고, 번안시란 번역 당시 번역자가 우리말 표현과 우리의 정서에 더 어울리는 적절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고쳐서 표현한 것이다.

원 제목과 달리 수록된 빅돌·유우고의 「씨 뿌리는 시절 저녁」는 번안시이고 나머지 수록된 시들은 번역시라 할 수 있다. 「씨 뿌리는 시절 저녁」

은 「황혼」이라는 원문과는 달리 제목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었고, 시의 표현도 간단하게 1연만을 비교해보자면,

황혼	씨 뿌리는 시절 저녁
황혼이다. 나는 문간에 앉아 마지막 노동에 빛나는 하루의 끝을 바라본다.	황혼이외다. 나는 문간에 앉아, 일하는 마지막 순간을 비치는 하루의 나머지를 탄미합니다.

이처럼 시의 1연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행의 차이이다. 원 문은 3행인데 반에 교과서에 수록된 시는 4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이가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노동’이라는 말을 ‘일하는’으로 바꾸어 2행 앞부분에 수록하였고, 원문의 ‘하루의 끝을 바라본다’는 ‘하루의 나머지를 탄미합니다.’라고 변안하였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감탄하여 크게 칭찬한다는 뜻을 지닌 ‘탄미’라는 단어가 수록된 것이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원 시를 그대로 수록하였더라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데 더 수월했을 것이다.

교수요목기 교과서에는 본문만 실려 있을 뿐 뒤에 학습 문제는 따로 수록되어 있지 않다.

2. 제1차 교육과정(1955-1963)

교육과정은 교육의 일부로서 교육목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며, 교육내용과 활동계획이며, 계획의 반성적 실천이다.²⁰⁾ 그리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때는 교육부장관이 교육법에 의거하여 결정, 고시한

20) 박도순, 홍후조(1999),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문음사, 18면

초·중등학교의 교육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적, 일반적 기준을 말하며, 이 기준에는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지침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²¹⁾

1955년에 제정 고시된 제1차 국어과 교육 과정은 기본적인 언어 습관의 형성, 언어 사용 기능의 올바른 신장에 역점을 두고 생활 경험을 통한 지도를 강조하였다. 지적인 체계가 중심이 되어 있기는 하나, 학생들의 생활을 존중하는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개념이 침투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제1차 교육과정의 영역구분은 말하기, 듣기, 읽기, 짓기, 쓰기(글씨쓰기)로 나누었던 교수 요목기와는 다르게 ‘짓기’가 빠지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1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의 구성 체계²²⁾를 살펴 보자면,

〈제1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	
1.	우리나라의 교육 목적과 국어 교육(우리나라 교육 목적, 국어 교육의 나아갈 바, 국어교육의 목표, 의의, 지도상의 유의점 등을 진술)
2.	국어과의 지도 목표 언어 기능 기술, 말하기 3개항, 듣기2개항, 쓰기 3개항, 읽기 3개항으로 목표 기술
3.	중학교 국어과의 지도 내용 지도 요소 (1)기초적인 언어 능력 (2)언어 사용의 기술 (3)언어 문화의 체험 및 창조 지도 내용 (1)기초적인 언어 능력 (2)언어 사용의 기술 (3)언어 문화의 체험 및 창조
4.	각 학년의 지도 내용(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 각 학년의 지도 내용을 제시)

제1차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는 크게 목표-지도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정준섭(1995),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36면

22) 손영애(2004), 『국어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박이정, 158면

<표 3> 제1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외국 문학들을 표와 함께 보자면,

교과서 명	단원 명	작품 명	문학 장 르	작가	교 수 요 목 기
중 학 국 어 1-1	I.국어 생활	마지막 공부	소설	알퐁스 도테	○
중 학 국 어 1-2	VIII. 설명 과 논설	곤충의 본능	설명문	앙리 파아브르	
중 학 국 어 2-2	VIII.독서 생활의 길잡이	삼과 곡괭이	수필	존 러스킨	
중 학 국 어 3-1	I.연설·토론	링컨의 연설	논설문	링컨	
중 학 국 어 3-2	VII.소설	큰 바위 얼굴	소설	나다니엘 호오도 온	

교수요목기에 수록되었던 「마지막 수업」을 제외한, 「어두운 시절」, 「에이브라함 링컨」, 「역시 네 편」은 수록되지 않았다. 그리고 새롭게 「곤충의 본능」, 「삼과 곡괭이」, 「링컨의 연설」, 「큰 바위 얼굴」이 수록되었다. 제1차의 외국문학 중 「마지막 수업」은 글의 제목만 약간 수정하여 교수요목기에 이어 제1차에도 연속해서 실린 유일한 외국문학이다.

1) 제1차 교육과정 『중학국어1-1』에 수록된 「마지막 공부」는 교수요목기 『중학국어 1-1』에 수록되었던 「마지막 수업」을 수업에서 공부로 제목만 수정하여 수록되었다. 단원 “I.국어 생활”에 대한 활동단원으로 국어 생활과 관계 깊은 소설을 수록하였는데, 단원의 길잡이 부분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배우기 시작한 우리의 국어를 소중히 생각하고, 글자와 문명의 관계는 어떠하며, 국문만을 써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또 국어가 존귀한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 보자”²³⁾ 등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다.

당시 우리나라도 불과 수년 전까지는 일제의 침략으로 말을 빼앗김은 물론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살았던 아픈 과거가 있었기에 이 작품이 학생들에게 주는 감동은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인지 교수요목기부터 제1차 교육과정까지만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공부』가 수록되어 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교과서 내용의 요약은 생략하고 새로운 부분만 논의하도록 한다.

교수요목기와 제1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동일한 작품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단편 소설의 전문이 실린 것은 똑같지만 교수요목기의 『마지막 수업』에서는 “베르린에서 명령이 내려, 알-사스와 로레엔 지방의 학교에서는 , 또이츄 | 말-밖에, 못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처럼 로마자 표기법이 부자연스러웠다. 이를 제1차 교육과정의 『마지막 공부』에서는 “ 베를린에서 명령이 내려, *알자스와 *로오렌 지방의 학교에서는 도이칠란드 말밖에 못 가르치게 되었습니다.”로 외래어의 발음이 발음의 경제성에 의해서 더 자연스럽게 본토 발음과 비슷하게 수정이 되었다.

또한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알자스, *로오렌” 부분처럼 본문에 *표시를 가해 눈에 잘 들어오도록 표시를 해둔 다음에 글의 마지막부분에서 “주(註)”를 달아 “알자스·로오렌 : 프랑스 동북부의 지방으로, 도이칠란드와 인접하고 있음. 이 두 지방은 프러시아 프랑스 전쟁에 프랑스가 패한 결과 도이칠란드에 합병되었다가, 제1차 대전이 끝난 후 베르시유 조약에 의하여 도로 프랑스 국토의 일부분이 되었음.” 처럼 학생들에게 생소한 외래어들이나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단어들을 정리해 놓았다.

그리고 교수요목기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익힘 문제」가 제1차 교육과정

23) 『중학국어1-1』 (1959), 문교부, 1면

부터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소단원의 제재 읽기가 끝나면 제시되는 「익힘 문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조금 전에 읽은 제재를 얼마나 잘 읽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고 필요한 내용을 보충해 주는 활동이다.

제1차 교육과정 『중학국어1-1』에 수록되어 있는 「익힘 문제」는

익힘 문제	
중학국어 1-1 「마지막 공부」	1. 이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 일어났던 이야기인가 알아보라. 2. “한 민족이 설사 노예가 될지라도, 자기 나라 말만 잘 보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수가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며, 아멜 선생님은 어째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3. 이 글을 읽고 난 느낌을 서로 이야기하여 보라.

「익힘 문제」는 독립된 면으로 구성되지 않고 본문이 끝난 후 바로 연결이 되어 제시되어 있다. 질문의 형태는 지시문 형태(청유문)과 질문 형태(의문문)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살펴 보면 글의 제재를 이해하였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수준에 그친다. 체계적으로 본문 내용 학습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문제부터 좀 더 나아가 심화 학습으로 내용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학습을 유도 하는 것이 좋은데 1번 문항과 2번 문항처럼 본문 내용을 확인하는 문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3번 문항의 지도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얼마 지나지 않은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지식으로 알려주면 학생들의 이해정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제1차 교육과정 『중학국어 1-2』에 수록된 「곤충의 본능」은 “설명과 논설”이라는 대단원 안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으로서, 대단원에서는 “논설문

과 설명문을 쓰려면, 어떠한 사물에 대한 정확하고 진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아울러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남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솜씨가 있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즉, 「곤충의 본능」이라는 이 글의 제재는 언어 사용의 기술의 하나인 설명문을 학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재를 통해서 논설문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깊게 하고, 앞으로 설명문과 논설문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양리 파아브르는 곤충들을 널리 관찰하고 실험하여, 열 권의 곤충기라는 책을 지었다. 그는 프랑스 시골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생을 두고 곤충과 더불어 살며 연구를 쌓아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교과서에는 파아브르의 『곤충기』에서 일부만을 번역해서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파아브르의 곤충 생활 상태의 관찰 실험 기록이다. “나나니”, “노래기벌”, “코벌” 등은 그 생활방식이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이를 “노래기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관찰한 결과, 본능에 의하여 생활하는 것을 알았으며 새끼 있는 “코벌”에 대해서 실험해 보았는데, 새끼에 먼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만 찾았다. 이상의 실험에서 이런 곤충들은 본능에 의하여 움직일 뿐, 지력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 단원에서는 글의 마지막부분에 “주(註)”가 수록되어 있지 않고, “참고사항”으로 하여 곤충기와 파아브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는 <대백과사전>으로 명시되어 있다.

파아브르(1829~1915) 프랑스의 곤충학자. 상 레옹 출생. 독학하여 국민 학교 교원에서 중학교 물리학과 수학 교원 자격을 받았고, 박물관에 흥미를 가져 곤충의 생태 연구를 한 후, 논문<자연과학의 역사>를 최초로 발표하였다. 후에 오랑주에 은퇴하여 집 주위의 곤충 생태를 관찰하고 여러 저작을 발표하였는데

<곤충기>10권은 세계에서 널리 번역되어 애독되고 있다.

이처럼 파아브르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는 뒤에 나오는 『익힘 문제』와 연관이 있다. 그러나 이 제재를 읽는데 필요한 “나나니”, “노래기벌”, “코벌” 등에 대한 설명이나 주(註)가 나와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글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교사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제1차 교육과정 『중학국어1-2』에 수록되어 있는 「익힘 문제」는

익힘 문제	
중학국어 1-2 「곤충의 본능」	1. 여기에 말한 실험은 어떤 것을 조사하려고 했는가(목적)?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데(방법)? 그 결과, 파아브르는 어떤 사실을 알았는가(결과)? 정리해 보라. 2. 이 글을 읽고, 지은이의 관찰이나 실험이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여 보라. 3. 이 글을 읽은 다음, 파아브르의 일생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라. 4. 우리도 어떤 생물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써 보자.

『익힘 문제』 1번 문항은 이 작품의 내용과 중심 사건을 학생들이 잘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물음이다. 목적은 처음 곤충들의 심리 현상을 밝히기 위해서이며, 방법은 노래기벌과 코벌에 대해서 실험한 후 이를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알게 된 결과는 노래기벌과 코벌들은 지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준에서 본문을 학습 후 하는 활동이라 할 지라도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질문항을 만드는 의도는 좋으나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더 적절한 문제를 학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익힘 문제』 3번 문항은 글의 마지막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대백과사전>과 관련이 있다. <대백과사전>을 수록한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글쓴이인 파아브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배경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생들이 교과서에 수록된 본문외의 파아브르의 책과 작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더 조사를 해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하지만 작가의 일생에 대해서 조사하는 학습은 무의미해 보이며,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다. 그리고

3) 『중학국어 2-2』의 <Ⅷ. 독서 생활의 길잡이>에서 “책 속에 담겨 있는, 오랜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모든 내용은 곧 우리들의 정신 생활의 영양소로서, 우리로 하여금 수천 년간의 인류의 사고와 지혜 위에 서서 살아 가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책을 읽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라며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에 대한 방향을 지시해 주고 있다.

「삽과 곡괭이」는 오오스트렐리아의 광부처럼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일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독서인은 오오스트렐리아의 광부로 묘사하였다. 삽과 곡괭이는 잘 닦여져 있는지, 호흡은 안정되고 기분은 침착한지 살펴야 한다. 독서는 광부의 작업이며, 찾고 있는 금속은 저자의 정신이며, 언어는 광석이다. 곡괭이는 주의력이며, 생각하는 마음은 용광로이다. 즉, 삽과 곡괭이는 여러분의 주의력이며 지력이며 학문이기에 정신을 집중하여 글자를 보고 그 뜻을 확실히 이해하는 습관을 양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이 제제에서는 우리의 독서 생활에 있어서 갖추어야 하는 즉,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력과 학문, 정신을

집중하는 주의력을 학생들에게 말하고 있다.

글의 제재가 두 면으로 되어 있는 짧은 내용이지만 학생들의 독서 생활을 위해서 정신적, 물질적 준비와 꾸준히 참을성 있게 계속하는 끈기와 습관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재이다.

제1차 교육과정 『중학국어2-2』에 수록되어 있는 「익힘 문제」는

익힘 문제	
중학국어 2-2 「삽과 곡괭이」	1. 공부하는 사람에게 삽과 곡괭이란 무엇을 말함인가? 2. “금속 한 알갱이를 얻기 위해서, 날카롭게 버린 정으로 정성스럽게 깎기도 하고, 참을성 있게 녹여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라는 말은 무엇을 비유한 말인가?

이처럼 1번과 2번 문항 모두 글의 제재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글의 제재를 학생들이 잘 이해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글의 제재의 특성상 작품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4) 『중학국어 3-1』에 수록되어 있는 「링컨의 연설」의 원문은 1863년 11월 19일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의 한 땅을 국립 묘지로 봉납하기 위하여 행한 연설문이다.

이 연설은 교과서 본문의 마지막부분인 “우리는 이 나라가 하느님의 뜻으로 자유의 새 삶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가 땅 위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라는 부분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연설문은 남북 전쟁 전몰자 묘지 전배식에서 행한 링컨의 연설 원고로서, 전몰자의 희생을 기리고, 자유와 평등, 민주 정치를 사수하기를 강조한 내용이다.

이 연설은 민주 정치의 핵심을 지적한 것으로 유명하다. 어린 적 누구나 한번쯤은 외웠을 법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연설이기도 하다.

교수요목기 『중학국어2-2』에도 「에이브라함 링컨」이 수록되기는 했으나, 제1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링컨의 연설」과는 내용은 다르다. 교수요목기에는 링컨의 일대기를 써 놓은 전기문으로,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청년시절의 경험담과 그 후에 일리노이 주 대의원으로 선출, 변호사로서의 정직한 삶, 훌륭한 웅변가로서의 링컨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링컨의 연설」 부분으로 요약해서 수록되었다. 이 단원에서는 연설과 토론 단원이므로 연설이나 토론에 대한 중요성, 가치성, 능률적인 방법과 기술을 배우고 연설과 토론의 경험을 통해서 민주적인 인격을 기르려는 데 이 단원의 목적이 있다.

제1차 교육과정 『중학국어3-1』에 수록되어 있는 「익힘 문제」는

익힘 문제	
중학국어 3-1 「링컨의 연설」	1. 이 연설은 링컨이 언제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한 것인가를 밝히라. 2. 링컨이 이 연설에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3. 이 연설은 민주주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낸 연설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지금까지 살펴본 제1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익힘 문제」는 주로 글의 체재를 분석하거나 이해를 주된 활동으로 하는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링컨의 연설』에 수록된 「익힘 문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글의 본문만을 학습한 후에는 해결할 수 없는 즉, 수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이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본문에 수록하든지 아님 “주(註)”부분을 활용을 하여 미국의 남북 전쟁에

대한 소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설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설되었는지에 대한 소개도 없어서 학생들이 본문만을 학습한 후에 「익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남북전쟁과 연설문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남북 전쟁은 미국의 북부와 남부 사이에, 노예 존폐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내란이며 북부는 노예해방을, 남부는 노예 존속을 고집하며 싸웠는데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 남부가 항복하여 미국 흑인 노예들이 해방 될 수 있었음을 학생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해주어야 학생들이 문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5) 『중학국어3-2』의 <Ⅶ.소설>부분에 마지막으로 수록된 「큰바위 얼굴」은 <소단원 1>의 「소설 읽는 법」에서 학습한 소설의 4가지 요소(배경, 구성, 인물, 작가의 인생관)에 맞추어 생각하도록 지도할 것을 대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

「큰바위 얼굴」은 소설의 주인공인 어니스트는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의 예언에 따라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말하는 개더골드, 올드 블러드 앤드 선더 즉, 돈이 많고, 위엄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자신이 기다리는 큰 바위 얼굴이 아님을 알고 어니스트는 실망을 하다. 시간이 지나 어니스트도 중년 남자가 되었는데 이때, 올드 스톤 피즈라는 명성을 날리는 사람이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고 하지만 어니스트가 보기에는 큰 바위 얼굴과 닮지 않았다. 어니스트는 전도사가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미미하나마 알려지게 되나, 그는 순박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 어느 날 어니스트가 흔히 해 온 관례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때 한 시인이 나타나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바로 어니스트임을 일깨워 주고, 그에게서 말과 사상과 생활의 일치를 보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자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읽기에는 좋은 작품이라고 본다.

제1차 교육과정 『중학국어3-2』에 수록되어 있는 「익힘 문제」는

익힘 문제	
중학국어 3-1 「큰 바위 얼굴」	1. 이 소설의 줄거리를 600자 정도로 요약하여 써 보라. 2. 이 소설을 읽고 다음에 적은 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가. 지은이는 큰 바위 얼굴과 인생과를 어떻게 연결짓고 있는가? 나. 지은이는 어떤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 생각했는가? 다. 시인이 자기가 스스로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다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르. 어니스트는 어떤 점이 남들보다 훌륭하였는가? 모.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시인이 말한 것은 어떤 순간인가?

「익힘 문제」 1번과 2번 문항 전부는 작품의 줄거리 요약, 인물의 성격과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로 이 소설을 학습한 후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문제이다. 이 소설의 전문이 다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익힘 문제」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기본적인 내용 파악에 머무르고 있다. 대단원에서 강조한 소설의 4요소와 관련된 활동과 소설이라는 대단원 명에 맞추어 소설 본문의 내용파악이 아닌 소설의 감상과 더불어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견 토론·토의 활동이 있었으면 더 다양한 수준의 활동을 했을 것 같다.

이처럼 제1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외국문학 작품들을 살펴보았는데, 교수요목기와는 달리 1차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표기방식은 국문+괄호 한자병기

와 고유명사 밑줄 표기를 채택하고 있고, 단원 구성 방식은 대단원-소단원으로 나누고 소단원 안에서 소단원(본문-익힘 문제-주(註))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제2차 교육과정(1963-1973)

제2차 교육과정은 1963년 2월 15일에 고시되었는데 이는 5.16 군사 정변으로 군사정권이 출현하고 1963년 교육과정의 개정에서부터 1973년 제3차 교육과정으로 개정할 때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과정기에는 4.19혁명을 통해 출범한 제2공화국은 5.16 군사 정변에 의해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여 박정희의 군사정부가 출범하였으며 제3공화국의 시대가 시작된다. 민중적 요구를 약화시키면서 등장한 군사정권은 국가기구의 거대조직화, 병영화, 집권화를 통한 국가 권력 강화와 국가 주도형 산업화와 교수요목기에 이식된 자본주의를 통해서 근대화를 추구함으로써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런 식의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형성한 제3공화국 정부가 당면한 문제는 정당성의 확립이었다.²⁴⁾

6.25 전쟁과 휴전 성립 직후에 제정된 제1차 교육과정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국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동과 사회생활 양상의 변화로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²⁵⁾

제1차 교육과정의 개선에 관한 논의는 1950년대 말부터 있었으나, 4.19와 5.16을 거쳐 1963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이때는 반공정신이 크게 강조된 시기이며,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고, 1972년에 유신이 단행되는 등 많은 변화

25)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 미래엔 컬러. 44면

를 가져왔다. 특히 유신에 맞추어 교육과정도 개선하였는데, 그 개선 이유를 첫째는 국민교육헌장의 선포이고 둘째는 지식과 정보의 폭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교육사조의 변천 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제2차에서는 제1차의 경험주의 교육과정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한자 교육을 폐지한 점과 학교문법통일안을 확정하고 실시하게 한 점, 지역성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을 강조한 점, 인간 형성 교육의 측면을 보완한 점 등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²⁶⁾

교육과정의 편제는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나눈 제1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제2차 교육과정의 편제는 교과 활동, 반공·도덕 활동, 특별 활동의 3영역으로 나누었고, 반공·도덕에 관한 학습 내용은 모든 교과에서 다루어지도록 하였다.

제2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육 이념을 그대로 계승하여 실제적인 언어 기능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체제에서 제1차 교육과정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거나 교육과정의 구성 취지나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제2차 교육과정도 제1차 교육과정의 영역구분과 동일하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국어과 교육은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국어교육의 최고 목표로 두었으며, 문학 역시 이러한 국어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인 가치로만 여기게 되었다. 문학이라는 영역구분도 체계화되지 않았기에 이 시기의 문학교육은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의 도구적인 위치를 지녔다.

제2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의 구성 체제²⁷⁾를 살펴 보자면,

<제2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 I. 목표 1. 교육 목적과 국어 교육 2. 국어과의 목표
--

26) 최미숙 외(2008). 앞의 책. 30면

27) 손영애(2004). 앞의 책 164면

II. 학년 목표(학년별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목표를 제시) III. 지도 내용 1. 기초적인 언어 능력 2. 언어 사용의 기술 3. 언어 문화의 체험과 창조 IV. 지도상의 유의점
--

제2차 교육과정과 제1차 교육과정의 체제상의 차이점은 제2차 교육과정에서 ‘학년 목표’를 두었다는 점과 ‘지도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년 목표’는 제1차 교육과정의 ‘각 학년의 지도 내용’으로 제시되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실제로 새로 신설된 것은 ‘지도상의 유의점’이다.

<표 4> 제2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외국 문학들을 표와 함께 보자면,

교과서명	단원명	작품명	문학장르	작가	교수요목기	제1차
중학국어 1-1	IV. 역사를 빛낸 이들	어두운 시절	수필	에브 퀴리	○	
중학국어 2-1	II.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독일의 부흥	수필	오이겐 게르스텐마이어		
중학국어 2-2	VII. 우리의 생활	삼과 곡괭이	수필	존 러스킨		○
중학국어 3-1	I. 의사 발표	게티즈버어그 연설	수필	에이브러햄 링컨		○
	II. 독서 생활	큰 바위 얼굴	소설	나다니엘 호오도온		○
중학국어 3-2	VI. 일기와 전기	안네의 일기	수필	안네 프랑크		
	VIII. 현대 문학의 길	현대시의 모습 - 귀뚜라미가 울고 - 이니스프리의	시	- 에밀리 디킨슨 - 예이츠		

		호도				
	VIII.현대 문학에 의 길	제리의 어머니	소설	로울링즈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수요목기에 수록된 「어두운 시절」이 다시 재수록 되었고, 제1차 교육과정에 수록되었던 「링컨의 연설」이 원제목을 살려서 수정되어서 「게티즈버그 연설」로 수록되었고, 「삼과 곡괭이」, 「큰 바위 얼굴」은 그대로 연속해서 수록되었다. 그리고 교수요목기와 제1차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독일의 부흥」, 「안네의 일기」, 「제리의 어머니」는 새롭게 수록된 외국문학들이다.

1) 제2차 교육과정 『중학국어1-1』에 수록된 「어두운 시절」은 교수요목기에 수록된 글의 체재와 같다. 차이점이 있다면 <익힘 문제>와 <주(註)>가 새롭게 구성이 되었다는 점이며 글의 체재가 실린 대단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교수요목기 <일상어의 반성>에서 강조를 했던 국어 사용의 필요성과 언어와 민족과의 중요성이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역사를 빛낸 이들>에 수록되어 국어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전기문이라는 형식에 더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제2차 교육과정 『중학국어1-1』에 수록되어 있는 「익힘 문제」는

익힘 문제	
중학국어 1-1 「어두운 시절」	1. 이 글에서 읽는 이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키는 대목을 뽑아 보라. 2. 국어과 민족과 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국어의 존귀성을 알아보자. 3. 과학자로서의 빛나는 일생을 그린 ‘퀴리부인’을 읽고, 독후감을 적어 보라.

<익힘 문제>1번 문항에서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파악과 동시에 글을 학습한 후의 학생들의 토의를 유도하기에 적절한 문항 같다. 하지만 2번 문항은 교수요목기의 대단원 <1. 마지막 수업>에서 강조했던 국어와 우리의 민족 정신을 연관시켜 이해시키고자 했던 교육의 의도가 엿보인다. 국어를 사랑하고 순화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의 존귀성을 알게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 문항은 이 글의 제재가 실린 대단원 <IV. 역사를 빛낸 이들>의 목적에 맞는 문항이다.

2) 『중학국어2-1』에 수록된 오이겐 게르스텐마이어의 「독일의 부흥」은 ‘나’라는 사람이 독일을 가서 12년 전에 벨기에서 헤어진 스승을 방문하면서 느낀 독일에 관한 인상을 적고 있다. 이 글의 저자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에서 어떻게 일어섰는지를 서술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한국전쟁 후 한국의 가난을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가난과 비교하고 있다. ‘나’는 독일에 대해 독일에는 소위, 판잣집이라는 것이 없으며, 그들은 무엇이든지 임시로 만들어 쓴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으로 보고 있다. 또한 4, 5층 집이 폭격에 맞아서 그냥 손대지 않은 집이 얼마든지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일부라도 수리를 한다면, 그것은 임시수리가 아니고, 완전무결한 수리를 한다. 돈 없는 집 주인은 지하층과 일층만 수리하여, 우선 주택을 삼고, 상점도 낸다. 그러나 일부 수리한 부분은 새로 건축한 집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독일 사람의 꾸준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글의 도입부분은 “1965년 대한 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은 폐허와 완전 항복으로부터의 독일의 부흥을 라인 강변의 기적이라고 불렀다”라고 글을 시작한다. 이 글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책적 차원에서 교과서에 수록되었으며, 이 글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들에게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강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독일하면 우리는 근면하고 철저한 독일 내지는 독일인을 떠올리게 되는 데는 이 「독일의 부흥」이라는 글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²⁸⁾

제2차 교육과정 『중학국어1-1』에 수록되어 있는 「익힘 문제」는

익힘 문제	
중학국어 2-1 「독일의 부흥」	1. 이 글은 무슨 글에 속하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2. 이 글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독일의 형편이 같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3. 우리 국민성과 독일의 국민성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4. 독일이 오늘날과 같이 부흥한 원인은 무엇이며, 국민의 숙원은 무엇인가?

<익힘 문제>의 1번 문항은 학생들로 하여금 논설문과 설명문의 차이점을 학습 하기 위함인데, 이 글에는 논설적인 요소가 들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의 설명을 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문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을 학습하는 동안 즉, 읽는 도중 교사가 교과서의 본문을 예를 들어 논설문과 설명문의 차이를 지도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2,3,4번 문항은 학생들이 이 제재의 내용과 중심 사건들을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물음들이다.

28) 최석희(2005), 「국어교과서를 통해 본 독일 문화 및 독일 문학의 수용」,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한국독일어교육학회, 8면

3) 『중학국어2-2』에 수록되어 있는 「삽과 곡괭이」는 제1차 교육과정에 수록되었던 작품이 연이어서 제2차 교육과정에도 수록된 것이다. 제1차 교육과정기와 동일한 제재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익힘 문제>는 제1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조금 수정된 부분들이 있다.

제2차 교육과정 『중학국어2-2』에 수록되어 있는 「익힘 문제」는

익힘 문제	
중학국어 2-2 「삽과 곡괭이」	1. 이 글에서 삽과 곡괭이란 무엇을 말함인가? 2. 왜 “오오스트레일리아의 광부처럼”이라고 표현했을까? 3. “금속 한 알갱이를 얻기 위해서, 날카롭게 베틀린 정으로 정성스럽게 깎기도 하고, 참을성 있게 녹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말은 무엇을 비유한 말인가?

<익힘 문제> 1번과 3번 문항은 제1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문항들이며, 이는 문항의 언어를 더 부드럽고 간결하게 조사나 지시어를 수정하여 수록하였기에 내용적인 측면에는 제1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익힘 문제>와 동일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 2번 문항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문항을 찾음으로써 글의 주제에 대해서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의도된 문항이다. 또한 특정한 구체적인 부분을 교과서 속에서 찾아야 하므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와 이해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서 교사가 이를 잘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해 갈 수 있을 것이다.

4) 『중학국어3-1』에 수록된 링컨의 「게티즈버어그 연설」은 제1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링컨의 연설」과 동일한 작품이다. 다만,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제1차 교육과정의 「링컨의 연설」을 우리식으로 변안하지 않고 원

문 제목 그대로를 번역하여 「게티즈버어그 연설」으로 제목을 수정하였다.
 <익힘 문제>도 제1차 교육과정과 동일하다.

5) 『중학국어3-1』에 수록된 「큰 바위 얼굴」은 제1차 교육과정에도 수록되었던 작품이다. 제2차 교육과정에도 제1차 교육과정에서 수록된 동일한 부분이 똑같이 수록되었는데 <익힘 문제>에서 제1차 교육과정과 다소 차이점이 있다.

제2차 교육과정 『중학국어3-1』에 수록된 <익힘 문제>는

익힘 문제	
중학국어 3-1 「큰 바위 얼굴」	1. 이 소설의 줄거리를 500자 정도로 요약하여 써 보라. 2. 이 소설을 읽고 다음에 적은 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ㄱ. 지은이는 큰 바위 얼굴과 인생과를 어떻게 연결짓고 있는가? ㄴ. 지은이는 어떤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 생각했는가? ㄷ. 어니스트는 어떤 점이 남들보다 훌륭하였는가?

제2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익힘 문제>는 모두 제1차 교육과정에 수록이 되었던 문제들이다. 하지만 1번 문항을 보면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소설의 줄거리를 600자 정도로 요약”하라고 하였는데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600자가 500자로 수정이 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수준을 제1차 교육과정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록한 것이다. 글의 줄거리를 요약하는데 있어서 1000자가 800자 요약보다 쉽듯이 600자에서 500자로 100자나 줄인 것이다. 글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재의 작품 분석과 함께 내용의 이해가 일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제1차 교육과정보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학생들이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수록이 되었지만,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수록에서 제외된 <억힘 문제>들이 있다.

시인이 자기가 스스로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다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시인이 말한 것은 어떤 순간인가?
--

이 문항들이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수록되지 않았는데, 이 문항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너무 세부적인 부분까지 학생들이 주의를 해서 읽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글의 작품 분석과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소설의 일차적인 목적인데, 위의 문항들은 중심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소설을 분석하듯이 읽을 수는 없을 것이다.

6) 『중학국어3-2』의 대단원 <VI. 일기와 전기>에 수록된 세 개의 소단원 중 <1. 일기 중에서>에서 「안네의 일기」가 단독으로 실리지는 않았고, 이광수, 이순신 등 셋의 일기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안네의 일기」는 1940년 독일군 점령하의 암스테르담에서 살고 있던 안네는 나치스의 박해를 피하여 아버지 오토의 사무실 뒤에 있는 은신처로 옮긴다. 일기는 안네가 양친과 언니, 그리고 다른 4인 가족의 유대인과 은신처에서 함께 사는 동안(1942년 6월~1944년 8월)에 씌어졌다. 사춘기 소녀의 마음의 성장 과정, 어른들 세계에 대한 통렬한 비판, 곤경에 처해서도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견지해 나간 용기를 꾸밈없는, 그러나 소녀에게서는 드물게 볼 수 있는 격조 높은 문장으로 써 나갔다.

안네는 나치스에 의해 독일의 어느 유대인 수용소에서 언니와 함께 장티푸스에 걸려 짧은 일생을 끝마쳤으나 이 일기는 사망 후, 아는 사이였던 네

덜란드인에게 발견되어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인 아버지 손에 들어가게 되어 출판된 것이 원문 「안네의 일기」 내용과 일기의 생성 과정이다.

그러나 제2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안네의 일기」는 1942년 6월 14일 일요일과 1942년 6월 20일 토요일의 일기 밖에 수록되지 않았다.

그리고 <익힘 문제>는 일기를 쓰는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수행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고, 학습한 교과서 지문과 관련되는 문항이 없어서 다루지 않았다.

7) 『중학국어3-2』의 <Ⅷ.현대 문학에의 길>에 수록된 작품은 현대시와 「제리의 어머니」라는 소설 작품이다. 대단원 <Ⅷ.현대 문학에의 길>에는 여러 편의 시들과 외국 소설이 수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현대에 사는 만큼, 현대라는 세대를 알기 위해서라도 현대의 모습이 반영된 현대 문학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원에서는 현대 작가들이 쓴 시, 소설, 희곡 및 수필 등을 읽고 현대 문학에 대한 예비 지식을 쌓는 것이 목표이다. 희곡과 수필은 한국 작가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먼저, 현대시를 살펴 보자면, 에밀리 디킨슨이 쓴 「귀뚜라미가 울고」와 예이츠가 쓴 「이니스프리의 호도」이다.

「귀뚜라미가 울고」는 번역시로서 해는 지고 귀뚜라미가 울 때, 일꾼들은 그들의 하루 일을 끝맺었다. 얇은 풀에는 이슬이 맺히고, 황혼이 발을 멈추고 있다. 그러자, 끝없는 어둠이 정답게 다가와 천지를 덮는다. 그 어둠 속에 이름 붙일 수 없는 지혜와 아름다운 평화가 깃들인다는 내용인데, 이 시에는 깊은 명상이 담겨 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지혜를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는 모습, 지혜를 깨닫고 평화를 음미하는 듯하다.

「이니스프리의 호도」는 「귀뚜라미가 울고」와는 다르게 변안시이다. 교수요목기에서 번역시와 변안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여서 여기에서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따로 논하지는 않겠다. 「이니스프리의 호도」는 시의 주인공은 이니스프리로 가서 작은 집을 짓고 콩밭을 갈며, 꿀벌도 치며, 벌이 노래하는 숲 속에서 홀로 살려 한다. 그러면, 내 마음은 평화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안개 낀 아침에서 귀뚜라미 우는 저녁때까지, 그 곳은 밤중도 환하고, 낮에는 보랏빛으로 가득 차며, 저녁에는 홍방울새가 많이 날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니스프리로 가서 밤이나 낮이나 찰싹이는 호숫물 소리를 들으며 살리라. 가로에 서도, 잿빛 포도에 서나 그 호숫물 소리를 들으며 이니스프리의 호숫물 소리를 그리워한다는 내용이다.

이 시의 원시는 「The Lake Isle of Innisfree」인데, 원시와 교과서에 수록된 변안시인 「이니스프리의 호도」는 모두 3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2연을 택해서 원시와 교과서에 수록된 「이니스프리의 호도」의 차이점을 살펴 보자면,

원시: The Lake Isle of Innisfree	변안시: 이니스프리의 호도
And I shall have some peace there 거기서 얼마쯤 평화를 맛보리. for peace comes dropping slow 평화는 천천히 내리는 것. Dropping from the veils of the morning to where the cricket 아침의 베일로부터 귀뚜라미 우는 곳 에 이르기까지. There midnight's all a glimmer 한밤엔 온통 반짝이는 빛 And noon a purple glow 한낮엔 보랏빛 환한 기색 And evening full of the linnet's wings	그러면 내 마음 평화로우리. 안개 낀 아침부터 귀뚜라미 우는 저녁 때까지 그 곳은 밤중조차 환하고 낮엔 보랏빛, 저녁에는 홍방울새 가득히 날고.

저녁엔 흥방울새 날개 소리 가득한 곳.	
--------------------------	--

원시의 2연은 6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교과서 수록 「이니스프리의 호도」 2연은 4행으로 단축되어 번안되었다. 시의 내용도 원시보다 교과서에 수록된 시가 학생들에게는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시는 청각적인 심상 즉, 찰싹이는 호숫물 소리를 환상적으로 듣는다. 그럼으로써 강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 원시 2연의 마지막부분은 "And evening full of the linnet's wings 저녁엔 흥방울새 날개 소리 가득한 곳"으로 소리를 강조하였지만, 교과서에 수록된 번안시에서는 "저녁에는 흥방울새 가득히 날고"처럼 시각적인 심상을 더 강조하였다. 이처럼 강조하는 심상이 청각적 심상일 때와 시각적 심상일때는 시의 느낌 자체가 달라진다.

하지만 교과서에 수록된 번안시나 번역시인 경우는 그 원시를 학생들에게 강의할 필요는 없다. 학생들이 번역시나 번안시를 통해서 감동을 느낀 후 그 감동이 원인이 되어서 스스로 원시를 찾아보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교사가 수업 중에 원시를 언급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필요는 없다. 원시는 중학교 3학년이 읽기에는 다소 어려운 수준이므로 교과서에 수록된 번안시나 번역시를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

제2차 교육과정 『중학국어3-2』에 수록된 <익힘 문제>는

익힘 문제	
중학국어 3-2 「현대시의 모습」	1. 현대시와 근대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나누었는가? 2. 현대시의 특징은 무엇인가? 3. 정형시와 자유시는 어떻게 다른가? 4. 운문시와 산문시는 어떻게 다른가? 5. 외국 시와 우리 시를 대조해 보고, 다른 점을 말해 보라. 6. 위의 시를 감상한 소감을 각각 글로 써라

<익힘 문제>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시들의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보다는 문학사적인 개념이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대시문학의 흐름에 대해서 배경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수행을 할 수 있는 문제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3번 문항은 시의 형식상의 분류를 말하는 것이다.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씌어진 시를 정형시라하고, 자유로운 리듬에 따라 씌어진 시를 자유시라고 하는 기준을 형식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정형시나 자유시에 대한 개념을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수행할 수 있는 문항이다. 4번 문항도 마찬가지이다. 운문시란 보통 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며, 산문시란 상식적으로 산문으로 씌어진 시이나, 그것은 소설에 쓰이는 산문과는 다르다. 곧, 내적으로 운율을 가진다는 것이라는 내용을 알아야 학생들은 <익힘 문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교사는 너무 엄격하게 분류 기준을 따져서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활동보다는 시를 더 잘 이해하고 이를 분류하는 형식상의 특성이나 현대시의 흐름을 간략하게 학생들에게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 <익힘 문제>는 중학교 3학년이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문항들이 있다. 이러한 개괄적인 문제보다는 교과서에서 학습한 시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익힘 문제>가 수록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8) 『중학국어3-2』의 <Ⅷ.현대 문학에의 길>에 수록된 「제리의 어머니」는 미국의 여류 작가 로울링즈의 작품이다. 이 소설은 일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작가의 회고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설의 서술자인 작가는 글을 쓰기 위해 고아원 옆의 산장에 머무르면서 글을 써내려가던 도중 자

신의 난로에 뿔 장작을 패줄 소년인 제리를 만난다. 제리는 성실성이 강한 12살의 소년으로 작가가 시킨 일을 묵묵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하였다. 그러는 도중 작가는 제리와 친해지게 되었고 제리에게 어머니가 따로 맨빌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얘길 듣는다. 제리는 작가에게 어머니가 사줬다는 옷이며, 스케이트를 자랑했고 작가는 제리의 어머니가 궁금했지만 자신의 일이 바빠 그 후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다른 곳으로가서 글을 쓰게 되어 제리에게 작별을 고하지만 제리는 아무 대답이 없이 돌아간다. 작가는 할 수 없이 떠나는 길에 고아원에 들러 클라아크에게 산장의 열쇠를 돌려주며 제리와 제리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길 나누는 도중, 작가는 제리에게선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제리에게는 어머니도, 그 옷도, 스케이트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소설을 끝이 난다.

지나칠 만큼 성실하고 내적으로 강한 제리라는 소년이 실로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것은 성실과 모순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어머니같은 작가에 대한 한 소년의 애정의 표현으로서의 허구이다. 말하자면, 제리가 자신의 어머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 작가와 같은 어머니로부터 스케이트를 선물 받고, 어머니에게 제리 자신은 다시 장갑을 선물해주는 그런 환상을 말한 것이다.

제2차 교육과정 『중학국어3-2』에 수록된 <익힘 문제>는

익힘 문제	
중학국어 3-2 「제리의 어머니」	1. 이 단편 소설을 500 자 정도의 글로 요약해 보라. 2. 이 소설의 주제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라. 3. 이 소설이 우리나라 소설과 다른 점과 유사한 점은 무엇인가? 4. 등장 인물의 성격을 설명하라. 5. 이 소설의 지리적인 배경을 설명하라. 6. 자기의 체험을 간단히 소설로 써 보라.

<익힘 문제>는 소설의 내용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소설을 요약하라는 활동은 앞서 나온 「큰 바위 얼굴」에서도 수행하였던 것이다. 주제, 등장인물의 성격, 지리적인 배경 등은 소설을 학습한 후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소설과 이 소설의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을 찾는 문제는 학생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교사를 주의를 하여 학습한 소설에서 파악한 중심 내용과 주제 등을 비교하게 하는 단순하고 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그리고 6번 문항처럼 자신의 체험을 소설을 써보라는 활동을 수행할 시에 체험담을 진술하는 것은 소설이 아님을 유의하고 자신의 체험을 진술이 아닌 구성하는 방향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이처럼 제2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외국문학 작품들을 살펴보았는데, 제2차 교육과정의 표기방식은 1차 교육과정의 표기 방식과 동일하며, 단원 구성 방식은 제1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국민교육헌장’이 대단원 앞에 수록되었으며 대단원 다음에 소단원에서는 소단원(단원명-본문-익힘 문제-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제1차 교육과정에서 ‘주(註)’로 표기된 것이 한자어가 빠진 ‘주’로만 표기됨을 알 수 있었다.

4. 제3차 교육과정(1973-1981)

1973년에 고시된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에서의 생활 중심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이 같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나타나게 된 동기를 미국에서의 스푸트니트 충격에 의한 생활 또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제3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의 특징은 제4공화국의 의지가 반영되었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강조되었으며, 민족 주체 의식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또한 제3차 교육과정의 이념이 된 것은 국민교육헌장 이념이다. 이는 국민적 자질의 함양과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을 기본 방침으로 하였다.

특히 유신 체제 이후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념 교육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형식적 단원구성에서 논설문, 설명문이 강화되는데, 대부분 애국심을 강조하고 과학 기술의 진흥과 경제 발전책을 강조하는 발전 이데올로기를, 민족을 위한 개인의 헌신으로서의 국가주의와 연결시키거나 북한공산 집단의 위협을 강조하는 위기담론과 결합시키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연결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다.²⁹⁾

이 시기에는 교육과정의 체제를 ‘목표’, ‘내용’, ‘방법’으로 하여 앞 시기보다 체계화된 모습을 보이며 국어과 교육에서 언어 사용 기능 신장과 함께 가치관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가치관 교육을 강조하는 이러한 특징은 ‘제재 선정의 기준’³⁰⁾에 잘 드러나 있는데, 국어과 특유의 지식 체계를 지도하기 위하여 근면 성실성, 공익, 투철한 국가관, 민족 주체성, 국가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 등 19개의 기준에 따라 제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³¹⁾

교수요목기부터 제3차 교육과정까지의 교육 이념을 형성하는데 있어 커다

29) 차혜영(2005), 「국어 교과서와 지배 이데올로기-1차~4차 교육과정기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상허학보』, 상허학회, 114면

30) 제재 선정의 기준으로는 사교력, 정서순화, 개척정신, 봉사, 협동정신, 민족 주체성, 국가관 등 가치 교육 강화를 위한 내용을 국어과 교육의 제재선정기준으로 제시함과 아울러, 국어과 특유의 지식 체계로서 ‘어학에 관한 내용’, ‘문학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선정해서 지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1) 최미숙 외(2008), 앞의 책, 30면

란 영향을 끼쳤던 역사적 사건은 6.25 전쟁, 4.19 혁명, 5.16 군사정변, 그리고 국민교육헌장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 전체를 통하여 계속 강조되었던 이념은 반공·도덕 교육의 강화다. 이를 통하여 국가를 보전하고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제3차 교육과정은 무엇보다도 말하기, 읽기, 쓰기와 관련되는 언어 활동들을 <공부할 문제>를 통해 접근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기존의 <익힘 문제>를 강화한 것으로 질문의 문항 수를 늘리고 내용과 활동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한자 학습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

제3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의 구성 체계³²⁾를 살펴 보자면,

<제3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
가. 목표
(1) 일반 목표(언어 생활, 개인 생활, 건실한 국민 육성, 문화 창조의 4개 항목으로 제시)
(2) 학년 목표(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관한 목표 각각 1개항씩 제시)
나. 내용
[지도 사항 및 형식]
(각 학년별로 그리고 영역별로 '(1) 지도 사항'과 '(2) 주요 형식'으로 나누어 제시)
[제재 선정의 기준]
다. 지도상의 유의점

제3차 교육과정은 제1차와 제2차에 비하여 교과서의 제재를 선정하는 기준을 명시하였고, 각 학년의 지도 내용을 지도 사항과 주요 형식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어 교과서의 구성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표 5> 제3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외국 문학들을 표와 함께 보자면,

32) 손영애(2004), 앞의 책, 167면

교과서명	단원명	작품명	문학장르	작가	교수요목기	제1차	제2차
중학국어 1-1	언어와 민족	폴란드 소녀의 울음	수필	에브 퀴리	○		○
중학국어 2-2	첫가을	지혜의 샘 -구제에 대한 교훈 -선한 삶 -친구 -습관 -시작과 반	수필 - 잠언과 격언	신약선서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몽테뉴 키이츠			
중학국어 3-2	외국 문학의 걸음	다른 나라의 시 -이니스프리의 호도 -귀뚜라미가 울고 -칠월	시	예이츠 디킨슨 시토름			○ ○
		아버지의 뒷모습	수필	주쯔칭			
		모자 철학	수필	가아드너			
		큰 바위 얼굴	소설	호오도온		○	○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수요목기와 제2차 교육과정에서 수록되었던 「어두운 시절」이 「폴란드 소녀의 울음」으로 작품명을 달리하여 수록되었고, 「이니스프리의 호도」와 「귀뚜라미가 울고」는 제2차에 이어 제3차에도 연속하여 수록되었다. 그리고 「큰 바위 얼굴」은 제1차와 제2차에도 연속해서 수록되었는데 제3차에도 역시 수록되었다. 한편, 「지혜의 샘」에 수록된 작품들과 「칠월」, 「아버지의 뒷모습」, 「모자 철학」 등은 새롭게 수록된 외국 문학 작품들이다.

1) 『중학국어1-1』에 수록된 「폴란드 소녀의 울음」은 교수요목기와 제2차 교육과정에도 수록되었던 「어두운 시절」이 작품명을 수정하여 수록된 것이다. 글의 제재는 동일한 것이 수록되었지만 편찬 상의 차이점이 있다면, 제2차 교육과정까지는 글의 마지막부분에 <익힘 문제>와 <주(註)>가 수록되었지만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주(註)>부분이 한자를 제외한 <주>로 표기되어 글의 마지막이 아닌 글 제재 도중에 주석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를 달았고, <익힘 문제>는 <공부할 문제>로 명칭이 바뀌었다.

또한 글의 제재가 실린 대단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교수요목기 <일상어의 반성>에서 강조를 했던 국어 사용의 필요성과 언어와 민족과의 중요성이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역사를 빛낸 이들>에 수록되어 전기문이라는 형식에 초점을 두었고,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와 민족>에 수록되어 한때 우리 나라가 겪었던 것과 같이, 폴란드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모국어의 사용이 금지되었던 시대에 국어 교육에 힘쓰던 교사와 학생들의 이야기를 배움으로써 문화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은 그 언어와 문화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여 왔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제3차 교육과정 『중학국어1-1』에 수록되어 있는 <공부할 문제>는

공부할 문제	
중학국어 1-1 「폴란드 소녀 의 울음」	1-1. 이 전기(교과서에 실린 부분)의 주제를 알아보자. 1-2. 이 글의 주요 소재를 찾아 정리해 보자. 1-3. 이 글을, 뜻에 따라 대문을 나누고, (가) 대문마다의 요지와 (나) 각 대문은 글 전체의 효과를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 가 알아보자.

	<p>1-4. 좋은 글을 가려서 성실한 태도로 읽는 습관을 기르자. 좋은 글(책)을 선택하는 방법도 알아보자.</p> <p>2-1. 다음을 쉽게 풀이해 보자(왜 그런가 하는 것까지). (가) 역사 교과는 굉장히 열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나) 별로 애교가 없는 선생도, 그에게서 폴란드 말로 폴란드 역사를 배우는 매우 영리한 학생들도, 은근히 공범자요 공모자인 모양이다. (다) ‘짜아르’가 발견한 모욕 중에서도 가장 악착한 것이, 폴란드 아이들에게 매일 러시아 말로 카톨릭 교의 기도문을 외게 하는 그것이다.</p> <p>2-2.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가 울음을 터뜨린 까닭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p> <p>3-1. 자기 나라의 국어를 쓸 수 없게 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의 슬픔을 생각해 보자.</p>
--	---

제3차 교육과정의 <공부할 문제>에 수록된 문항들은 제2차 교육과정의 <익힘 문제>와 겹치는 문항이 없이 전혀 다르다. 1-1, 1-2, 1-3번 문항은 주제와 소재 그리고 대문의 요지와 역할을 묻는 문항은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학습 후 활동이다. 그리고 2-1의 풀이해보자는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의 문장을 제시한 후 이를 학생들로 하여금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그 속에서 찾아내도록 하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4처럼 글의 제재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수록된 다른 공부할 문제들과도 연관성이나 위계성이 있지 않는 문항으로서 <공부할 문제>에 수록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3-1처럼 학습한 글의 제재의 세부 내용에 치중하기 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의 목표인 민족과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2) 『중학국어2-2』의 <지혜의 샘>에 수록된 작품들은 인류의 고전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들을 뽑은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사상과 가치관을 심어 주려는 것이 이 단원 설정의 취지이다. 즉, 교훈을 위주로 하는 글의 형식을 이해시키고, 위인들의 어록을 통하여 동서고금을 꿰뚫어 변할 수 없는 진리를 터득하게 하며, 나아가서 그것을 교훈삼아 학생들이 자신의 자아를 완성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먼저 「구제에 대한 교훈」은 옳은 일은 그 일 자체를 하는 데서 보람을 느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그들의 칭찬을 받는 데서 보람을 느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은 이와 같은 일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남을 도울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하느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는 <신약 전서>의 내용이다. 「선한 삶」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서 되는 대로 살아가기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선하게 사는 것이 가치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친구」란 사상, 가치관, 신념 등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몽테뉴는 「습관」을 사람들은 이성(제1의 천성)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습관을 소홀히 생각한다. 그러나, 습관도 인간의 중요한 특성의 일부이므로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키이츠는 「시작과 반」에서 시작을 잘하면 그 이후의 과정이 좋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반 정도는 좋다는 속담은 잘못된 말이라고 지적하고 ‘반쯤 끝낼 때까지는 시작한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구제에 대한 교훈」과 「선한 삶」의 말하는 이는 그들이 권위자의 입장에서 듣는 이에게 가치로운 행동을 하도록 권고하는 글이며, 「친구」, 「습관」, 「시작과 반」의 말하는 이들은 이들의 관찰과 사색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표현한 글이다. 이 단원의 <공부할 문제>에는 <지혜의 샘>에 수록된 내용을 수행하는 문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수록하지 않는다.

3) 『중학국어3-2』의 <외국 문학의 첫걸음>에는 여러 외국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17. 다른 나라의 시>에는 세 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 작가들은 각각 아일랜드, 미국, 독일 출신이다. 이 세 나라들은 모두 서양 문화권에 속하는데, 서양 문화권은 높은 수준의 문학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이 작품들을 감상함으로써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풍부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수록되어 있는 「이니스프리의 호도」, 「귀뚜라미가 울고」와 「칠월」을 보자면, 제2차 교육과정에서도 수록되었던 「이니스프리의 호도」, 「귀뚜라미가 울고」는 글의 제재가 제3차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수록되었다. 시토름의 시 「칠월」은 6행으로 이루어진 짧은 번역시로 1행부터 4행까지 지는 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특히 2행에서 3행까지 한 여름의 계절적 특징을 강렬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5행에서 지은 이는 온 들이 축복에 차 있다고 말하며 이는 7월이라는 계절 속에서 축복을 깨닫는 것이다. 6행은 그의 아내도 그와 마찬가지로 들에서 축복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었다.

제3차 교육과정 『중학국어3-2』에 수록되어 있는<공부할 문제>는

공부할 문제	
중학국어 3-2 「다른 나라의 시」	1-1. 이 시들의 소재와 주제를 알아보자. 1-2. 어구의 문맥상의 의미를 알아보자. 2-1. 다음은 무슨 뜻, 어떤 모양인지 알아보자. (가) 아홉이란 콩밭 갈며 풀벌도 치며(뜻) (나) 가슴 속 깊이 그 소리만 들리나니(뜻)

	(다) 황혼이 나그네처럼/모자를 정중히 한쪽 손에 들고서, (모양) (라) 보리는 무겁게 몸을 굽힌다.(모양) 3-1. 우리는 ‘우리의 것’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의 것’을 보 도록 하자. 4-1. 다음 한자를 익히자. (杻)
--	--

<공부할 문제> 1-1번부터 2-1까지는 교과서에 수록된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소재나 주제, 문맥상의 의미 등은 시를 학습한 후 바로 수행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3-1번 문항은 학습의 수행을 위한 문항이 아닌 권고하는 문항으로서 <공부할 문제>에 수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다. 4-1의 한자는 축(杻)자로서 빌다, 축하하다 등의 뜻을 지닌 한자어이다.

4) 『중학국어3-2』의 <외국 문학의 첫걸음>에 수록되어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제3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수록되는 수필이다.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효 사상의 약화를 들 수 있는데, 자식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는 것이 부모이며,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다. 이 수필을 학습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는 사랑을 느끼고 본받아 부모에게 효도하는 학생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 중점을 두었다.

이처럼 우리의 교육과정의 외국 문학에서 서양의 문학이 아닌 동양의 문학이 수록된 것은 이 작품이 처음이라 동양적인 사고 방식을 배울 수 있고, 서양 문학과 차이점 또한 비교해 볼 수도 있는 작품이다.

「아버지의 뒷모습」은 2년이 넘도록 아버지를 뵙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뒷모습은 아직도 주인공인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실직을 하셔서 불행이 겹으로 닥친 그 해의 겨울, 집으로 달려가 보니 집안 살림이 엉망이어서 살아 계실 때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흘렀다. 이러한 집안 환경에도 아버지는 직업을 구하러 나는 학업을 계속하여 각각 떠나야 했는데, 아버지는 볼일이 있으신데도 나를 배웅하러 역으로 나오셔서는 자리도 잡아 주시고 역무원에게 나를 부탁한다고 신신당부도 하셨다. 또, 내게 주신다고 굴을 사러 가시다가 플랫폼의 벽에서 기우뚱하고 쓰러지려고 하시던 때의 뒷모습에서 강한 사랑을 느꼈다. 근래 몇 년 동안 아버지와 나는 타향에서 서로 애썼지만, 살림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께서는 나와 내 자식들 걱정만 하셨다. 이제 죽을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 때, 굴을 사러 가실 때의 아버지의 뒷모습이 자꾸 어른거리고 있었다.

제3차 교육과정 『중학국어3-2』에 수록되어 있는<공부할 문제>는

공부할 문제	
중학국어 3-2 「아버지의 뒷모습」	<p>1-1. 이 글을 읽고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사람이 발표해 보자.</p> <p>말하는 사람은 (가) 상대에게 알맞고 품위 있는 말로, (나) 어법에 맞게 말하고, 듣는 사람은 (가) 감동적인 데가 있으면 메모도 하고, (나) 들은 바를 되새겨 자기 수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p> <p>1-2. 이 글의 주제를 알아보자.</p> <p>2-1.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마음이 잘 나타난 곳을 찾아보자.</p> <p>2-2. 이 글에서 ‘굴’이나 ‘플랫폼의 벽’과 같은 소재는 무엇</p>

	<p>을 나타내는가 살펴보자.</p> <p>3-1.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 된 사람의 도리라는 점을 기억하고 행하도록 하자.</p> <p>4-1. 다음 한자를 익히자.</p> <p>續, 往, 晚, 慈</p>
--	---

<공부할 문제> 1-2와 2-1은 글 제재를 학습한 후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제나 글 제재에서 사랑이 나타는 부분을 찾는 학습이다. 그러나 2-2는 소재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소재의 의미를 학습하는 문항이다. 꿀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며, 플랫폼의 벽은 부성애 전달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이 장벽을 극복하신 아버지에게서 더욱 짙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이다. 이 소재들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 깊고 강한 부성애로 학습자들에게 다가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5) 『중학국어3-2』에 처음 수록된 「모자 철학」은 영국의 수필가 가아드너의 작품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사고나 판단에 있어서 편견이나 선입관으로 인하여 아집이 흐리기 쉬운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특정 직업이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사고의 범위가 넓지 못한 사람들은 지극히 주관적인 척도로 대상을 평가하는 사례가 흔하다. 이러한 아집과 미시적인 사고 방식은 타협을 거부하게 되고, 남의 의견이 옳은 경우에도 이에 순종할 줄 모르는 소인이 되고 만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작품을 통해서 사물을 접할 때 냉철히 객관적이고 거시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안목을 길러야 함을 중점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모자 철학」은 모자에 다리미질을 하러 모자점에 들렀다가 그 모자점 주인으로부터 머리의 크기는 직업과 관련이 깊다는 말을 주인공은 들은 일
이 있다. 그러나 내 머리가 작아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머리의 우수함은
크기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뇌의 회전 속도의 빠름에 있다고 말해 주고
싶었다.

사람은 모두 자기 특유의 창구명으로 인생을 판단하는 버릇이 있는 모양
이다. 모자점 주인은 모자의 크기로, 재단사는 입고 있는 옷의 재봉 솜씨와
광택의 정도에 따라서, 제화공은 신의 질과 손질을 한 상태에 따라서, 치과
의사는 치아를 보고서, 실업가나 금융업자는 돈을 통해서, 나 같은 문필가
는 언어를 사용하는 기교를 보고서, 화가는 벽에 걸린 그림으로, 가구상은
의자나 양탄자로, 미식가는 요리나 술로써 인생을 판단하는 버릇이 있다.
요컨대,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므로,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
이다.

제3차 교육과정 『중학국어3-2』에 수록되어 있는<공부할 문제>는

공부할 문제	
중학국어 3-2 「모자 철학」	1-1. 이 글의 독후감을 몇 사람이 발표해 보자. 발표할 때에는 (가) 짓을 알맞게 하고, 재미있게 말하도록 하고, (나) 말을 마친 다음에는 말한 내용을 반성하도록 하자. 1-2. 이 글의 주제를 알아보자. 2-1. 다음은 무슨 뜻인가? (가) 중요한 것은 뇌의 크기가 아니고 그 회전의 빠름이다. (나) 사람들은 제 자기 자기 특유의 창구명으로 인생을 들여 다 보는 버릇이 있다. (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하는 그 다채로운 것을 알아보려고 할 때, 수없이 실패를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 니다.

	<p>3-1. 편견을 버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견을 버리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p> <p>4-1. 다음 한자를 익히자. 印, 秀, 閑, 賢, 算</p>
--	---

<공부할 문제> 1-2 와 2-1은 글의 제재를 학습한 후 내용 파악이나 이해를 점검하는 문항들로써 주제나 글 제재의 문장 뜻을 해석하는 것으로 작품의 학습 후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항들이다. 3-1은 판단력의 신장, 지식의 확충, 경험의 확대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인생을 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편견에 치우쳐서 인생을 그릇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6) 『중학국어3-2』에 수록된 「큰 바위 얼굴」은 제1차 교육과정부터 계속해서 수록되어진 작품이다. 제1차 교육과정에는 <소설>에 수록되어 좋은 소설을 선택해서 읽음으로써 인생의 진실한 면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문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서 올바른 비판력을 얻도록 하며 소설의 정의나 여러 가지 요소 등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었고,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독서 생활>에 수록되어 독서의 필요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도록 하며, 독서를 하며,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비교 활용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며, 독후감을 기록하고 그것을 다시 살펴보는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외국 문학의 첫걸음>에 수록되어 문학 작품은 인간의 체험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모방하므로, 학생들은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통하여 인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인간의 삶과 체험은

장소와 시대에 따라서 다른 점이 있지만, 동시에 비슷한 점이 있기도 하다. 전자는 인간의 삶과 체험에 있어서의 특수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후자는 보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외국 문학도 우리 문학도 이러한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제3차 교육과정 『중학국어3-2』에 수록되어 있는<공부할 문제>는

공부할 문제																													
중학국어 3-2 「큰 바위 얼굴」	1-1. 흥미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글을 읽자.																												
	1-2. 독서 습관을 길러서 여가를 선용해 보자.																												
	1-3. 글을 읽을 때에는 (가) 글의 짜임과 줄거리를 알고 (나) 비유된 바도 잘 이해하도록 힘쓰자																												
	1-4. 정해진 시간(7분 내외)안에 다음 표를 완성해 보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이름</th> <th>생물 연대</th> <th>국적</th> <th>전공(직업)</th> </tr> </thead> <tbody> <tr> <td>예이츠</td> <td></td> <td></td> <td></td> </tr> <tr> <td>디킨슨</td> <td></td> <td></td> <td></td> </tr> <tr> <td>시토름</td> <td></td> <td></td> <td></td> </tr> <tr> <td>주쑤칭</td> <td></td> <td></td> <td></td> </tr> <tr> <td>가아드너</td> <td></td> <td></td> <td></td> </tr> <tr> <td>호오도온</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이름	생물 연대	국적	전공(직업)	예이츠				디킨슨				시토름				주쑤칭				가아드너				호오도온			
	이름	생물 연대	국적	전공(직업)																									
	예이츠																												
	디킨슨																												
	시토름																												
	주쑤칭																												
가아드너																													
호오도온																													
2-1.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어니스트에게 실망을 준 까닭과, 이 소설에서의 ‘시인’의 구실을 알아보자.																													
2-2. 다음은 무슨 뜻인가? (가) 그의 말은 자신의 사상과 일치되어 있었으므로 힘이 있었고, 자신의 사상은 자기의 일상 생활과 조화되어 있었으므로 현실성과 깊이가 있었다.																													
3-1. 말과 사상과 생활이 같은 사람이 되도록 힘쓰자.																													

<공부할 문제>는 학습 후에 소설 내용의 이해라든지, 내용 파악을 확인하는 문항들은 2-1과 2-2이며, 1-4는 학생들의 배경지식과 관련된 문항으로 이 문항을 학생들이 수행함으로써 학습목표인 외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학습 되는 것은 아니며, 작가의 생물연대와 국적, 전공을 단순 나열하

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또한 <공부할 문제>의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1-1과 1-3은 효과적으로 글을 읽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문항이지만 1-2는 독서 습관을 길러서 여가를 선용하자는 내용으로 이는 3-1 문항의 앞 뒤에 오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1-4도 소설의 내용이해의 확인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단순 나열은 불필요할 듯하다. 1-4보다는 2-1과 2-2가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제3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외국문학 작품들을 살펴보았는데,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표기 방식은 제2차 교육과정과 동일하며, 단원 구성 방식에서 있어서도 제2차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국민교육헌장-대단원-소단원(단원명-본문-익힘 문제-주)’로 이루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제4차 교육과정(1982-1987)

제5공화국 출범을 맞이한 1980년대 초의 정치적, 사회적 특수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육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와 함께 이에 대처한 적절한 새 교육과정이 필요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은 어느 한 사조나 이념, 이론만을 반영하지 않고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같은 특정 교육과정 이론들이 생성되어 그 시대를 지배하게 된 것은 각 시대가 처한 사회적 특수성과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육적 관점 등 타당한 근거와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성은 국어과 특성의 명료화와 학습 내용의 적

정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세부적으로는 언어 기능의 신장 강화, 문학 교육의 강화, 언어 교육의 체계화, 작문 교육의 강화, 가치관 교육의 내면화를 개정의 방향으로 삼았다.³³⁾

일반적으로 제3차 교육과정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며 동시에 가치관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제4차 교육과정은 그에 비해 문학 교육 영역이 강화되면서 가치관 교육이 내면화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치관 교육의 내면화’라는 수사에는 국가 스스로 지배이데올로기의 관철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던 제3차 교육과정의 오류를 시인하고, 그것을 잠재적 교육과정화함으로써 피지배층의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의 교육 과정의 특징으로는 국어과의 배경 학문으로 수사학, 언어학, 문학을 제시한 점과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을 제1차~제3차와는 달리 ‘표현·이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으로 삼분한 점을 들 수 있다. ‘표현·이해’는 국어 사용의 기능을, ‘언어’는 국어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을, ‘문학’은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지식을 지도하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제1차~제3차 교육과정은 문학을 언어생활기능 신장을 위한 도구이거나 정치 이념을 주입하는 통로로 이용했다면 제4차에 와서는 비로소 독자적인 항목으로 독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게 되기도 한다. 이에 읽기 연구가 활발해 지는데 이는 사회의 변화와도 상관이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문자 언어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보의 이해 과정을 다루는 읽기는 다른 어떤 교과보다도 국어 수업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어떻게 하면 학습자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교과의 학습 기반이 되기도 하기에 중요하다.³⁴⁾

33) 손영애(2004), 앞의 책, 171면

34) 박수자(1997). 「국어과 교육과 출판」, 『한국초등국어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70면

이처럼 ‘문학’과 ‘언어’를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한 점이 제1차~제3차 교육과정과는 다른 점인데, 제1차~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읽기’나 ‘쓰기’의 지도 내용으로 혹은 ‘지도상의 유의점’이나 ‘제재 선정의 기준’에서 다루어졌던 ‘문학’이나 ‘언어’에 관한 학습 요소가 독립된 영역으로 제시됨에 따라 그 내용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

제4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의 구성 체계³⁵⁾를 살펴 보자면,

<제4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
가. 교과 목표 (전문(前文)과 언어 사용 기능 영역, 언어 영역, 문학 영역에 관하 목표 각각 1개항씩 제시)
나. 학년 목표 및 내용 <1학년> 1) 목표(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에 관한 목표 각각 1개항씩 제시) 2) 내용 가) 표현·이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나) 언어 다) 문학 <2학년> <3학년>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1) 지도 2) 평가

제4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국어과 지도 내용으로 제1차부터 제3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문학’과 ‘언어’를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한 점이다.

<표 6> 제4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외국 문학들을 표와 함께 보자면,

35) 손영애(2004). 앞의 책. 172쪽

교과서명	단원명	작품명	문학장르	작가	교수요목기	제1차	제2차	제3차
중학국어1-1	5.소설	이해의 선물	소설	빌라드				
	6.전기	폴란드 소녀의 울음	수필	에브 퀴리	○		○	○
중학국어2-1	9.일기와편지	그리운 에밀리에	수필	베에토벤				
중학국어2-2	6.소설	큰 바위 얼굴	소설	호손		○	○	○
중학국어3-1	6.희곡	빌헬름 텔	희곡	실러				
중학국어3-2	2.일기와편지	나의 발견 - 대화의 창 (고호의 편지)	수필	빈센트 반 고흐				
	9.수필	아버지의 뒷모습	수필	주쯔칭				○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제1차 교육과정기부터 계속 연속해서 수록되었던 「큰 바위 얼굴」과 제3차 교육과정에도 수록되었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제외한 「이해의 선물」, 「그리운 에밀리에」, 「빌헬름 텔」, 「고호의 편지」 등은 새롭게 수록된 외국 문학 작품들인데 수필과 소설의 형식이 아닌 극의 형식은 교육과정기상 처음 수록되었다.

1) 『중학국어1-1』에 수록된 「이해의 선물」은 미국의 아동 문학가인 폴 빌라드의 작품으로 순수한 동심과 어른들의 따뜻한 마음을 대칭적 구조 속에서 그려낸 작품이다.

주인공인 나는 위그든 씨의 사탕 가게에 처음 갔던 것은 네 살쯤 되던 때

였는데, 거기에서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어머니를 따라 사탕 가게에 몇 번 드나들면서, ‘거래’라는 개념을 차차 알게 됐는데, 돈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혼자 사탕을 사러 가서는 돈 대신 버찌씨를 낸 적이 있었는데, 위그튼 씨는 어린이의 순진함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아무 말도 않고 오히려 거스름돈까지 내주었다. 그 후, 성장한 나는 결혼을 하고 외국산 관상어 장사를 하게 되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두 어린이가 들어와서 열대어 몇 쌍을 사고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돈을 내밀었다. 그 순간, 위그튼 씨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고, 돈이 모자라냐고 묻는 그들에게 주인공인 나 역시 거스름돈까지 내주었다. 뒤에 서서 영문을 모르던 아내에게 위그튼 씨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아내의 두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이처럼 어린이의 순진한 돈이 배제된 거래와 어른의 정상적인 거래가 갈등 관계를 이루고 있고, 두 사건이 각각 구성의 구조를 완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의 전형적인 형식을 보여준다.

소설 교육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인간이해에 있고, 그런 이해가 인간의 미묘한 심리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고 볼 때, 인간성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 작품으로 교훈적 의미가 작품 자체 속에 녹아 있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크다고 생각된다.

제4차 교육과정에는 제3차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공부할 문제> 뒤에 <문법>과 <작문>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재로서 수록되었다. 이번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향 중의 하나가 <작문> 교육, 즉 쓰기 교육의 강화이다. 어느 면에서 생각하여 보면, 국어과 교육의 종합적 성과는 쓰기 교육을 통하여 결정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과 교육에서 <작문>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제4차 교육과정 『중학국어1-1』에 수록되어 있는 <공부할 문제>는

공부할 문제	
중학국어 1-1 「이해의 선물」	<p>1. 이 소설(이해의 선물)을 다음과 같이 읽어 보자.</p> <p>(1) 어릴 적 일을 회상하는 어른의 어조로 이 소설을 낭독해 보자,</p> <p>(2) 대화 부분과 설명 부분을 구분하여 실제처럼 들리게 읽어 보자.</p> <p>2.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을 써 보자.</p> <p>(1)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누구인가?</p> <p>(2) 이 소설의 주요 배경은 어디인가?</p> <p>(3) 주인공이 두 어린이를 보고 목이 멘 이유는 무엇인가?</p> <p>(4) 위그든 씨는 왜 돈을 거슬러 주었는가?</p> <p>(5) 아내의 두 눈은 왜 눈물에 젖어 있었는가?</p> <p>(6) 이 소설의 계절은 언제인가?</p> <p>(7) 이 소설의 끝 부분에 나타난 위그든 씨의 웃음소리는 어떤 소리인가?</p> <p>(8) 이 소설은 몇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가?</p> <p>3. 이 소설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대목을 찾아보고, 왜 그런 감동을 받았는가 서로 이야기해 보자.</p> <p>4. ‘요람기’와 ‘이해의 선물’처럼 어린 시절이 소재가 된 소설을 찾아 읽고, 친구들 앞에서 줄거리를 말해 보자.</p>

<공부할 문제>1번 문항은 소설의 내용에 따라 분위기를 살려 읽어보는 활동과 대화와 설명을 구분하여 대화부분에서는 인물의 성격에 알맞게 낭독을 하고 설명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 낭독하도록 지도한다. 이 활동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이 소설의 분위기와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2번 문항은 소설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소설의 구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3번 문항은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유도하는 활동으로서 <공부할 문제>가 단순한 내용 파악에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가지

고 확장하여 학생들에게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항이다. 4번 문항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권장할 만한 작품을 소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한 글의 제재가 외국 소설인 만큼 참고 작품으로는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나 디킨즈의 「올리버 트위스트」, 위고의 「장발장」 등 외국 소설을 소개해 주어 연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문법>에서는 문장 성분에 대하여 학습함으로써 성분별 분석할 수 있게 하고, <작문>에서는 실제로 소설을 읽은 후 그 줄거리와 감상을 간단히 적어 보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소설에 대한 감상력과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2) 『중학국어1-1』에 수록된 또 다른 외국 문학 작품은 「폴란드 소녀의 울음」은 교수요목기와 제2차 교육과정의 「어두운 시절」이 제목이 수정되어서 「폴란드 소녀의 울음」으로 제3차 교육과정과 제4차 교육과정에 연속해서 수록되었다. 글의 제재가 수록된 대단원은 교수요목기부터 계속해서 달라졌는데, <일상어의 반성>에서 제2차 교육과정의 <역사를 빛낸 이들>, 제3차 교육과정의 <언어와 민족> 그리고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전기> 부분에 수록되었다. <전기>에 수록된 「폴란드 소녀의 울음」은 그 전의 제3차 교육과정의 <언어와 민족>에 수록된 <공부할 문제>와는 그 양상이 다르게 전개된다.

제4차 교육과정 『중학국어1-1』에 수록되어 있는 <공부할 문제>는

공부할 문제	
중학국어 1-1 「폴란드 소녀 의 울음」	1. 다음 물음을 생각하면서 이 글(폴란드 소녀의 울음)을 읽어 보자. (1) 이 전기는 마리아의 일생 중 어느 시기에 초점을 맞추었

	<p>나?</p> <p>(2) 마리아의 조국은 어떠한 상황이었나?</p> <p>2.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을 써 보자.</p> <p>(1) 마리아의 성격은 어떠한가?</p> <p>(2) 시학관이 시찰 나온 임무는 무엇이었는가?</p> <p>(3) 마리아는 왜 울음을 터뜨렸는가?</p> <p>(4) 다음 구절의 뜻을 써 보자.</p> <p>(가) 그에게서 폴란드 말로 폴란드 역사를 배우는 매우 영리한 학생들도, 은근히 공범자요 공모자인 모양이다.</p> <p>(나) 오늘은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p> <p>(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p> <p>3. 퀴리 부인의 전기를 구하여 읽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자.</p> <p>4. 국어의 중요성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해보자.</p> <p>5. 다음 한자를 익히자</p> <p>凡, 科, 長, 室, 始, 作, 完, 全</p>
--	---

<공부할 문제> 1번 문항은 어떠한 문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어보는 활동을 한다. 하지만 글을 맹목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고, 또한 마리아의 조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읽을 것을 지도하다. 2번 문항은 제3차 교육과정에서도 (가)의 구절의 뜻을 써보는 문제되었는데 제4차 교육과정에서도 이는 재수록 되었다. 이를 제외한 2번 문항은 모두 제3차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제3차에서는 글 제재의 일부분을 주고 이 말의 뜻을 쉽게 풀이해보는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제4차에서는 구절의 뜻 풀이는 물론이고 성격, 시학관의 임무, 마리아의 울음의 의미 등에 대한 답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글 제재의 단순한 이해나 단순 지식의 암기를 넘어서는 글 제재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함께 이 당시 폴란드 상황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서 더 수월하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문항이다. 이에 교사는 퀴리 부인이 소녀 시절에 시

코르스카의 사숙에서 경험한 일화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의 폴란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3번 문항은 이 대단원이 <전기>라는 점과 관련하여 전기의 의미와 교과서에 수록된 이 글 제재와 같은 전기를 읽는 의도를 교훈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4번 문항은 나라의 말이 얼마나 귀중하며 또 민족과 국가의 존재와 존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특히 일제 말기 일본어 국어 말살 정책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이어진 점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국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5번 문항은 한자를 익히는 문제인데, 기능 중심의 교육 원리를 도입하고, 학문적 배경을 갖춘 교육과정을 추구함의 일환으로 보인다. 기본 한자를 익혀서 실생활에서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문법>에서는 구조에 따른 문장의 종류를 알게 하고, <작문>에서는 한 인물의 외형과 성격을 묘사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3) 『중학국어2-1』에 수록된 「그리운 에밀리에」는 베토벤은 테프리츠에 머무르는 2년 동안에 제7교향곡, 제8교향곡을 작곡하였는데, 이 작곡을 하면서 베를린의 젊은 여류 성악가 에밀리에 제발트와 주고받은 편지 중 1812년 7월 17일의 편지이다. 편지의 효용은 하고 싶은 말의 내용을 말과는 달리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점에 있다. 따라서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는 내용 이상의 심리적인 긴밀한 유대와 훈훈한 정의를 교류를 이룰 수 있다. 제4차 교육과정 『중학국어1-1』의 「그리운 에밀리에」에 수록되어 있는 <공부할 문제>는 같은 대단원에 수록되어 있는 「상무에게」라는 편지 글에 해당되는 <공부할 문제>는 제외해서 논하겠다.

공부할 문제	
중학국어 2-1 「그리운 에밀리에」	2.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을 써 보자. (3) 에밀리에는 어떤 일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인가? 3. 편지에는 글쓴이의 생활, 성품, 환경, 사상이 나타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5. 다음 한자를 익히자 目, 天, 才

<공부할 문제> 2번 문항은 이 편지를 읽은 후 기본내용 학습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지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행하기에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3번 문항은 글의 체재 내용보다는 글의 형식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편지는 자신의 처지, 생각 등을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친밀하게 알리는 개인적인 글이므로, 그 내용에는 편지를 쓴 이의 생활과 성품 등의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남을 학생들은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법>에서는 조사의 기능을 알고, 조사를 바르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고, <작문>에서는 주어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표현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4) 『중학국어2-2』에 수록된 작품은 「큰 바위 얼굴」이다. 이 작품은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4차 교육과정까지 매년 수록되고 있는 작품으로 제4차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두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데,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소설>단원에 수록되었고,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독서 생활>에,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외국 문학의 첫 걸음>에 수록되었는데, 다시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제1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6.소설>단원에 수록되었다.

그렇다면 학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소설>이라는 대단원에 수록된 제1

차 교육과정과 제4차 교육과정의 「큰 바위 얼굴」 대단원 소개글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보자면,

【제1차 교육과정 VII. 소설 「큰 바위 얼굴」】

소설은 읽기에 재미있다. 그러고도 인생의 진실을 알려 주고 진선미의 세계에서 감동하게 한다.

우리들의 가슴에 움트기 시작하는 문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또 문학 감상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소설을 읽자.

소설을 읽는데도 좋은 작품을 골라 읽을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 즉, 어떤 작품이 참으로 예술품인가를 아는 마음의 눈을 가져야 하겠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작품을 읽고, 그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정심을 찾아 보며,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 보기로 하자.

이처럼 이 단원은 좋은 소설을 선택하여 읽음으로써 인생의 진실한 면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움트기 시작한 문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서 개인의 성격과 인생의 일면에 접한 올바른 비판력을 얻도록 하며, 소설의 정의와 읽는 의의 소설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 소설의 선택 등에 대하여 알리려는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 <6.소설> 「큰 바위 얼굴」】

°소설의 주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소설의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작가는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독자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소재로 이야기를 꾸민다. 소설의 소재는 작가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들었거나, 상상한 것 등에서 가져 온다. 독자는 이러한 소설을 읽음으로써 작가의 사상, 즉 주제를 알아

내게 된다. 소설의 주제는 서술을 통하여 제시할 수도 있고, 작품 속의 한 인물의 입을 통하여 직접 제시될 수도 있다. 또, 주제를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독자가 스스로 짐작할 수 있도록 암시할 수도 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에 따라서 사건이 이루어진다.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한 인물의 행위는 다른 인물들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상호간의 반응을 통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사건의 진행을 촉진시켜, 하나의 완결된 줄거리를 이루게 된다.

이 단원에서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제재를 통하여, 소설의 주제와 소설의 사건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된다. 소설의 주제란 작가가 작품을 통하여 독자에게 제시하는 사상이나 의견이다. 또 사건이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위이다. 이러한 소설의 주제와 사건을 이 글의 제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밖의 등장 인물의 성격, 배경, 시점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제1차 교육과정과 제4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대단원과 글의 제재가 같아도 교육과정에 따라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과 정책이 다름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이다.

제4차 교육과정 『중학국어2-2』에 수록되어 있는<공부할 문제>는

공부할 문제	
중학국어 2-2 「큰 바위 얼굴」	1. 이 글(큰 바위 얼굴)을 읽고,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을 써 보자. (1) 이 소설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인가? (2) 이 소설의 배경은 어디인가? 2.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을 써 보자 (1) 이 소설에서 인물이 등장함에 따라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2)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인공에게 실망을 준 까

	<p>답은 무엇인가?</p> <p>(3) 주인공이 기다리는 이상적인 인간상에 가장 많이 접근한 사람은 누구인가?</p> <p>(4)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 개더골드 · 올드 블러드 앤드 선더 · 올드 스톨니 피즈 · 시인 · 어니스트</p> <p>(5) 이 소설의 주제는 무엇인가?</p> <p>3.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기다리는 이상적인 인간형은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자.</p> <p>4. 자기가 읽은 소설 중에서 좋아하는 인물 몇 사람을 뽑고, 왜 좋아하게 되었는가 이유를 서로 이야기해 보자.</p> <p>5. 다음 한자를 익히자. 笑, 從, 筭, 速, 勞, 杯, 訪, 歡, 迎, 呼, 仁, 楊, 宅, 請, 尊, 嚴</p>
--	--

<공부할 문제> 1번 문항과 2번, 3번 문항은 작품을 읽고 주인공, 배경, 사건, 등장인물의 특징 등을 파악하는 문제로 이 소설을 학습한 후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문제이다. 이는 학습목표인 주제와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문항이다. 4번 문항은 「큰 바위 얼굴」을 학습하면서 느낀 감동을 학생들이 다른 작품으로까지 옮겨와 생각해보고, 서로 토론하면서 문학작품이 주는 감동을 내면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문법>에서는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작문>에서는 「큰 바위 얼굴」의 체재 일부분을 가지고 묘사, 대화, 서술의 방법으로 글을 쓰게 하는 것을 학습한다.

5) 『중학국어3-1』의 <희곡>단원에 처음 수록된 「빌헬름 텔」은 독일의 문호 실러가 지은 장편 희곡 「빌헬름 텔」의 5막 중 한 부분(3막 3장)으로 스위스 독립 운동의 전설적 영웅 빌헬름 텔을 주인공으로 한 글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빌헬름 텔」의 줄거리는 알토르프 근처 초원에, 이 마을을 다스리는 태수의 용병 두 사람이 장대에 꽂은 모자에 경의를 표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파수를 보고 있다. 이때, 활을 든 빌헬름 텔이 아들 발터와 함께 그 앞을 그냥 지나가려 하자, 용병이 나타나 창을 들이대며 앞을 가로 막는다. 황제의 반역자니 역적이니 하며, 텔을 감옥으로 데려가려 한다.

뢰셀만 신부와 주민들이 나타나 텔을 변호하고 구출하려 애쓴다. 바로 그 무렵, 매 사냥을 나갔던 태수 게슬러가 무장한 부하들을 이끌고 군중 속으로 등장한다. 용병 한 사람이 나서서 텔을 잡아 두고 있는 까닭을 고해 바치자, 게슬러는 텔을 향해,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얹고 그것을 화살로 명중시킬 것을 명령한다.

활의 명수인 텔도 아들을 화살로 겨누는 일만은 괴로웠기에 텔이 용서를 빌고, 주위에 섰던 여러 사람들도 이런 참혹한 일만은 삼갈 것을 간청하지만, 그럴수록 게슬러는 심술궂은 언사로 텔을 괴롭힐 뿐이었다. 그러자 아들 발터가 조금도 겁내는 빛도 없이 머리 위에 사과를 얹고, 게슬러를 혼내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쏘서 맞힐 것을 재촉한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이 분노한다.

아들의 용감한 행동에 용기를 얻은 듯, 활의 시위를 당기려던 텔이 활을 내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으니 아들을 겨누는 일만은 없게 해달라고 다시 용서를 빈다. 아무래도 소용 없다는 걸 안 텔은 다시 활을 잡는다. 그리고 태수와 하늘을 한 번 보려본 다음에 전동에서 또 하나의 화살을 뽑아 허리춤에 꽂았다.

태수의 조카 루덴쯔가 태수의 지나친 행동에 분개하는 순간, 텔은 시위를 당겨 사과를 떨어뜨린다. 텔은 아들을 껴안고 쓰러진다. 모두 감격해 하며 텔과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게슬러는 텔을 불로 또 하나 화살의 의

미를 캐묻는다. 사실대로 말하면 목숨은 보장하겠다는 게슬러의 말에, 텔은 만일 실수로 아들을 쏘았을 경우, 태수의 가슴을 꿰뚫을 작정이었다고 사실대로 얘기를 한다. 텔의 대답을 듣고 난 태수는 두말 없이 텔을 묶도록 명령하지만 텔은 하느님은 자신을 도울 것이라며 용병을 따라 나선다.

이 희곡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 희곡에 나오는 주인공의 자유주의 정신과 용감한 행동은 일본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시대에,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던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과 상통하는 불의에 대처하는 정신을 본받도록 함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이 희곡의 내용상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신기에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된다. 차라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이 되는 것이 더 적합지 않을까 생각된다.

제4차 교육과정 『중학국어3-1』에 수록되어 있는<공부할 문제>는

공부할 문제	
중학국어 3-1 「빌헬름 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글(빌헬름 텔)을 인물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읽고, 다음 물음에 대답해 보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희곡의 갈등은 외부로부터 왔는가, 내부에서 일어났는가? (2) 이 희곡의 중심 되는 사건은 무엇인가? 2. 다음 물음에 답을 써 보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장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볼 때, 그들의 신분과 성격은 어떠한가? (2) 이 희곡의 갈등이 절정을 이루는 부분은 어느 대목인가? (3) 주인공의 아들 발터는 이 희곡의 사건 전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4) 이 희곡의 주제는 무엇인가? 3. 빌헬름 텔의 비극적인 상황을 통해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희극이 주는 감동이 어떻게 다른가 알아보자. 4. 이 희곡을 배역을 정하여 각 인물의 성격, 신분, 연령에 맞게 분장하고, 연극으로 상연해 보자. 5. 다음 한자를 익히자.

<공부할 문제> 1번과 2번 문항은 글의 제재를 읽은 후에 희곡의 갈등과, 중심 사건, 주제와 인물들의 성격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내용 파악과 이해를 점검하는 문항이다. 3번 문항은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비극은 우리에게 연민과 공포라는 서로 상극적인 정서를 일으켜 준다. 그리고, 작품의 적절한 구조(처음, 중간, 끝)에 의하여 그것들을 말끔히 소화시켜 준다. 희극은 관객이 편들만한, 즉 사회적으로 용납될 만한 인물에게는 상을 주고,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못한 인물들에게는 벌을 준다는 권선징악의 요소를 가졌다. 그러므로 희극은 관객에게 후련한 쾌감을 준다.

<문법>에서는 명사가 여러 가지 성분으로 쓰임을 알도록 하였고, <작문>에서는 희곡을 소설로 고쳐 보는 일과 희극 속에 알맞은 지문을 넣어 보기 학습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6) 『중학국어3-2』에 수록된 「고호의 편지」는 <2. 일기와 편지>라는 대단원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단원에서는 학생 일기 여섯 편과 편지글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편지글 두 편 중에 한 편이 「고호의 편지」이다.

이 편지는 고호가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동생 테오의 생일에 즈음해 건강과 평안을 빈다고 하면서 생일 선물로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란 그림을 보내려고 정성을 쏟아 그렸다. 그림을 가치 그대로 보고자 한다면, 금빛 그림틀에 넣어 감자 빛깔의 벽지를 바른 벽에 걸어 두고 보라며 테오에게 얘기를 하며, 친구 집에서 마지막 그림을 완성할 계획이라며 전한다. 그림이 완성되는 대로 소품과 함께 보내겠으며 그 동안 건강과 안녕을 빌며 편지를 마무리 한다.

이 편지는 편지의 내용은 용건 중심이 아니고, 편지를 쓴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학생들이 학습을 하며 내면적인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생각과 느낌을 주로 한 편지글의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 편지를 써 오던 습관에서 탈피하여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제4차 교육과정 『중학국어3-2』에 수록되어 있는<공부할 문제>는

공부할 문제	
중학국어 3-2 「고호의 편지」	1. 이 글(대화의 창)을 읽고,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을 써 보자. (1) 두 편지의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각각 무엇인가? (2) 두 편지의 편지의 중심 내용은 각각 무엇인가? 2.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을 써 보자. (1) ‘사랑하는 동생 테오에게’에서 글쓴이가 표현한 ‘싸움’은 무엇을 말하는가? (2)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란 그림을 그린 의도는 무엇인가? (3) 고호는 진실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3. 생활적인 편지와 문학적인 편지의 차이를 알아보자. 4.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문학 작품을 여러 편 찾아 읽어 보고, 친구들 앞에서 낭독해 보자. 5. 다음 한자를 익히자. 祝, 願, 鷄, 卵

<공부할 문제> 1번 문항과 2번 문항은 글 제재인 편지의 내용파악과 이해를 확인하는 문항들이며, 3번 문항은 편지 글의 확장이라는 면에서는 질문의 의도는 좋았으나, 생활적인 편지와 문학적인 편지의 차이점은 어떠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서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형식이 아니라는 점과 소재와 주제, 표현, 말, 편지를 쓴 의도 등에서 편지를 비교해야 하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워보인다.

그리고 <문법>에서는 동사의 특성 및 선어말 어미에 대하여 알게 하였고, <작문>에서는 장소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7) 『중학국어3-2』에 수록된 「아버지의 뒷모습」은 <수필>단원에 수록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수필과 다른 문학과의 차이점을 배우게 된다. 수필은 지은이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정시와 비슷하지만, 산문으로 쓰여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 수필과 소설은 산문으로 쓰여진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소설은 허구이고 수필은 허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아버지의 뒷모습」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부드러운 산문으로 표현한 서정적인 수필이다.

제4차 교육과정 『중학국어3-2』에 수록되어 있는<공부할 문제>는

공부할 문제	
중학국어 3-2 「아버지의 뒷 모습」	1. 이 글(아버지의 뒷모습)을 읽고,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을 써 보자. (1) 지은이의 집안에 닥친 불행은 무엇인가? (2) 지은이의 아버지와 지은이는 왜 집을 떠나게 되었는가? 2.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을 써 보자. (1) “아버지의 뒷모습이 굴절되고 있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이 글에서 ‘굴’, ‘플랫폼의 벽’과 같은 소재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3)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3. 수필과 소설의 차이점을 ‘아버지의 뒷모습’과 ‘학마을 사람들’에서 찾아보자. 4. 이 글에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자식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을 찾아보고, 느낌을 발표해 보자. 5. 다음 한자를 익히자. 往, 晚, 怒

<공부할 문제>는 제3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문항과 동일한 것이 많았다.

2번의 (2)번 문항은 제3차의 2-2와 (3)번 문항은 제3차의 1-2와 4번 문항은 제3차 교육과정의 2-1과 동일한 문항이 재수록되었다. 1번 문항은 글의 내용 파악을 확인하는 기초적인 점검 문제이며 3번 문항은 소설과 수필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다. 앞서서도 수필과 다른 문학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수필은 서정시와도, 소설과도 다르다. 즉, 수필과 소설은 산문으로 쓰여진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소설은 허구이고 수필은 허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리고 <문법>에서는 음운의 변동에 대해 알게 하였고, <작문>에서는 반대의 경우를 예로 들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글을 쓰게 하였다.

이처럼 제4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외국문학 작품들을 살펴보았는데,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표기 방식 제3차 교육과정과 동일하며, 단원 구성 방식에서 있어서는 제3차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국민교육헌장-대단원-소단원’의 단원 구성 방식은 같으나, 소단원에서 ‘소단원(단원명-본문-공부할 문제-문법-작문)’으로 구성 되어 제3차 교육과정의 ‘익힘 문제’가 ‘공부할 문제’로 명칭이 달라졌고, 또한 제3차 교육과정까지는 없었던 ‘문법’과 ‘작문’이 새롭게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6. 제5차 교육과정(1987-1992)

1987년 개정된 제5차 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만을 개선³⁶⁾하였는데 제5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적정화·내실화·지역화를 개정의 방침으로 정하고, 제4차 교육과정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

36) 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의 사용 기간이 5~7년을 넘을 수 없다는 행정상의 이유가 교육과정이 개정을 서두르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개정의 전략으로 지속성과 점진성,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을 이와 같은 전략에 따라 부분적으로 보완한 것이 제5차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화’와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제4차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이다.³⁷⁾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의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체제를 점차 지방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해가는 출발점으로서의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효율화는 한마디로 쓸모 있는 교육과정이 되게 한다는 의미로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을 국어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기능 교과로서의 국어과 교육의 성격을 부각시켰다. 이는 언어 사용의 결과보다 언어 사용의 과정을 중시하고,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수-학습 내용의 실제성을 강조하였다. 즉, 국어과 수업의 내용과 활동이 실제 상황과 유사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는 국제 경쟁력 제고의 교육, 기능 능력의 세련화, 생산력 제고 등을 추구하는 ‘행동 주의 교육 과정기’라고 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을 통해 문학에 관한 지식을 쌓고 미적 감수성을 내면화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이 시기 교육 과정의 총체적 특색인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민족 화합에 목적을 두어 제4차 때의 교육 과정 비전인 인문주의 교육 과정을 재확인하는 교육 과정이 되었다. ³⁸⁾

37)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 미래엔 컬러, 62면

38) 이용하(1999),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인문계) 소설 단원의 변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78면

제5차 이후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과 교육이 수사학, 언어학, 문학의 지식, 개념, 원리 등에 대한 이해보다는 학생들의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두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였다. 제5차 이후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언어 기능 신장을 위하여 학생 중심,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을 강조하고 있다.³⁹⁾ 또한 이 시기에 국어 교육이 겪은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가 바로 표현 교육의 강조이다. 그 이전까지 국어 교육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표현 교육에 대해 실질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제5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의 구성 체제⁴⁰⁾를 살펴 보자면,

〈제5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
가. 교과 목표 (前文과 언어 사용 기능 영역, 언어 영역, 문학 영역에 관한 목표 각 1개항씩 제시)
나. 학년 목표 및 내용 <1학년>
1. 목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에 관한 목표 각각 1개항씩 제시)
2. 내용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2학년>
<3학년>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제5차 교육과정의 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 ‘표현·이해’라는 하나의 영역에 속해 있었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사용 기능들이 ‘언어’와 ‘문학’영역과 각각 대등하게 하나의 내용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이다.

39) 최미숙 외(2008), 앞의 책, 31면

40) 손영애(2004), 앞의 책, 176면

또한 제4차 교육과정까지의 『중학국어』가 제5차 교육과정부터는 『국어』로 명칭이 바뀌었고, <공부할 문제>가 <학습 활동>로 명칭이 변하였고, 제5차 교육과정에는 제4차 교육과정에 수록되었던 <문법>과 <작문>은 삽입되지 않았다. 그리고 <단원의 마무리>가 새롭게 추가되어 수록되었는데 본고에서는 <학습 활동>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표 7> 제5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외국 문학들을 표와 함께 보자면,

교과서명	단원명	작품명	문학장르	작가	교수요목기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국어 1-1	10.소설의 세계	이해의 선물	소설	빌라드					○
	16.생활과 수필	아버지의 뒷모습	수필	주쓰칭				○	○
국어 1-2	6.소설과 인물	나비	소설	헤르만 헤서					
	15.상상하며 읽기	폴란드의 소녀	수필	에브퀴리	○		○	○	
국어 2-1	17.희곡의 구성	빌헬름 텔	희곡	실러					○
국어 2-2	13.소설의 배경	큰 바위 얼굴	소설	호순		○	○	○	○
국어 3-2	3. 소설의 주제	별	소설	도데					
	11.희곡과 시나리오	마지막한 잎	시나리오	오 헨리					

제5차 교육과정에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수록되었던 「이해의 선물」이 연속해서 국어1학년 1학기에 수록되었고, 제3차와 제4차에서도 수록되었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제5차 교육과정에도 계속해서 수록되었다. 또한 교수요목기와 제2차와 제3차 교육과정에는 수록되었지만 제4차 교육과정에

는 수록되지 않았던 「폴란드의 소녀」가 다시 제5차 교육과정에서 재수록되었고, 4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하였던 희곡 「빌헬름 텔」이 연속해서 수록되었다. 그리고 제1차 교육과정부터 꾸준히 수록되어왔었던 「큰 바위 얼굴」은 제5차 교육과정에도 수록되었다.

그리고 「나비」, 「별」, 「마지막 한 잎」은 제5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수록된 작품들이다.

1) 『국어1-1』에 수록된 「이해의 선물」은 제4차 교육과정에도 수록되었던 소설 작품으로 글의 제재는 제4차 교육과정과 동일하다.

제5차 교육과정 『국어1-1』에 수록되어 있는<학습 활동>는

학습 활동			
국어 1-1 「이해의 선물」	<p>1. ‘이해의 선물’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p> <p>(1)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 장면은 왜 감동적인가?</p> <p>(2) 어린이의 순진성이 잘 나타난 곳은 어디인가?</p> <p>(3) 주인공은 어떤 마음으로 두 어린이에게 돈을 거슬러 주었는가?</p> <p>(4) “그 순간, 나는 먼 옛날, 위그든 씨가 내게 물려준 유산 이내 마음 속에서 작용하는 것을 느꼈다.”에서 밑줄 그은 유산은 무엇을 말하는가?</p> <p>(5) 위그든 씨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는 행동, 대화, 모습을 한 가지씩 찾아보자.</p> <p>행동: 대화: 모습:</p> <p>(6) 이 소설에서 아름다운 이해의 장면이 세 번 나온다. 누가 누구를 이해했는지 아래의 표에 이름을 적어 보자.</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누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누구를</td> </tr> </table>	누가	누구를
누가	누구를		

2. 다음에 대하여 더 생각해 보자.

(1)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이 들은 위그든 씨의 웃음소리는 무엇을 뜻하는가?

(2) 만약 위그든 씨가 돈 대신 버찌씨를 받지 않았다면, 이 소설은 어떻게 전개될까?

<학습 활동> 1번 문항에서 (3)번을 제외하고는 제5차 교육과정에 새롭게 구성되었다. 글 제재 관련 활동을 제시하였지만 제4차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글의 제재의 내용 이해나 분석보다는 그 원리를 적용해보는 활동 중심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번을 보더라도 학습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제5차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고 이는 교수·상황의 주체를 학습자로 보는 관점이 잘 드러난다. 학생들로 하여금 감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여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2번 문항은 1번 문항에서 학습했던 것을 토대로 더 생각해 보는 문항으로, (1)번은 제4차에도 제시되었던 문항이지만 (2)번은 소설의 전개를 변형시키는 문항으로서 학습자의 사전 지식을 활용하여 다른 사태나 상황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소설의 학습이 내용 파악에 중점을 주는 내용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소설의 전개를 바꾸어 보도록 하여 학습자 스스로 주체적인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2) 『국어1-1』에 수록된 「아버지의 뒷모습」은 제3차 교육과정부터 제5차 교육과정까지 연속해서 수록된 작품이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외국 문학의 첫걸음>에 수록되었고 제4차 교육과정서는 <수필>단원에 수록되었

고, 제5차 교육과정은 <생활과 수필>에 수록되었다. 제4차와 제5차는 수필이라는 단원에 수록이 되었는데, 제4차에 수록된 것과 제5차에 수록된 것의 단원의 소개글과 단원의 길잡이 부분을 보면 그 차이점을 잘 알 수 있다.

【제4차 교육과정 <수필> 「아버지의 뒷모습」】

수필은 산문 문학의 하나이다. 어느 문학 비평가는 “시에 있어서 서정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산문에 있어서는 수필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수필이 지은이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정시와 비슷하지만, 수필이 산문으로 쓰여진다는 점에서 시와는 뚜렷이 구별된다. 산문으로 쓰여진 수필은 소설과 비슷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특히 소설 중에서 1인칭인 ‘나’를 주인공으로 하여 과거일을 회상하거나 고백하는 작품들도 있어서 수필과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소설은 꾸며 낸 이야기 즉, 허구이고, 수필은 허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소설 속의 ‘나’는 지은이가 꾸며 낸 인물인 데 비해, 수필 속의 ‘나’, 즉, 지은이 자신이다.

여기서는 수필이 지은이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정시와 비슷하지만, 산문으로 쓰여진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또 수필과 소설은 산문으로 쓰여진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소설은 허구이고 수필은 허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점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 <생활과 수필> 「아버지의 뒷모습」】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 생활 속에서 얻어진 이러한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쓴 글을 수필이라 한다. 그러나 자유롭게만 쓴다고 모든 글이 수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나는 대로 쓰면서도 지은이의 생각이 짜임새 있게 잘 정돈되어야만 좋은 수필이 된다. 수필은 지은이가 생활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소설 속의 ‘나’는 지은이가 창작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지만, 수필 속의 ‘나’는 지은이 자신이다. 따라서 수필에는 지은이의 사상, 인생관, 느낌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처럼 수필이란 어떤 글인가를 알아보고, 생활 주변의 자그마한 일들이나 평범한 것들에서 의미를 찾고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가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주위의 사물을 깊게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5차 교육과정 『국어1-1』에 수록되어 있는<학습 활동>는

학습 활동	
국어 1-1 「아버지의 뒷모습」	1. ‘아버지의 뒷모습’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이 글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말해 보자. (2) 204쪽의 “아버지의 뒷모습이 굴절되고 있었다.”는 표현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3)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2. 이 글에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자식의 마음이 잘 나타난 있는 곳을 찾아보고, 느낌을 발표해 보자.

<학습 활동>1번 문항의 (1)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모두 제4차 교육과정에 수록되었던 문항들이 다시 재수록 되었다.

3) 『국어1-2』에 처음 수록된 「나비」는 헤르만 헤세의 단편 소설로, 한 인간의 정신적 성숙 과정을 그린 성장 소설이다. 주인공 소년이 나비로 인해 자기 양심과의 싸움을 벌여 나가는 과정이 섬세한 묘사로 그려져 있다. 주인공 소년과 주인공의 친구인 에밀 소년의 선명한 성격적 대비와, 날카롭고도 섬세한 주인공의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한 소년의 정신적 성숙 과정을 경험하고, 인물의 본질에 대한 이해력을 넓혀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즉, 인물과 성격이 어떻게 묘사되고 제시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인간성을

이해하여 삶에 대한 인식을 넓혀 갈 수 있도록 한다.

제5차 교육과정 『국어1-2』에 수록되어 있는<학습 활동>는

학습 활동	
국어 1-2 「나비」	<p>1. ‘나비’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p> <p>(1) 이 소설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 쓴 중심 소재는 무엇인가?</p> <p>(2) 주인공은 친구 에밀을 왜 미워했는가?</p> <p>(3) 이 소설에서, 주인공과 에밀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성격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어떤 점들이 서로 다른가?</p> <p>(4) 주인공이 친구들에게 나비를 보여 주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p> <p>(5) “알았어. 말하자면 너는 <u>그런</u> 자식이란 말이지?”에서 밑줄 그은 말에는 어떤 뜻이 들어 있는가?</p> <p>(6) “……게다가 오늘은 너의 나비 다루는 성의가 <u>어떻다</u>는 것을 알 만큼은 알았어”에서, 밑줄 그은 ‘어떻다’는 무엇을 뜻하는가?</p> <p>(7) 주인공과 에밀의 성격을 말해 보자.</p> <p>2. 다음에 대하여 더 생각해 보자.</p> <p>(1) 주인공이 에밀에게 잘못을 고백했을 때, 에밀이 욕설을 늘어놓았을 경우와 쉽게 용서해 주었을 경우, 이 소설의 결말은 어떻게 달라질까?</p> <p>(2) 이 소설의 결말에서, 주인공은 왜 아끼던 나비를 다 가루를 만들어 버렸는가?</p> <p>(3) 이 소설의 결말에 나타난 주인공의 행동으로 보아 주인공의 마음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p> <p>(4) 이 소설의 결말이 마음에 드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고치면 좋겠는가?</p>

<학습 활동> 1번 문항들은 글의 제재를 읽은 후 내용 파악이나 이해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문항들로서 전 교육과정들의 <공부할 문제>의 문항들의 형식과 차이가 없다. 하지만 2번 문항은 결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는 활

동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결말을 다양하게 상상해 보는 연습을 요구함으로써 학습자 주체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또한 학습자가 상상한 결말을 적용해 보는 활동 중심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국어1-2』의 <상상하며 읽기>에 수록된 「폴란드의 소녀」는 제3차 교육과정의 「폴란드 소녀의 울음」이 작품명을 수정하여 제5차 교육과정에 다시 재수록되었다. 교수요목기와 제2차,3차에 수록되었던 이 작품의 수록 양상과 제5차 교육과정에 다시 수록된 이 작품의 수록 양상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교수요목기에는 대단원 <일상어의 반성>에 수록되어 우리만의 국어를 가졌다는 것과 그 국어를 사용할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에 중점을 두어 국어 사용의 필요성과 언어와 민족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역사를 빛낸 이들>에 수록되어 국어 사용의 필요성보다는 전기문이라는 형식에 초점을 두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와 민족>에 수록되어 한때 우리 나라가 겪었던 것과 같이, 폴란드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모국어의 사용이 금지되었던 시대에 국어 교육에 힘쓰던 교사와 학생들의 이야기를 배움으로써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상상하며 읽기>에 수록되어 학생들이 글을 읽을 때 무의식 중에 글의 곁에 드러난 뜻 이상의 것을 파악해 내는 면은 학생들이 글을 읽을 때 상상력과 추리력을 동원하여 읽은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글을 읽을 때 사건의 원인과 결과, 인물의 성격, 시대적 배경 등을 상상력으로 재현하고 논리화해 봄으로써 좀더 생생한 감상력과 심도 있는 이해력을 키워 나갈 수 있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 『국어1-2』에 수록되어 있는<학습 활동>는

학습 활동	
국어 1-2 「폴란드의 소녀」	1. ‘폴란드의 소녀’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퀴리 부인의 어느 시절의 이야기인가? (2) 당시 폴란드와 러시아는 어떤 관계였을까? (3) “불행히도 그는 용기가 없는 분이었습니다.”에서 마리아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가? (4) 투팔스카 선생은 마리아를 왜 욕박질렀을까? (5) 210쪽의 “시학관은~좋아하는 것이다.”에서 추측할 수 있는 시학관의 성격은 어떠한가? (6) 마리아는 맨 나중에 왜 울음을 터뜨렸을까? 2. 시학관이 교실에 들어오기 직전의 교실의 모습을 상상하여 묘사해 보자. 3. 다음 한자를 익혀 보자. 養, 弱, 勇, 公, 園, 己, 好, 才, 室, 愛, 共, 引, 短, 篇, 始, 政, 指

<학습 활동> 1번 문항의 (2)번을 제외한 문항들은 글의 제재를 읽은 후 내용 파악이나 글 제재의 뜻풀이를 위주로 제시된 문항들이어서 글 제재 학습 후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들이다. 그러나 (2)번은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글을 읽은 후 글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이는 두 러시아와 폴란드 두 나라 간의 관계는 짐작해 보는 것이지 정확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글 제재에서 찾을 수 없기에 학생들의 배경지식이 이 글 제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5) 『국어2-1』에 수록된 「빌헬름 텔」은 제4차 교육과정에 수록되었던 희곡이 연속하여 제5차 교육과정에도 수록되었는데, 글의 제재는 제4차 교육과정과 동일하다.

그리고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대단원<희곡>에 수록되었던 것이 제5차 교

육과정에서는 <희곡의 구성>에 수록되었지만, 수록된 대단원이 다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제5차 교육과정 『국어2-1』에 수록되어 있는<학습 활동>는

학습 활동	
국어 2-1 「빌헬름 텔」	1. ‘빌헬름 텔’을 읽고, 다음과 같이 공부해 보자. (1) 이 희곡의 구성의 5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적해 보자. (2) 이 희곡의 중심 사건은 무엇인가? (3) 이 희곡에 나타난 주요한 갈등을 지적해 보자. (4) 다음 인물의 성격을 말해 보자. ·빌헬름 텔 ·헤르만 게슬러 ·발터 ·뢰셀만 ·루덴츠 2. 다음과 같이 더 공부해 보자. (1) 만약 빌헬름 텔이 아들의 머리 위에 놓인 사과를 맞히지 못했다면, 그 뒤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자. (2) 배역을 정하여 ‘빌헬름 텔’을 연습한 다음, 인물들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낭독해 보자. 그리고 소도구를 준비하여 연극으로 실연해 보자.

<학습 활동> 1번 문항의 (2)번은 제4차 교육과정의 <학습 활동>에도 제시되었던 문항으로 (2)번을 제외한 문항들은 새롭게 제5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것이다. 특히 (1)번 문항은 학습 목표에 알맞게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의 희곡 구성의 5단계를 알아보는 활동이다. 나머지 문항들은 희곡의 중요한 사건이나 주요한 갈등, 그리고 인물의 성격 등 배운 글의 제재 내용 이해를 확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2번의 (1)문항은 학습자에게 그 뒤의 이야기를 상상하게 하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고, (2) 문항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도 제시되었던 문항으로 제4차 교육과정보다는 인물의 성격이나 소도구를 활용하는 방향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6) 『국어2-2』에 수록된 「큰 바위 얼굴」은 제2차 교육과정부터 제5차 교육과정까지 연속해서 재수록되고 있는 유일한 작품이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과 <소설>이라는 같은 대단원에 수록되어 있어서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에 수록되었던 것과 제5차 교육과정에서 수록된 작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소설의 주제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지만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소설의 배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단원의 길잡이 부분을 살펴보자면,

【제5차 교육과정 「큰 바위 얼굴」 단원의 길잡이】

소설에서 인물에 의하여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일정한 때와 장소가 필요하다. 이때와 장소를 소설의 배경이라 한다. 소설의 배경은 크게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나뉜다.……(생략) 소설의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바탕이 된다. 소설에서 배경이 없다면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즉, 이 단원에서는 소설에서의 배경을 강조하며 인물들이 행동하거나 생각할 때 인물을 둘러싼 장소와 시간으로서, 그것은 주제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소설 감상에 있어서 배경을 아는 것은 작품 이해의 중요한 관건이 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배경을 파악한 학습자는 쉽게 작품에 접근할 수 있고,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학습자는 작품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진다.

제5차 교육과정 『국어2-2』에 수록되어 있는<학습 활동>는

학습 활동	
국어 2-1	1. ‘큰 바위 얼굴’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큰 바위 얼굴」	(1) 이 소설의 구성을 알아보자. (2) 이 소설에서 공간적 배경을 찾아보자. (3) 시인이 어니스트에게서 예언자와 성자다운 모습을 발견했을 때의 배경은 어떠했는지 소설 속에서 찾아보자. (4)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말해 보자. ·개더골드 ·올드 블러드 앤드 선더 ·올드 스톤 피즈 ·시인 ·어니스트 (5) 이 소설의 주제는 무엇인가? (6)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을 닮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2. 지금까지 읽은 소설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작품에 대하여 말해보자.
-----------	--

<학습 활동> 1번 문항의 (4)번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도 제시되었던 문항이고 나머지 문항들은 새롭게 제5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문항들이다. 특히 (2)번과 (3)번은 학습 목표에 알맞은 배경에 대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제시하고 있고, 구성, 소설의 주제, 닮게 된 까닭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소설을 학습한 후 내용 이해나 내용 이해를 확인하는 글의 제재안의 뜻풀이나 찾아쓰기 등의 단편적인 내용 파악이 아닌 소설을 학습 후 이를 조금 더 심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유도하는 문항들도 제시되어 있다.

7) 『국어3-2』의 <3. 소설의 주제>에 새롭게 수록된 「별」에서는 소설의 주제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소설의 주제는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중심 사상이며, 인생과 세계에 대한 작가의 입장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주제의 표출방식은 주로 갈등의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인물, 배경, 상징 등의 구성 요소가 적절히 설정되어야

한다. 주제의 파악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독서의 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소설은 1869년에 출판된 알퐁스 도데의 첫 단편소설집 『퐁차방앗간편지』에 실린 작품으로, 작가의 고향인 프로방스 지방의 목가적인 생활을 배경으로 별과 인간의 낭만적인 서정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려낸 수작이다. 「별」은 주인공인 나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뤼브롱산의 목장에서 홀로 양떼를 치는 양치기 소년이다. 몇 주일씩 양떼와 사냥개만 상대하며 혼자 지내는 나는 보름마다 한번씩 양식을 가져다주는 농장식구들에게 마을소식을 전해듣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사실 내가 제일 궁금해 하는 관심사는 아름다운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에 대한 소식이다. 어느 날 뜻밖에 스테파네트가 양식을 싣고 목장에 나타난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날 점심나절에 내린 소나기로 강물이 불어나 스테파네트는 마을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무수한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스테파네트에게 별에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스테파네트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든다. 나는 밤하늘의 술한 별들 중에서 가장 가냘프고 빛나는 별이 길을 잃고 내게 기대어 쉬는 모습을 지켜보며 밤을 지샌다는 내용으로 이 작품은 작가의 특유한 인간에 대한 애정이 담긴 단편 소설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나 역사·사회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주인공 목동의 때 묻지 않은 청순한 사랑을 통해서 순수성 회복을 주제로 하는 작품이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작가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표현되기 마련이고, 이는 소설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소설을 읽는 학생들은 작품 속에 표현된 작가의 사상과 세계관에 이를 비추어 보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인생관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제5차 교육과정 『국어3-2』에 수록되어 있는<학습 활동>은

학습 활동	
국어 3-1 「별」	1. ‘별’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이 소설의 구성 단계를 나누고, 줄거리를 요약해 보자. (2) 이 소설의 등장 인물들의 성격을 말해 보자. (3) 이 소설의 등장 인물인 ‘나(목동)’의 내적 갈등을 주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4) 이 소설의 제목의 의미를 주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5) 이 소설의 배경을 주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2. 다음에 대하여 더 생각해 보자. (1) 소설 속의 사건들이 주제를 향하여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2)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 인생관 및 세계관의 관련성을 알아보자.

<학습 활동>은 모두 주제와 관련지어서 제시되었다. 이는 학습목표에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1번 문항에서는 (1), (2)은 소설을 학습 후에 가장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줄거리나, 인물들의 성격을 확인하는 문항이 제시되어 있다.

(3), (4), (5)는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주제와 관련지어보고, 소설의 제목을 주제와 관련지어 보고, 소설의 배경과 주제와 관련지어 보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문항들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3)번을 보면 목동의 내면의 갈등으로 이 소설의 갈등 구조는 이루어져 있다. 아가씨에 대한 연모의 감정과 그 감정이 어떠한 행위로 표출되지 않고, 내면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윤리 의식과의 갈등이 단일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단일 구조의 갈등은 곧바로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준에서 내적갈등과 주제를 관련지어 유추해내는 것은 어려울 듯 하다. 그리고 (4)번도 제목의 의미와 주

제와의 관련에서 주제의 구현 방법의 하나로 상징적인 수법을 들 수 있는데 이 상징적인 방법의 대표적인 예가 제목의 명명을 들 수 있다. 이 소설의 제목인 ‘별’은 고대 사회부터 인간이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지만 인간으로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나 사랑, 희망 등을 상징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 같이 이 소설에서 별로 지칭되는 아가씨는 목동 자신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어떤 존재로 암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관련성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찾기로 어려워 보여 제시된 문항들은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문항들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2번 문항도 마찬가지로 (1)과 (2)번 문항은 이를 수행하는 학습자들이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항들이다. 이 문항들 사건들이 주제를 향하여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 인생관 및 세계관의 관련성을 찾는 것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준과는 적절성과 적합성이 떨어지는 문항들이라 할 수 있다.

8) 『국어3-2』에 수록된 유일한 시나리오 「마지막 한 잎」을 통하여 시나리오란 무엇이고, 희곡과 시나리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공부하여 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가게 된다. 이는 『국어2-1』에서 학습하였던 희곡 「빌헬름 텔」과 연관하여 희곡과 시나리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의 오 헨리가 지은 「마지막 한 잎」이라는 단편 소설을 각색한 것이다. 시나리오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원작과는 다르게 변경된 부분이 있으나, 작품의 골격과 주제 등 전체적인 면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다.

이 작품은 사랑에 실패하고 삶의 의욕을 잃은 존시가 베이먼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린 담쟁이잎을 보고 삶의 의욕을 찾는 내용이다. 한 인간의

희생 정신이 한 생명을 구하는 내용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좋은 예를 보여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제5차 교육과정 『국어3-2』에 수록되어 있는<학습 활동>는

학습 활동	
국어 3-1 「마지막 일」	한

1. 「마지막 한 일」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이 작품의 구성 단계를 나누어 보고, 그 각각의 내용을 말해 보자.
(2) 이 작품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자.
(3)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가?
(4) 다음 인물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대사를 찾아보자. 그리고 그 인물의 성격을 말해 보자. ·수전 ·준시 ·베이먼
(5) 이 작품에 쓰인 약호들의 쓰임을 알아보자.
2. 희곡과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교해 보자
(1) 목적
(2) 배경의 제한
(3) 장면 구분의 단위
3. 희곡 한 편을 더 읽고, 등장 인물의 성격을 말해 보자.

<학습 활동> 1번 문항은 구성단계, 줄거리, 주제, 인물의 성격 등을 묻는 기본적인 학습 점검 질문과 인물의 대화와 약호들을 묻는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시나리오의 주요 사항에 대한 문제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필요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시나리오라는 익숙하지 않는 장르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2번 문항은 희곡과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것인데 이 둘은 종합 예술이라는 것과 시청각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희곡은 연극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작품으로 대화와 지문으로 되어 있으며, 장면과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고, 막과 장으로 나누지만 시나리오는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작품으로 대화 이외의 바탕글이 있고 비교적 시·공간적 자유가 있으며, 마디와 장면으로 나눈다. 이 공통

점과 차이점을 단원의 길잡이에서 언급을 해주어 학습자가 시나리오를 배우면서 위의 점들에 대해서 유의하며 학습할 수 있다.

이처럼 제5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외국문학 작품들을 살펴보았는데,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국문+한자 괄호 병기로 되어 있으며, 단원 구성 방식에 있어서도 제4차 교육과정과는 다르다. 국민교육헌장이 맨 앞에 삽입되어 있는 것은 제4와 동일하지만 다음 대단원에 와서는 단원의 길잡이-소단원(소단원명-본문-학습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단원 종결시에 단원의 마무리가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 제6차 교육과정(1992-1998)

1992년에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치적, 사회적 일대 변혁을 가져온 시기에 공포되었다.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 개혁이라는 특별한 시대적 의무를 지니게 되고, 기초·보통 교육의 교육 내용면에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와 교육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교육 목표(이념), 내용(행동), 운영(방법), 제도(체제) 등의 네 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기본 방침을 주고 교육 목표와 내용에 국한시켜 설정해 왔다. 이와 같이 교육 목표와 내용 중심의 구성 방침은 실제 학교 교육의 실천 과정과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흐름과 교육의 질 관리를 도외시한 측면이 있어서

단순한 교육 내용의 주제, 개념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평면적 구성 방침에 그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⁴¹⁾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구조와 체제를 결정하는 것과 구성함에 있어서 목표, 내용, 운영, 제도의 네 측면의 핵심적인 강조점이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게 하고, 그 결과가 학교 교육의 실제에 연결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이다.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제5차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체계화, 상세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발되었으나 국어과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은 제5차와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그 체제 면에서는 이전 교육과정과 차이를 보인다. 국어과는 도구 교과적 성격을 강조하고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성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를 고려하여 공통 필수 과목으로 ‘국어’를 설정하고, 현재도 개정7차의 논란이 되고 있는 과정별 선택 과목으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을 설정하였다. 국어 과목의 ‘말하기’, ‘듣기’영역이 ‘화법’ 과목으로, ‘읽기’영역이 ‘독서’과목으로 심화되면서 국어 과목의 영역과 심화 과목(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사이의 체계가 완성되었다.

또한 국어과에서 지도해야 할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내용체계’를 처음 제6차부터 도입하였으며, 학년별 내용을 인지적 요소, 기능적 요소, 정의적 요소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과 성격의 규정 사항에서도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조라는 측면에서 그 토대가 되는 문학 교육이 중시되고 있다.

제6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의 구성 체계⁴²⁾를 살펴 보자면,

41)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 미래엔 컬처그룹, 71면

42) 손영애(2004). 앞의 책. 135면

<제6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	
1. 성격	
2. 목표	
3.내용	
가. 내용 체계	
나. 학년별 내용	
<1학년>	
-말하기-<말하기의 본질/말하기의 원리와 실제>	
-듣기-<듣기의 본질/듣기의 원리와 실제>	
-읽기-<읽기의 본질/읽기의 원리와 실제>	
-쓰기-<쓰기의 본질/쓰기의 원리와 실제>	
-언어-<언어의 본질/국어의 이해와 사용의 실제>	
-문학-<문학의 본질/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2학년>	
<3학년>	
4. 방법	
5.평가	

제6차 교육과정의 체제는 제5차 교육과정의 체제를 보완하고 체계화, 상세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제5차 교육과정의 체제와는 다르게 국어과의 ‘성격’을 규정한 항목과 ‘평가’에 대한 것을 별도 항목으로 기술하였고, 국어과에서 지도해야 할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내용 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표 8> 제6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외국 문학들을 표와 함께 보자면,

교과 서명	단원명	작품명	문학장 르	작가	교 수 요 목 기	제	제	제	제	제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국 어 1-2	2.상상하며 읽기	폴 란 드 의 소녀	수필	에 브 퀴 리	○		○	○		○
국 어 2-1	14.희곡의 구성	빌헬름 텔	희곡	실러					○	○
국 어 2-2	5.소설의 배경	큰 바위 얼굴	소설	호손		○	○	○	○	○
국 어 3-2	8.소설의 주제	별	소설	도데						○

제6차 교육과정에는 「폴란드의 소녀」가 교수요목, 제2차,3차,5차에 이어 다시 수록되었고, 외국 문학의 유일한 희곡인 「빌헬름 텔」은 제4차 교육과정부터 계속해서 수록되고 있다. 「큰 바위 얼굴」은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 연속해서 수록이 되었다. 그리고 「별」도 제5차 교육과정에 이어 재수록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는 새롭게 수록된 외국 문학 작품은 없었고, 유일한 시나리오 「마지막 한 잎」도 다시 재수록되지 않았다.

1) 『국어1-2』에 수록된 「폴란드 소녀」는 제5차 교육과정과 동일한 학년과 대단원에 수록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도 <상상하며 읽기>에 수록되었고,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상상하며 읽기>에 수록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 『국어1-2』에 수록되어 있는<학습 활동>은

학습 활동	
국어 1-2 「마지막 잎」	한 1. '폴란드의 소녀'를 읽고, 상상하며 읽기에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당시 폴란드와 러시아는 어떤 관계였는지 말해 보자. (2) “불행히도 그는 용기가 없는 분이었습니다.”고 말하는 마리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말해 보자. (3) 28쪽의 “시학관은~좋아하는 것이다.”에서 엿볼 수 있는 시학관의 성격을 말해 보자. (4) 마리아는 맨 나중에 왜 울음을 터뜨렸을까?

	<p>(5) 인물의 성격, 장면이나 분위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글을 낭독해 보자.</p> <p>2. ‘폴란드의 소녀’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p> <p>(1) 이 글을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각 부분의 중심 내용을 간추려 말해 보자.</p> <p>(2) 전기 벨 소리가 울리고 난 뒤의 교실의 광경을 말해 보자.</p> <p>(3) 마리아는 왜 자신이 불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는가?</p> <p>(4)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p> <p>3. 다음에 대하여 더 공부해 보자.</p> <p>(1) 일제 강점기에 우리말 사용이 금지되었던 것과 이 글에 나타난 상황을 비교해서 말해 보자.</p> <p>(2) 우리의 민족, 자연 환경, 말과 글, 예술 등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경험을 각자 말해 보자.</p> <p>4. 다음 한자의 음과 뜻을 알아보자. 그리고 각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p> <p>(1) 敎:교사(敎師),설교(說敎) (2) 養:양성(養成), 교양(敎養)</p> <p>(3) 流:유수(流水),본류(本流) (4) 行:행위(行爲), 유행(流行)</p> <p>(5) 自:자신(自身),각자(各自) (6) 室:실내(室內), 교실(敎室)</p> <p>(7) 見:견학(見學),발견(發見)</p>
--	---

<학습 활동>은 제5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체계적이고 문항 수도 늘어난 등의 변화가 있었다. 1번 문항 모두는 제5차 교육과정에 제시되었던 문항들로만 이루어졌다. 2번 문항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문항들로만 이루어졌다. 위계성부분에서는 1번 문항들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2-(1)은 작품을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중심내용을 묻는 문항으로 학생들에게 글 제재를 학습하면서 문단으로 나누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하다. 2-(2)는 러시아의 식민지하에서 폴란드의 말과 역사를 배울 수 없는 상황에서, 몰래 폴란드의 역사를 숨죽여 배우는 교실의 분위기에서 갑자기 울리

는 벨소리는 교실을 매우 긴박하게 만들 것이다.

3번 문항들은 기본적인 글의 제재에 관한 문항들에서 확장되어 수록되었다. 학생들의 배경지식이 동원되어 활동을 더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항이다.

2) 『국어2-1』에 수록된 희곡 「빌헬름 텔」이다. 이 희곡은 제4차 교육과정부터 계속해서 6차 교육과정까지 수록된 작품이다. 「빌헬름 텔」은 제4차 교육과정에는 <희곡>에 수록되었고, 제5차 교육과정에는 제6차 교육과정과 똑같은 <희곡의 구성>에 수록되었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대단원에 같은 작품이 수록되었지만 이를 통해 학습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 차이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단원의 길잡이 부분이다.

【제5차 교육과정 <희곡의 구성> 「빌헬름 텔」】

희곡은 대개 주인공과 상대편의 대립에서 오는 갈등으로 엮어진다. 주인공 에워싼 다른 인물, 환경, 상황에 부딪히거나 혹은 대립되어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갈등의 원인이 외부에서 올 경우에 외적 갈등이라 하고,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날 경우에 내적 갈등이라 한다. 희곡은 이러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희곡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갈등의 발단, 갈등의 상승, 갈등의 위기와 전환, 갈등의 내리막길, 갈등의 종결이나 마무리의 5단계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5단계를 각각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이라고도 한다. 단만극이건 장만극이건 대개 이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발단과 전개는 절정이 있게 되는 원인이 되며, 하강과 대단원은 절정이 종결되는 마무리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단원을 통하여, 희곡은 어떤 짜임을 하고 있으며, 희곡에서의 갈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학습함으로써 희곡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희곡의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으로 이루어진 5단계 구성에 대해 언급을 하였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제6차 교육과정 <희곡의 구성> 「빌헬름 텔」】

희곡은 대사와 지시문으로 이루어진 글로, 대부분 무대에서 공연할 것을 전제로 하는 연극의 대본이다. 그러므로 희곡은 사건의 전개 과정이 긴밀하게 구성되며, 갈등 관계가 소설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희곡은 대개 대립에서 오는 갈등을 …(생략)…내적 갈등이라 한다.

희곡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의 5단계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단은 사건이 시작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단계이며, 전개는 사건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긴장과 흥분을 더해 주는 단계이다. 절정은 대립과 갈등이 최고조의 긴장 상태를 이루는 단계이며, 하강은 반전하여 갈등이 해결되어 가는 단계이다. 대단원은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어 사건이 마무리되는 단계이다.

이처럼 6차 교육과정에서는 희곡이 갈등을 중심으로 짜여진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서 희곡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희곡은 무대라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행동으로 모든 것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소설보다 뚜렷하게 갈등을 제시하며 그 전개 과정이 긴밀하게 구성된다. 이 단원을 통하여 희곡이 갈등의 문학이며, 희곡의 구성이란 갈등이 시작되어 점차 격화되고, 최고도의 긴장 상태에 도달하였다가 갈등이 해소되고 평정을 회복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즉, 희곡의 5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이를 학습함으로써 희곡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6차 교육과정 『국어2-1』에 수록되어 있는<학습 활동>는

학습 활동	
국어 2-1 「빌헬름 텔」	<p>1. ‘빌헬름 텔’을 읽고, 희곡의 구성과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p> <p>(1)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누구이며, 누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말해 보자.</p> <p>(2) 이 작품의 구성을 5단계로 나누어 보자.</p> <p>2. ‘빌헬름 텔’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p> <p>(1) 이 작품의 줄거리를 말해 보자.</p> <p>(2)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인가?</p> <p>(3)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성격을 말해 보자. ·빌헬름 텔 ·헤르만 게슬러 ·발터 ·뢰셀만 ·루덴츠</p> <p>(4) 이 작품의 주제를 말해 보자.</p> <p>3. 다음에 대하여 더 공부해 보자.</p> <p>(1) ‘빌헬름 텔’전편을 읽고,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부분의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자.</p> <p>(2) 만약 빌헬름 텔이 아들의 머리 위에 놓인 사과를 맞히지 못했다면, 그 뒤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하여 말해 보자.</p>

<학습 활동>1번 문항의 (1)은 글의 내용 파악과 이해를 점검하는 문항으로 이 희곡의 가장 주요한 갈등은 외적 갈등으로서, 텔과 게슬러의 갈등이다. (2)번 문항은 제5차 교육과정의 1-(1)에 제시되었던 문항이다. 2-(1)번, (3)번,(4)번 문항은 1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글의 체재의 기본적인 학습을 하는 문항이지만 (2)번 문항은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질문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배경지식이 필요한 문항이다. 13세기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을 무렵인데 이는 교과서 글 체재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학생들의 배경지식 문제이다. 3-(1)번 문항은 빌헬름 텔의 전 편을 읽게 하는 취지로 제시된 질문인데 이 희곡은 총 5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3막 3장 부분이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그 희곡의 전 편을 읽

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활동 같다. 3-(2)번 문항은 제5차 교육과정의 2-(1)에 수록되었던 문항이 재수록된 것이다.

제5차 교육과정보다 학습 활동 문항의 수가 늘어났으며 시대적 배경이나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빌헬름 텔의 줄거리를 질문하는 문항도 있어 교과서만으로 활동하는 학습이 아닌 더욱 확장하여 활동하는 문항들도 제시되는 등 학습 활동이 더 다양해졌다.

3) 『국어2-2』에 수록된 「큰 바위 얼굴」이다. 이 소설은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 연속해서 실리는 유일한 외국 작품이다. 이는 제5차 교육과정의 <소설의 배경>과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제6차 교육과정 『국어2-2』에 수록되어 있는<학습 활동>은

학습 활동	
국어 2-2 「큰 바위 얼굴」	1. ‘큰 바위 얼굴’을 읽고, 소설의 배경과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말해보자. (2) 이 작품에서 사회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3) 시인이 어니스트에게서 예언자와 성자다운 모습을 발견했을 때의 배경은 어떠했는가? (4)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5) 이 작품의 주제와 배경과의 관계를 말해 보자. 2. ‘큰 바위 얼굴’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이 작품의 사건 전개를 구성 단계에 따라 나누어 보자. (2)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성격을 말해 보자 ·개더골드 ·올드 블러드 앤드 선더 ·올드 스토니 피즈 ·시인 ·어니스트 (3) 이 작품에서 시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3. 다음에 대하여 더 공부해 보자.

	<p>(1) 김동리의 소설 ‘역마’를 읽고, 주제와 배경과의 관계를 말해 보자.</p> <p>(2) 한 편의 소설을 읽고, 배경이 작품에서 어떤 구실을 하는 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자.</p>
--	--

<학습 활동> 1번의 (1),(3),(4)는 제5차에서 수록되었는 문항들이 재수록되었고 (2)번의 사회적 배경은 학생들이 글 제재를 학습하면서 보았던 방직공장이나 아메리칸 인디언들, 마차, 기마 행렬 등을 통하여 글 속에서 유추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위의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와 산업 시대임을 알 수 있다. (5)번은 글을 학습한 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주제와 배경의 관계를 질문하고 있다. 2번 문항의 (1),(2)번은 제5차 교육과정에 수록되었던 문항들이다. 3번 문항은 한국 소설 ‘역마’를 읽고 주제와 배경과의 관계를 수행하는 것으로 1-(5)을 수행한 후 이 문항을 연계해서 학습하여도 좋을 듯하다. 한국 소설 ‘역마’는 역마살로 일궈어지는 한국인의 운명관을 작품으로 나타낸 것이다. 역마살을 타고 난 사람은 평생 떠돌이로 살아야 하는데 소설 ‘역마’에서는 체장수 영감이나 옥화, 성기같은 인물을 통해 그러한 운명관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옥화의 아들 성기가 옛 목관을 지고 떠나는 것은 운명에 순종하는 운명관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소설은 주제와 배경이 매우 밀착되어 있는데, 인간의 떠돌이 운명과 삼거리로 제시된 배경이 그 예이다. 이처럼 외국 문학을 학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소설과의 연관성 학습으로 확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4) 『국어3-2』의 <소설의 주제>단원에 「별」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5차 교육과정에서 대단원<소설의 주제>에 수록된 것과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제6차 교육과정 『국어3-2』에 수록되어 있는<학습 활동>은

학습 활동	
국어 3-2 「별」	1. ‘별’을 읽고, 소설의 주제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이 소설의 주제를 말해 보자. (2) 이 소설의 제목을 주제와 관련지어 말해 보자. (3) 이 소설의 배경을 주제와 관련지어 말해 보자. (4) 이 소설의 등장 인물인 ‘나(목동)’의 내적 갈등을 주제와 관련지어 말해 보자. 2. ‘별’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이 소설의 사건 전개 과정에 따라 구성 단계를 나누어 보자. (2) 이 소설의 줄거리를 말해 보자. (3)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말해 보자. 3. 다음에 대하여 더 공부해 보자. (1) 한 편의 소설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① 소설의 주제를 말해 보자. ② 소설의 구성 요소가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말해 보자. (2) 소설 속의 사건들이 주제를 향하여 통일성과 유기성을 유지해야 하는 까닭을 말해 보자.

<학습 활동>은 1번 문항과 2번 문항 전체와 3번 문항의 (2)는 제5차 교육과정에 수록되었던 학습 활동 문항들이 다시 재수록되었다. 3번 문항의 (1)번 만의 제6차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삽입된 문항인데 이는 교과서에 수록된 「별」의 학습이 내용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 확장시켜 다른 소설에서도 「별」을 학습하면서 중점적으로 배웠던 소설의 주제는 제목, 배경, 사건의 전개, 갈등 구조, 작가의 인생관 및 세계관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상기하고 이를 찾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문항이다.

이처럼 제6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외국문학 작품들을 살펴보았는데, 제5차 교육과정의 표기 방식과 동일하게 국문과 한자 괄호 병기로 구성되었고, 또한 단원 구성 방식도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8. 제7차 교육과정(1998-2006)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은 목표 차원에서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내용차원에서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운영 차원에서 학습자의 능력·적성·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천, 제도차원에서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의 네 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위의 기본 방향들을 중점으로 하여 제7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표방하였다. 첫째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의 구성 방식을 바꾸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였고, 국민 기본 공통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세 영역으로 나누었다.

둘째는 교육과정 편제에 과목군의 개념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과목군의 도입은 동일 과목군 내에서 과목 간의 중복이나 비약을 예방할 수 있고, 필요하면 통합 지도가 가능하게 된다.

셋째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이다. 이는 학생의 필요, 능력, 적성,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

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과와 특징 또는 교과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단계의 특징에 따라 단계형, 심화 보충형, 그리고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⁴³⁾

넷째는 재량 활동의 신설, 확대이며 다섯째는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도입하였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창의성과 정보 능력 배양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 국어과 교육과정 역시 10년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성격과 목표를 일원화하고 각 학년별로 교육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또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심화·보충형’과 ‘선택형’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또 국어과의 하위 영역을 언어 습득 순서를 고려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으로 재편하였다.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의 구성 체계⁴⁴⁾를 살펴 보자면,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	
1. 성격	
2. 목표	
3. 내용	
가. 내용 체계	
나. 학년별 내용	
	〈7학년〉
	-듣기-〈내용/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말하기-〈내용/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읽기-〈내용/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쓰기-〈내용/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43)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 미래엔 컬처그룹, 78면

44) 손영애(2004). 앞의 책. 135면

- 국어 지식-<내용/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 문학-<내용/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 <8학년>
- <9학년>
- 4. 방법
- 5. 평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으로 분리되었던 교육과정을 1학년에서 10학년에 이르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시기 국어과 교육과정 역시 10년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성격과 목표를 일원화하였으며 각 학년별로 교육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심화·보충형’, ‘선택형’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국어과의 영역 구분도 언어 습득의 순서를 고려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으로 구성하였다. 즉, 6차 교육과정의 ‘언어’가 ‘국어 지식’으로 변화했고 영역 구분도 순서가 바뀌었다.

<표 9> 제7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외국 문학들을 표와 함께 보자면,

교과서 명	단원 명	작품 명	문 학 장르	작가	교 수 요 목 기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제 4 차	제 5 차	제 6 차
국어1-1	1.문학의 즐거움	이 해 의 선물	소설	폴 빌라드					○	○	
국어2-2	2.이야기의 구조	현 명 한 아내, 만 카	체 코 의 옛 날 이 야기	작 자 미상							

제7차 교육과정에는 외국 문학이 가장 적게 수록되어 있다. 「이해의 선

물」은 제4차 교육과정에 처음 수록되어 제5차 교육과정까지 연속해서 수록되다가 제6차 교육과정에는 제외되었다가 다시 제7차 교육과정에 재수록되었다. 「현명한 아내, 만카」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수록되는 작품이다.

1) 『국어1-1』에 수록된 「이해의 선물」은 제4차 교육과정과 제5차 교육과정에도 수록되었던 작품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이해의 선물」은에는 <읽기 전에>와<읽기 중 학습>, <학습 활동> 그리고 <생각 넓히기>와 <보충·심화>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학습 활동>의 문제들만 다루도록 하겠다.

제7차 교육과정 『국어1-1』에 수록되어 있는<학습 활동>은

학습 활동	
국어 1-1 「이해의 선물」	<p><내용 학습> 이 소설에는 아름다운 이해의 장면이 세 번 나온다. 각각에 대하여 간단히 말해 보자.</p> <p><목표 학습> 만약,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다면, 나는 어떤 장면을 가장 정성들여 만들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p> <p><적용 학습> 내가 만약 ‘위그든’ 할아버지였다면 버찌씨 몇 개로 사탕을 사려고 했던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했을까? 그 사탕 가게의 주인이 되었다고 상상하고, 내가 취했을 행동을 적어 보자.</p>

<학습 활동>은 내용 학습과 목표 학습 그리고 적용 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난이도와 중요성에 따라서 나누었는데, 문학 작품을 읽고 단계별 학습 활동을 하는 것은 학습자의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내용 학습의 문항은 제5차 교육과정의 1-(6)번 문항이 다시 재수록되었다.

소설의 제목이 ‘이해의 선물’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소설을 잘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에 걸친 아름다운 이해의 장면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소설의 줄거리와 주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목표 학습은 이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소설의 내용과 관련된 수많은 영상들이 만들어졌다 금방 사라지고는 한다, 이 중 머릿속에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영상을 영화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이 작품을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용 학습에서는 목표 학습에서 더 확장된 학습을 수행하게 하는데 소설 속의 등장 인물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뒷이야기를 나름대로 상상해 보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의 「이해의 선물」은 제4차와 제5차의 학습 활동과 비교했을 때 문학 작품의 감상 방법에 대한 다양성의 제고로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수행하면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 『국어2-2』에 수록된 「현명한 아내, 만카」는 체코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만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만카’는 억울함을 당한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것을 판결한 시장이 낸 문제를 맞추어 시장의 아내가 된다. 아내가 된 만카는 남편인 시장의 판결에 의해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처한 위기도 지혜로 해결한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힘이나 기술을 지닌 영웅이나 실력지기 아닌 평범한 인간도 어떤 상황에서건 지혜를 가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제7차 교육과정 『국어2-2』에 수록되어 있는<학습 활동>은

학습 활동								
국어 2-2 「현명한 아내, 만카」	<p><내용 학습> ‘현명한 아내, 만카’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p> <p>1.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사람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 <p>2.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 있게 읽었던 장면을 말해 보자.</p> <p><목표 학습> ‘현명한 아내, 만카’의 구조를 파악해 보자.</p> <p>1. 이야기의 줄거리는 대체로 문제나 갈등의 해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서 만카의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해 보자.</p> <p>《보기》첫째 번 문제 해결 과정</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33%; border: none;">양치기인 아버지는 욕심 많은 농부에게서 소를 받기 위해 시장이 낸 수수께끼를 풀어야 함</td> <td style="width: 33%; border: none;">양치기인 아버지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줌</td> <td style="width: 33%; border: none;">아버지는 소를 받으나 시장에게 지혜를 시험당하게 됨</td> </tr> </table> <p>《나머지 문제 해결 과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문제</th> </tr> </thead> <tbody> <tr> <td>(1) 둘째 번 문제-달걀 10개를 이튿날까지 부화시켜 가져오라는 것</td> </tr> <tr> <td>(2) 셋째 번 문제-나귀 새끼를 찾아 달라는 농부의 소원</td> </tr> <tr> <td>(3) 넷째 번 문제-남편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일</td> </tr> </tbody> </table>	양치기인 아버지는 욕심 많은 농부에게서 소를 받기 위해 시장이 낸 수수께끼를 풀어야 함	양치기인 아버지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줌	아버지는 소를 받으나 시장에게 지혜를 시험당하게 됨	문제	(1) 둘째 번 문제-달걀 10개를 이튿날까지 부화시켜 가져오라는 것	(2) 셋째 번 문제-나귀 새끼를 찾아 달라는 농부의 소원	(3) 넷째 번 문제-남편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일
양치기인 아버지는 욕심 많은 농부에게서 소를 받기 위해 시장이 낸 수수께끼를 풀어야 함	양치기인 아버지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줌	아버지는 소를 받으나 시장에게 지혜를 시험당하게 됨						
문제								
(1) 둘째 번 문제-달걀 10개를 이튿날까지 부화시켜 가져오라는 것								
(2) 셋째 번 문제-나귀 새끼를 찾아 달라는 농부의 소원								
(3) 넷째 번 문제-남편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일								

	<p>2.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만카가 문제를 해결하는 네 번의 과정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자.</p> <p><적용 학습> ‘현명한 아내, 만카’는 주인공이 수수께끼를 여러 번 풀어 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몇 가지 수수께끼를 더 만들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도록 ‘현명한 아내, 만카’의 뒷부분에 덧붙여 보자.</p>
--	---

<학습 활동>의 내용 학습 1번 문항은 글의 내용 확인 문제로서 이 이야기는 여러 개의 수수께끼 풀이로 이루어져 있다. 이 활동은 수수께끼를 누가 내고, 누가 푸는지 알아봄으로써 인물들의 역할을 파악하고, 각 수수께끼 풀이의 장면을 기억해 내도록 하기 위해 제시한 문항이다.

목표 학습의 1번 문항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야기의 주요 사건을 이루는 만카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정리해 보게 하는 활동이다. 첫 번째 문제 해결 과정을 보고 그것과 같이 나머지 문제 해결 과정을 정리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게 하면 좋다. 2번 문항은 만카의 문제 해결 과정을 참고하여 이 이야기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 해결 과정 간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게 하는 활동이다.

적용 학습은 이야기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 해결 과정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길게 늘여 보는 활동으로,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현명한 아내, 만카’의 구조적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제7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외국 문학 작품들을 살펴보았는데, 제6차 교육과정의 표기 방식과 동일하게 국문과 한자 괄호 병기로 구성되었고, 또한 단원 구성 방식도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과서 옆의 ‘날개’ 부분이 수록된 점이 제6차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이다.

IV. 교과서 수록 외국 문학의 종합적 검토

1. 수록 빈도와 분포를 중심으로 한 통계자료의 분석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외국 문학 작품들을 작가별, 작품별, 수록시기별로 분석하여 그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외국 문학 제재 국어 교과서 수록 빈도와 교육과정별 분포

작가	작품	교수 요 목								수록교과서	
			1	2	3	4	5	6	7		
알폰스 도데	마지막 수업 (마지막 공부)	○	○								교수<1-1> 1차<1-1>
	별						○	○			5차<3-2> 6차<3-2>
에브 퀴리	어두운 시절 (폴란드 소녀의 울음) (폴란드의 소녀)	○		○	○	○	○	○			교수<1-1> 2차<1-1> 3차<1-1> 4차<1-1> 5차<1-2> 6차<1-2>
빈센트 뻬네	에이브라함 링컨	○									교수<2-2>
빅돌 유우고	씨 뿌리는 시절 저녁	○									교수<3-1>
즈양 곡도	내 귀는	○									교수<3-1>
보올 비를레느	가을 노래	○									교수<3-1>
보올 발레리	석류	○									교수<3-1>
앙리 파아브르	곤충의 본능		○								1차<1-2>
존 러스킨	삼과 곡괭이			○	○						1차<2-2> 2차<2-2>
				○	○						1차<3-1> 2차<3-1>

나다니엘 호돈	큰 바위 얼굴										1차<3-2> 2차<3-1> 3차<3-2> 4차<2-2> 5차<2-2> 6차<2-2>
오이겐 게르스 텐마이어	독일의 부흥										2차<2-1>
안네 프랑크	안네의 일기										2차<3-2>
에밀리 디킨슨	귀뚜라미가 울고										2차<3-2> 3차<3-2>
에이츠	이니스프리의 호도										2차<3-2> 3차<3-2>
로울링즈	제리의 어머니										2차<3-2>
모음집	지혜의 샘										3차<2-2>
시토크	칠월										3차<3-2>
주썬칭	아버지의 뒷모습										3차<3-2> 4차<3-2> 5차<1-1>
가아드너	모자 철학										3차<3-2>
폴 빌라드	이해의 선물										4차<1-1> 5차<1-1> 7차<1-1>
베에토벤	그리운 에밀리에										4차<2-1>
실러	빌헬름 텔										4차<3-1> 5차<2-1> 6차<2-1>
빈센트반 고흐	고호의 편지										4차<3-2>
헤르만 헤세	나비										5차<1-2>
오 헨리	마지막 한 잎										5차<3-2>
작자 미상 (체코 이야기)	현명한 아내, 만카										○ 7차<2-2>

26명의 외국 작가의 28종의 작품이 선택되어 수록되었다. 외국 문학 수록 작품에서 드러나는 흥미로운 현상은 교육과정기별로 외국 문학이 선택되는 양상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이다. 교수요목기에 수록된 외국 문학이 제1차 교육과정으로 이어진 작품은 「마지막 수업」 뿐 이었고, 오히려 수록된 작품

의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문학 장르도 교수요목기에는 시, 소설, 수필 등 다양한 장르가 수록되었는데,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소설과 수필만 중점으로 수록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다시 제2차와 제3차 교육과정에는 외국 문학 수록 작품 수가 갑자기 확대된다. 그 동안의 교육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것과는 달리 문학 장르 선택의 폭이 크게 확장되었다. 그 후, 제4차와 제5차는 제2차와 제3차 교육과정에 비해 줄어들긴 했으나 7~8편의 작품은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제6차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는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는 단지 두 작품만이 수록되었다.

제1차 교과서부터 수록되기 시작한 나다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은 제7차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과서에 수록됨으로써 외국 소설을 대표하는 지위에 올랐으며, 「폴란드의 소녀」는 교수요목기 교과서부터 수록되기 시작하여 제1차와 제7차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교과서에 수록된 퀴리 부인의 전기이다.

그러나 교육과정기별로 새로운 작품이 수록되기는 하지만 그 수록된 작품도 거의 반복되는 형식이라서 최근의 작품들은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2. 교과서 수록 외국 문학의 의미 분석

1) 장르와 수록 방식의 측면

<표 11> 교육과정기에 따른 외국 문학의 장르별 국어 교과서 수록 분포

교육과정	작품명	시	소설	수필	희곡	기타
교수요목기	마지막 수업		○			
	어두운 시절			○		
	에이브라함 링컨			○		
	씨 뿌리는 시절 저녁	○				

	내 귀는	○				
	가을 노래	○				
	석류	○				
제1차	마지막 공부		○			
	곤충의 본능			○		
	삼과 곡괭이			○		
	링컨의 연설			○		
	큰 바위 얼굴		○			
제2차	어두운 시절			○		
	독일의 부흥			○		
	삼과 곡괭이			○		
	게티즈버어그 연설			○		
	큰 바위 얼굴		○			
	안네의 일기			○		
	귀뚜라미가 울고	○				
	이니스프리의 호도	○				
제3차	제리의 어머니		○			
	폴란드 소녀의 울음			○		
	지혜의 샴					○
	이니스프리의 호도	○				
	귀뚜라미가 울고	○				
	칠월	○				
	모자 철학			○		
제4차	아버지의 뒷모습			○		
	큰 바위 얼굴		○			
	이해의 선물		○			
	그리운 에밀리에			○		
	큰 바위 얼굴		○			
	빌헬름 텔				○	
제5차	고호의 편지			○		
	아버지의 뒷모습			○		
	이해의 선물		○			
	아버지의 뒷모습			○		
	나비		○			
	폴란드의 소녀			○		
제6차	빌헬름 텔				○	
	별		○			
	마지막 한 잎					○
	폴란드의 소녀			○		
	빌헬름 텔				○	
제6차	큰 바위 얼굴		○			
	별		○			

제7차	이해의 선물		○			
	현명한 아내, 만카					○

교수요목기에는 소설 2편과 수필 1편, 그리고 시가 4편 수록되었고, 제1차 교육과정에는 소설 2편과 수필 3편이, 제2차 교육과정에는 소설 2편과 수필 5편 그리고 시 2편이, 제3차 교육과정에는 소설 1편과 수필 3편, 시 3편과 그리고 잠언과 격언 5편이, 제4차 교육과정에는 소설 2편, 수필 4편과 희곡 1편이, 제5차 교육과정에는 소설 4편과 수필 2편, 희곡 1편 그리고 시나리오 1편이, 제6차 교육과정에는 소설 2편, 수필 1편과 그리고 희곡 1편이, 제7차 교육과정에는 소설 1편과 체코의 옛날 이야기 1편이 수록되었다.

장르별로 비교해 보면 소설이 13작품(중복 수록)으로 26.5%를 차지하고 있고, 수필은 18작품(중복 수록)으로 36.7%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9작품(중복 수록)으로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희곡은 3작품(중복 수록)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장르별로 비교해 보니 시와 소설이 많은 부분을 점유함을 알 수 있다. 시의 비중이 높은 것은 학생들이 특별히 시를 선호해서가 아니라 교재 편제 상 다루기 편리하고 또 작품 전체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번역을 통해 제시되므로, 원시와 비교해 볼 때, 시의 운율의 상실 등을 통해 의미 변질이 가장 많이 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수록면에서는 소설 작품 중에서 장편 소설은 교과서의 제한된 페이지 수 때문에 전혀 전편을 실을 수 없는 관계로 전혀 수록되지 않았고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은 모두 단편 소설이었다. 희곡 또한 장편인데 비해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으로, 이에 대한 작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습 활동>등에서 희곡의 전편을 읽도록 요구하는 문항들이 제시되었다. 이는 수필도 마찬가지이다. 수필도 교과서에는 일부분만이 수

록되어 있어 <학습 활동>등에서 전문을 모두 읽도록 하는 활동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 문학을 장르별로 살펴 보았는데, 소설과 수필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시, 소설, 희곡, 수필 장르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 장르에 대한 학습자의 균형있는 시각을 갖추게 하기 위해 희곡과 시 부분이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작가와 작품 및 시대의 변화

다음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총3회 이상 수록된 작품들을 정리하였다.

<표 12> 국어 교과서 수록 외국 문학 대표 텍스트

작가	작품	교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에브 퀴리	어두운 시절								
	폴란드소녀의울음	○		○	○	○	○	○	
	폴란드의 소녀								
나다니엘 호손	큰 바위 얼굴		○	○	○	○	○	○	
주쯔칭	아버지의 뒷모습				○	○	○		
실러	빌헬름 텔					○	○	○	
폴 빌라드	이해의 선물					○	○		○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최다 수록 작품은 나다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과 「어두운 시절」이다.

교수요목기와 제7차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총 6회 수록된 나다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은 문화적 배경이 우리와 다른 서구 문화권의 세계에서 산출된 소설이므로 더 학습해야 할 거리가 많다 특히 세속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대립관계에 놓으면서 전자보다는 후자를 증명하는 의미구조는 우리의 한국 문학에서 보기 어려운 스토리 구조

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자아 형성기에 있는 중학생들이 읽기에는 적당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폴란드의 소녀」이다. 이 작품은 이름의 명칭을 계속해서 달리 수정하여 교수요목기와 제2차에는 「어두운 시절」로, 제3차와 제4차 교육과정에는 「폴란드 소녀의 울음」으로 제5차와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폴란드의 소녀」의 작품 명으로 수록되었다. 이 작품은 우리의 암울했던 옛 한일 역사 관계를 회상케 하는 작품으로서 폴란드와 러시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착실한 여학생이 폴란드를 지배하고 있던 러시아 장교의 어려운 질문 시간을 지혜롭게 넘기는 소녀의 눈물겨운 내면 세계와 그리고 그것을 이심전심으로 깊이 이해하는 반 친구들과 선생님의 모습에서 그 당시 폴란드인들의 민족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이는 우리의 일제 강점기 시대와 비슷하였으므로 간접적으로나마 학생들에게 그 때의 민족 정서를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제6차 교육과정만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수록되었고 나머지 5회는 모두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수록되었다. 이는 14살의 학습자들이 세계사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 이 작품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차라리 중학교 3학년의 교과서에 수록되는 것이 더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고려하면 적합할 듯 하다.

다음은 주쓰칭의 「아버지의 뒷모습」이다. 이는 제3차 교육과정부터 수록되기 시작하여 제5차까지 연속해서 3회 수록되었다. 이 작품은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야기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효 사상의 약화를 들 수 있는데 자식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는 것이 부모이며,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는 정신을 읽고 본받아,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제3차와 제4차 교육과정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수록되어 학생들

이 어느 정도 정신적 성숙을 한 후 공부를 하게 되는 작품으로 이 작품을 학습한 후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고, 글 제재의 내용 파악도 주인공과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수록이 되었다. 내용상 성인이 된 아들이 과거 일을 회상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 있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배우기에는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외국 문학의 유일한 희곡 「벨헬름 텔」이다. 이 작품은 독일의 세계적인 문호 실러가 쓴 5막으로 된 희곡으로 교과서에는 3막 3장만이 수록되었다.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사과쏘기 전설의 내용을 통해 잘 알려진 작품으로 스위스 독립 운동을 상징하는 ‘텔’을 주인공으로 하요 자유의 문제를 취급한 작품이다. 교과서에는 텔과 태수 게슬러의 갈등을 잘 보여준 부분으로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활을 쏘는 명장면이 수록된 3막3장이다. 하지만 이 희곡의 내용상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교과서에 실기에는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이므로 차라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는 점이 더 바람직할 듯 하다. 실제로 이후에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폴 빌라드의 「이해의 선물」이다. 제4차와 제5차 교육과정과 제6차 교육과정에는 제외되었다가 제7차 교육과정에 다시 수록되어 총3회 수록되었다. 이 작품은 수록된 교육과정기는 다르지만 모두 ‘중학교 국어 1학년 1학기’에 수록되었다. 어린 시절을 어른이 된 후 회상하는 내용으로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어느 가게 주인의 아름다움 마음씨를 본받아 훗날 스스로도 실행에 옮기는 주인공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막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에게 어린이의 천진난만한 세계와 이를 이해하고 지켜 주려는 어른의 노력이 두 개의 사건 구조를 통해 감동적으로 전달될 것이다. 돈과 거래가 배제된 순진한 어린이의 논리와 정상적인 거래가 오가는 어른의 논리가

대립됨을 통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막 졸업한 초등학교 시절과 그와는 다르게 어른의 논리가 더 적합한 중학생에 입학하였기에 이 작품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표는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 문학 작품들의 작가들을 수록시기에 따라 남성작가와 여성작가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표 13> 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의 작품으로 구분

작가 성별	작가 명	작품 명	문학 장르	교육과정 수록시기
남성	알폰스 도데	마지막 수업 (마지막 공부)	소설	교소요목, 제1차
		별	소설	제5차, 제6차
	빈센트 뻬네	에 이브 라 함 링컨	수필	교수요목
	빅돌 유우고	씨 뿌리는 시 절 저녁	시	교수요목
	즈양 곡도	내 귀는	시	교수요목
	보올 비를레 느	가을 노래	시	교수요목
	보올 발레리	석류	시	교수요목
	앙리 파아브 르	곤충의 본능	수필	제1차
	존 러스킨	삼과 곡괭이 링컨의 연설	수필	제1차, 제2차
	링컨	(게티즈버어 그 연설)	수필	제1차, 제2차
	나다니엘 호 돈	큰 바위 얼굴	소설	제1차~제6차
	오이겐게르스 텐마이어	독일의 부흥	수필	제2차
	예이츠	이니스프리의 호도	시	제2차, 제3차
	시토름	칠월	시	제3차
	주쯔칭	아버지의 뒷 모습	수필	제3차, 제4차, 제5차

	가아드너	모자 철학	수필	제3차
	폴 빌라드	이해의 선물	소설	제4차, 제5차, 제7차
	베에토벤	그리운 에밀리에	수필	제4차
	실러	빌헬름 텔	희곡	제4차, 제5차, 제6차
	빈센트반 고흐	고호의 편지	수필	제4차
	헤르만 헤세	나비	소설	제5차
	오 헨리	마지막 한 잎	시나리오	제5차
여성	에브 퀴리	어두운 시절 (폴란드 소녀의 울음) (폴란드의 소녀)	수필	교수요목, 제2~제6차
	안네 프랑크	안네의 일기	수필	제2차
	에밀리 디킨슨	귀뚜라미가 울고	시	제2차, 제3차
	로울링즈	제리의 어머니	소설	제2차

표에서 보듯이,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 문학의 작가의 성별을 살펴보면, 작가가 25명 중에 남성 작가가 21명, 여성 작가가 4명인 것을 알 수 있다. 남성 작가의 경우는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과정까지 문학 장르도 시, 소설, 수필, 희곡 그리고 시나리오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나오는데, 반면에 여성 작가의 경우는 교수요목에 1개, 제2차 교육과정에 4편, 제3차에 2편, 제4차부터 제6차까지는 각 1 작품 만이 수록되었다. 문학 장르에 있어서도 시, 소설, 수필로 남성 작가에 비하여 다양하게 분포되지 않았고, 교육과정기도 특히 제2차 교육과정에 중점적으로 수록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수록된 작품들의 대다수가 남성 작가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제의 특성

교과서의 주제는 학습자들의 사고나 언어 활동을 위해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발달성과 흥미를 고려한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교과서에 수록된 다양한 주제의 외국 문학 작품들을 3개의 주제로 특성을 잡아 볼 수 있다. 이는 본고에서 특성을 잡은 것과 교과서 주제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 수록된 주제 양상을 파악해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의 특성이 많은 부분이 일치 하며, 주제 분석을 통해 소설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분포를 살펴볼 수 있다.

주제의 특성을 애국심 고취와 민족의 수난, 성장 그리고 사랑으로 항목화를 시킬 수가 있다.

먼저, 애국심 고취와 민족의 수난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마지막 수업」과 「어두운 시절」 (=폴란드 소녀의 울음, 폴란드의 소녀), 「안네의 일기」이다.

애국심 고취와 민족의 수난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수업」과 「어두운 시절」은 우리나라가 겪었던 것과 같이 독일이나 러시아에게 점령을 당하여 더 이상 모국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거나, 모국어의 사용이 금지되었던 시대에 국어의 소중함과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것 모습을 소설이나 수필로써 나타내어 언어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안네의 일기」 또한 독일에게 점령당한 유대인들의 시대적 상황을 현실감있는 일기로 서술하고 있어 민족의 수난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는 안네라는 유대인 소녀의 시선으로 일기장을 키티라고 부르며 2년 남짓한 은둔 생활을 친구에게 말하듯이 써내려간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 유대인들이 당면하고 겪은 민족의 수난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두 번째로 성장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는 「큰 바위 얼굴」, 「이해의 선물」, 「나비」 등이 있다. 세 작품 모두 소설인데, 이러한 소설을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이 중심 모티브인 성장 소설은 미성숙한 주인공이 어떠한 경험을 통해 자아의식을 각성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화되는 성장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이란 인간의 성품, 능력, 신념, 태도, 지력 등이 자연적,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힘이 향상되고 내적으로 통합을 성취하면서 재구성되는 과정을 말한다.⁴⁵⁾

즉, 성장소설은 주인공이 당대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유년시절부터 성인에 이르는 사이에 겪게 되는 혼란과 갈등을 겪으며 자아를 발견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내적 자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로 정의할 수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 문학의 성장 소설들은 청소년의 성장과 관련된 작품으로 유년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편향되어 있는데, 정체성 확립과 갈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제재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은 「아버지의 뒷모습」과 「별」이다. 두 작품은 수필과 소설로 장르는 다르지만 부모와 자식간의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과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아버지의 뒷모습」은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오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효 사상의 약화를 들 수 있는데, 자식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는 것이 부모이며,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다. 여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별」은 작가의 특유한 인간에 대한 애정이 담긴 소설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나 위에서 주제로 잡고 있는 역사·사회적 문제 등에 관심을 두지 않고, 주인공 목동의 때 묻지 않은 청순한 사랑을 통해서 순수

45) 최현주(2003), 『한국현대문학의 지형과 전망』, 심미안, 14면

성 회복을 주제로 하는 작품이다.

주제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의 주제로 항목화를 시켜보았는데, 우리나라의 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과 외국 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같거나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작품 속에서 풀어나가는 방법이나 방향이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처럼 외국 문학은 우리와는 다른 문화의 낯설음도 함께 느끼며 조금 더 사고의 폭과 인식의 폭을 넓혀주자는 것이다. 우리 문학과 구별되는 외국 문학의 교육 가치는 아마 보편성을 통해 상이성을 통찰하고 상이성을 통해 다시 보편성을 새롭게 보게 하는데 있을 것이다.⁴⁶⁾

46) 권오현(1999), 「문학 교과서의 외국 작품 선정 문제」, 『문학과 교육』, 봄호

V. 결론

문학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삶이 다양한 만큼 문학이 담는 세계나 문학이 존재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외국 문학 작품의 경우, 문화특유적 고유성과 문화 포괄적 보편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그 사이를 부유함으로써 더욱 촉진된다. 교육범주로서의 외국 문학이 주목을 받는 것은 이처럼 보편성과 고유성 사이의 틈새에 존재하며 두 힘의 작용으로 다양한 교육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⁷⁾

본 연구는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선정·수록된 외국 문학 작품의 종류와 내용을 분석하여, 각 과정별로 의도했던 교육과정의 방향과 변천 과정을 함께 고찰하였다.

II장에서는 국어과 교육에서 외국 문학의 성격을 규명하고, 외국 문학의 필요성과 가치 및 국어 교육에서 외국 문학이 차지하는 위치, 교과서 내에서 외국 문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논하였다.

III장에서는 교육과정 변천에 따라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교육과정을 정리한 후, 각 과정기별로 수록된 외국 문학 작품들을 학습 활동과 함께 분석하여 양상과 특징을 살펴 보았다.

IV장에서는 먼저, 교과서 수록 외국 문학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기별로 새로운 작품이 한 두 개씩 수록이 되기는 하지만 그 수록된 작품이 거의 반복되는 형식임을 알았고, 또한 최근의 작품들은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교과서 수록 외국 문학을 장르와 수록 방식의 측면, 작가와 작품 및 시대의 변화 측면, 제재의 측면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다. 먼저 갈래와 수록 방식의 검토를 통해 장르

47) 권오현(1998), 앞의 책, 343면

별로 비교해 보면 소설이 26.5%, 시는 18.4%, 수필은 36.7%, 희곡은 6.1%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 문학을 장르별로 살펴 보았는데, 소설과 수필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전체 장르에 대한 학습자의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게 하기 위해 시, 소설, 수필, 희곡 장르 사이에 골고루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작가와 작품 및 시대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까지 대부분 몇 작품 위주로 한정된 제재가 계속해서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유명한 작가의 좋은 작품이 교과서에 수록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학습자들의 외국 문학 교육에 있어서 다각적인 사고를 위해서 다양한 작가의 다양한 작품이 수록되었음 더 좋을 듯하다. 또한 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의 성비 불균형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제재의 측면에서는 크게 청소년의 성장과 민족의 수난을 제재로 한 작품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에 수록되는 외국 문학 작품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외국 문학의 작품 선정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할 점은 여태까지 교과서 수록 외국 문학 작품은 서구 지향주의적이었다. 이는 외국 문학의 다양성의 측면에도 어긋나므로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제3세계의 문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국 문학을 한국 문학과 관련 양상을 밝혀서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순환 즉, 외국 문학과 한국 문학의 상호보완적 교류를 통해 전반적인 문학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 문학의 잘못된 번역이 작품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을 반감시키는 물론 작품 해석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이에 교과서 편찬자들은 번역된 외국 문학 작품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

해야 하며, 오류가 있는 경우는 교정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한국 문학의 실정에 맞게끔 수정을 하여 교과서에 수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외국 문학 교육을 위해서는 외국 문학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올바른 외국 문학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가치와 다양성을 제공하는 외국 문학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본 논고를 마친다.

<참고 문헌>

1. 교과서 및 지도서

1) 교과서

【교수요목기】

문교부(1954), 중학국어 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53), 중학국어 II-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53), 중학국어 II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제1차 교육과정】

문교부(1959), 중학국어 1-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59), 중학국어 1-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59), 중학국어 2-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59), 중학국어 3-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60), 중학국어 3-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제2차 교육과정】

문교부(1966), 중학국어 1-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66), 중학국어 2-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66), 중학국어 2-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66), 중학국어 3-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66), 중학국어 3-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제3차 교육과정】

문교부(1975), 중학국어 1-1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77), 중학국어 2-2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75), 중학국어 3-2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제4차 교육과정】

문교부 저(1985), 한국교육개발원 편, 중학국어 1-1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 저(1984), 한국교육개발원 편, 중학국어 2-1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 저(1987), 한국교육개발원 편, 중학국어 2-2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 저(1985), 한국교육개발원 편, 중학국어 3-1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 저(1984), 한국교육개발원 편, 중학국어 3-2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제5차 교육과정】

문교부 저(1991), 한국교육개발원 편, 국어, 1-1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 저(1991), 한국교육개발원 편, 국어 1-2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 저(1991), 한국교육개발원 편, 국어 2-1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 저(1991), 한국교육개발원 편, 국어 2-2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 저(1991), 한국교육개발원 편, 국어 3-2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제6차 교육과정】

문교부 저(1998), 한국교육개발원 편, 국어 1-2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 저(1998), 한국교육개발원 편, 국어 2-1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 저(1998), 한국교육개발원 편, 국어 2-2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 저(1998), 한국교육개발원 편, 국어 3-2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제7차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2000), 고려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국어 1-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0), 고려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국어 2-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 지도서

- 교육인적자원부(2003), 중학교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국어 1-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 (2003), 중학교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국어 2-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II』

2. 저서 및 논문

1) 저서

- 강진호 외(2007),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반공 이데올로기와 ‘국어’교과서』, 글누림.
- 구인환 외(2007), 『문학교육론』, 삼지원.
- 김신일(2002),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 박도순·홍후조(1999),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문음사.
- 손영애(2004), 『국어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정준섭(1995),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최미숙 외(2008),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최현섭 외(2005), 『국어교육학 개론』, 삼지원.

최현주(2003), 『한국현대문학의 지형과 전망』, 심미안.

2) 학술지

권오현(1998), 「외국문학 수용에 있어서 ‘상호문화적 이해’의 문제」, 『국어교육』, 한국국어독문학교육학회.

권오현(1999), 「문학 교과서의 외국작품선정 문제」, 『문학과 교육』, 봄호.

노명완(1996), 「교과서 제도와 개발 과정의 문제-국어과를 중심으로」, 『함께여는국어교육』, 여름호.

박수자(1997), 「국어과 교육과 출판」, 『한국초등국어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송무(1990), 「중등학교 외국문학 교육에 관하여」, 『중등교육연구 제2집』, 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유인순(2000), 「고교<문학>교재와 외국소설교육」, 『문학교육학』, 제5호 한국문학교육학회.

차혜영(2005), 「국어 교과서와 지배이데올로기」, 『상허학보』, 상허학회.

최석희(2005), 「국어교과서를 통해 본 독일 문화 및 독일 문학의 수용」,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한국독일어교육학회.

3) 논문

- 김향아(2004), 「‘문학’교과서에서 ‘세계문학’에 대한 내용 체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연주(2004),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수록 외국소설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린모(2010), 「상호텍스트성 개념을 활용한 외국문학 읽기」,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용하(1999),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인문계) 소설 단원의 변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숙경(2003), 「제7차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세계문학교육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BSTRACT

Education course and Aspect of Including foreign literatures

Choi ji-hye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extbook is a concrete material for teacher and student. It contains knowledge, skills, attitudes and it is realized within relation with education course. Education course is arranged by social, political, economical factors. So It shows education policy that which literature is contained at which Education period. And it influences a lot teacher and student as well.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examining foreign literatures which have been included in middle school Korean textbook from 1st to 7th education period. After reviewing education of Korean department and foreign literature, examining list of foreign literatures by changing education courses and analyze with education activities.

First, why should we learn foreign literatures at Korean education? We learn meanings and influences of literature, and foreign literatures are also important part of them. So, It's a door of understanding society

that learning foreign literatures at formal education. It helps student with recognizing diversity and making a view of the world, values, sensitivities.

Next, It's divided by 7 periods that examining change of education courses and list of foreign literatures. 7th education course's not completed yet. So It doesn't contain 7th education course but study features and literatures of other each education courses.

Lastly, I can find that 1 or 2 new literatures can be included repeatedly at each education courses but nothing's included recently.

I examined genre of foreign literatures, change of writers, works, periods based on this. First, It's divided into fiction(26.5%), poet(18.4%), essay(36.7%) and play(6.1%). And foreign literatures included at textbook also lean toward fiction and essay. So balance of each genre is important to get a well-proportioned view for students.

I can find that included literatures are limited and included repeatedly. Of course it is spontaneous to include famous writer's famous works, but it is also important to include diverse foreign literatures to get versatile thinking. And It also important to make balance between male and female writers. We accept literatures from Western mostly so far. So It's needed that we have to accept literatures from the 3rd world. Finally, Find supplementation between Korean and foreign literatures to make wide knowledge of literature education.

